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STRATEGY FOR REVITALIZING CLASS MEETINGS THROUGH A LEADERSHIP DISCIPLINE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AIKWANG METHODIST CHURCH

written by

YOUNG SAENG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Euiwan Cho



Jeong Kii Min

March 28, 2019

**A STRATEGY FOR REVITALIZING CLASS MEETINGS
THROUGH A LEADERSHIP DISCIPLINE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AIKWANG METHODIST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UNG SAENG KIM

MARCH 2019

속회지도자 교육을 통한
속회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배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조 의 완 교수

김 영 생

2019년 3월

Abstract
A Strategy for Revitalizing Class Meetings through
a Leadership Discipline Train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aikwang Methodist Church
Young Saeng Kim
Doctor of Ministry
2019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aims to revitalize class meetings that are widely organized but exist nominally within the Methodist Church. This revitalization is attempted through strengthening leadership of class leaders, carrying out specific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m. The results of this attempt show a considerable impact. The three specific problems of Paikwang Church class meetings – lack of class leader training, low participation in Sunday meetings of classes, and weak interest and importance placed on the classes by ministers – are noted to be different before and after the proposed education.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which indicates the problem and research purpose. Given that two essential ministerial components of a local church are worship and small group, this paper has begun from the clear need to revamp small group classes that are largely neglected in this age in which the care and interest for the individual are increasingly necessary.

Chapter 2 explores John Wesley of the 18th Century England and Wesley's revival movement in order to gai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class meetings. Class meetings are direct fruits of Wesley's revival movement. The second half of the chapter examines John Wesley's own class meetings – its origin and development, purpose, order, methods and leaders.

Chapter 3 analyzes the historical influences to Wesley which enabled him to see the opportunity to renew the English Church: the English Methodist Society, German Pietism, Philip Jacob Spener, August Hermann Franke, the Moravian prayer community at Hernhut. Also, this chapter describes Wesley's resulting actions: the Oxford Holy Club, the United Society and class meetings.

Chapter 4 probes the context and growth of classes in England at their birth, as well as class meeting move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The chapter also explains a few factors that caused class meeting to decline.

Chapter 5 recounts the history of Paikwang Methodist Church in terms of its class meetings. The church's current class status and issues are identified. An alternative is proposed, applied, and its results are analyzed.

Chapter 6 proposes a specific strategy of revitalizing class meetings through leadership training that raises individual class leaders to be well responsible for the call of class meeting leading. Two methods are particularly important – 'a strategy to raise class leader' and 'a strategy for continuing education.' Relevant means of carrying out these strategies are then described.

Theological Mentors: Euiwan Cho, PhD

Jeong Kii Min, PhD

감사의 글

할렐루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매 순간순간마다 부족해서, 미련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어김없이 저의 간구에 들어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처갓집 장모님과 처갓집 식구들. 그리고 배광교회에서 목회의 진수를 보여주신 이학성 목사님과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배광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우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그 와중에도 부족한 저의 논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며 세밀한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신 저의 논문 주심 되신 조의완 교수님께 이 지면을 빌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으로부터 박사학위 논문의 정석을 제대로 배우게 되었고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이 논문을 잘 완성할 수 있게 된 점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심되신 민중기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자랑이자 면류관이요 제게 양떼로 맡겨주신 우리 갈보리 교회 장로님들과 교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도 우리 갈보리 교인들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여 영으로 기도하며 몸으로 제단을 지켜낸 모든 면에 격조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갈보리 교인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질 모릅니다. 어디를 가나 평생 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미남으로 성품 좋은 청년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준 제 아들 주열이에게 늘 고맙습니다. 아빠를 무척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무척이나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누구보다 감사할 사람은 단연코 같이 한 이불 덮고 사는 이종숙사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이런 사람을 아내로 주셨는지 그저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저의 아내이자, 저의 삶과 목회 최고의 친구요, 저의 멘토요, 어쩔 때는 저의 스승으로, 어디를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게 주신 우리 하나님최고의 작품입니다. 끝까지 함

께 목회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릴 갈라놓을 때까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고의 친구요, 파트너로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고맙고, 또 미안도 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이제 갈보리 목회 실험실에서 놀랍고도 기가 막힌 신비로운 믿음의 실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 논문이 저의 삶과 목회를 풍성케 하는 요긴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아울러 이 논문을 시작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주시는 비전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고 짧은 인생이고 평가받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정말로 여한 없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 헛필드의 고백처럼 “녹슬어 없어지기 보단 닳아 없어지는” 유용하게 쓰임 받는 종 되길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19년 3월 김 영 생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3
제 3 절 Chapter 별 요	3
제 2 장 속회의 원형인 존 웨슬리 속회	5
제 1 절 존 웨슬리(John Wesley)와 감리교 부흥운동	5
제 2 절 존 웨슬리 속회	8
1. 속회의 발단	9
2. 속회의 탄생	12
3. 속회의 목적	14
가. 신앙의 파선 방지	14
나. 성화의 도구로서의 속회	15
4. 속회의 순서 및 방법	21
5. 속장	24
가. 속장의 선정과 임명	24
나. 속장의 직무와 역할	24
다. 속장들에 대한 감독 및 엄격한 속회 운영 방법	26
제 3 장 웨슬리 속회의 역사신학적 배경	28
제 1 절 17-18세기 일어난 독일의 경건주의	28
1. 슈페너와 경건 소모임	29
2. 프랑케와 할레대학	31
3. 모라비안의 진젠도르프 백작과 헤른후트 형제단	32
제 2 절 영국에서 발생한 종교신도회의 영향	36

제 3 절 결 론: 속회를 통한 교회론의 정립	42
제 4 장 웨슬리 속회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쇠퇴	48
제 1 절 웨슬리 속회의 태동과 성장	48
1. 영국에서의 속회의 태동과 성장	48
2. 미국에서의 속회의 태동과 성장	50
3. 한국에서의 속회의 태동과 성장	52
제 2 절 웨슬리 속회의 쇠퇴와 그 원인	55
1. 메말라버린 그리스도인의 체험	56
2. 영적 책임의식의 상실	58
3. 중산층의 분주한 삶	59
4. 담임목사의 속회에 대한 절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59
5. 개인적인 간증의 지루하고 관습적임	60
6. 역량이 모자라는 속장과 속장의 훈련부재, 그리고 그로인한 유명무실한 속회	61
제 5장 배광교회의 역사와 속회 현황과 속회지도자 교육의 실제와 평가	63
제 1 절 배광교회의 역사와 속회의 진행과정	63
1. 화곡동 제 1성전기의 역사와 속회	63
2. 등촌동 제 2성전 과도기의 역사-담임목사 리더십 전환기의 역사	66
3. 담임목사 리더십 교체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	67
제 2 절 배광교회의 속회 현황 고찰	70
1. 배광교회의 속회 현황	70
가. 속회의 조직과 직무	70
나. 배광교회의 속회 현황 및 속회에 직면한 도전들	70
(1) 속장 리더십 훈련의 취약함	71
(2) 속회모임의 출석률 저조 및 주일날 모여지는 속회현실	74
(3) 속회에 대한 교역자들의 중요성과 관심의 약화	74

제 3 절 배광교회 속회 지도자 교육의 현황과 평가	75
1. 배광교회 속회지도자 교육의 현황	75
가. 교회안의 ‘속회 연구원’ 창설	75
나. 속회지도자 교육진행 계획	75
다. 속회지도자 교육 내용	76
라. 간략한 교육 내용 소개	76
2. 속회지도자 교육의 평가	77
가. 첫 속장의 구체적인 지침과 새로운 결단의 계기 부여	78
나. 부분적인 지식이 하나로 꿰어지고 지식욕구의 충족	79
다. 새로운 감동과 결단의 계기 마련	79
라. 속장의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	80
마. 같은 구역내의 속장과의 만남과 친교의 유익	82
바. 속장들의 또 다른 필요(need)의 발견	82
제 6 장 속회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속회 지도자 교육을 위한 제안	86
제 1 절 속장 세우기 전략	86
1. 전교인 필수 단계별 예수제자훈련 과정	86
가. 확신반 과정	86
나. 성장반 과정	87
다. 제자훈련반 과정	87
제 2 절 속장 계속 교육의 전략	88
1. 새내기 속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강의 내용	88
2. 속회지도자들을 위한 계속 교육 과정	88
가.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발견 및 영적성숙	88
나. 중보기도자로서의 속회 지도자	89
다. 전도하는 제자로서의 속회 지도자	90
라. 기독교의 근본교리로 무장한 속회 지도자	90
마. 기타 필요중심적 교육과 훈련	91

바. 속회 지도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91
제 3 절 배광교회의 ‘구역장’제도를 통한 웨슬리의 ‘밴드, 선발신도회’의 계승발전 사역	92
1. 배광교회 구역장들과의 사역소감 대담	95
가. 사역소감의 질문 내용	95
나. 사역소감의 대담 정리	96
제 7 장 결 론	99
부록 1. 연합신도회 규칙 세 가지	105
부록 2. 웨슬리의 기치와 부흥기록에 나타난 속장의 자격과 의무	107
부록 3. 속회지도자 교육시의 질문 및 그룹별 토의 내용 결과	109
부록 4. 화평교회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 순서	115
참고 문헌	116
Vita	12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교회의 두 날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예배요, 또 하나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가 하나님말씀의 선포와 임재라고 한다면 소그룹은 바로 선포된 말씀이 육신화되는 자리로, 말씀이 삶의 열매로 구체적으로 맺어지는 삶의 자리인 것이다. 실제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약 2년간(1746-1748) 신도회를 조직하지 않고 설교에만 강조를 둔 결과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비참한 경험을 하였다고 1748년 연회록에서 밝히고 있다¹⁾. 실제로 초기 감리교회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 감리교의 1/4이 설교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소그룹의 동료 또는 인도자 그리고 평신도 설교자들의 영향을 받아 교인이 되었다²⁾. 이처럼 웨슬리에게 소집단을 통한 신자 양육은 큰 결실을 가져다주었다. 본 연구자 역시 소그룹에서 소그룹 인도자의 지도와 양육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소그룹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예배와 설교만 가지고서는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소그룹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목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21세기를 맞은 교회의 회중들은 포스트모던(Post-modern) 문화의 영향으로, 극단적 개인주의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에 대한 교회의 보다 세밀한 영적 돌봄을 요청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 Richard P. Heitzenrater, *Wesley and the People called Methodis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163-165.

2) Thomas Alvin, "An Empirical Study of Early Methodist Spirituality" in *Wesleyan Theology Today*, ed Theodore Runyon (Nashville: Kingswood Books, 1985), 278.

이에 오늘의 교회는 소그룹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구체화된 전략을 가지고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회중들의 개인적 삶에 다가가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아래의 질문들이 현재 교회 소그룹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말해줄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가? 또 이 소그룹에서 얼마나 말씀의 육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소그룹에서 얼마나 개인의 치부를 비롯한 속마음들이 정직 진실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이 소그룹에서 얼마나 자신의 죄악을 직고(直告), 자백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중심, 하나님중심이 아닌 세상모임과 다를 바가 없지는 않는가? 설령, 모이더라도 포스트모던 시대의 극단적 개인주의 여파로, 이제는 자신의 집을 공개하려 하지 않기에 웬만한 모임들이 주로 주일날 교회에서 모여지고 있고 그야말로 모이기 위한 억지로의 모임을 지속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본 연구자가 속한 교단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 즉 감리교단이다.

감리교회는 영국 18세기 산업혁명의 여파로 타락하고 병들어 가던 땅을 개혁시키고 피의 혁명에서 영국을 구하였던 존 웨슬리에 의해 창설된 교단이다. 이 감리교회의 중심에는 존 웨슬리의 ‘속회’가 있다.

다시 말해, 속회를 통해 병들어있던 저 영국 땅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속회의 중심에는 존 웨슬리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또한 웨슬리의 지도를 받은 속장이 있었다. 그리고 이 속회가 구역예배, 셀, G12, 두날개, 제자훈련 등의 소그룹의 발원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웨슬리의 속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속회 모임의 현실을 보자면 저 영국 웨슬리의 속회와 너무도 많이 동떨어져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서 저 병들었던 영국을 개혁하였던 존 웨슬리 속회의 본래 본질을 연구하면서 오늘날 속회의 현실을 정직히 비추면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실증사례연구의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첫째는 문헌연구로서 18세기 영국을 복음과 소그룹 속회를 통해 변화시켰던 웨슬리와 웨슬리속회를 고찰할 것이며 웨슬리 사후의 속회의 변천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감리교회의 속회의 역사와 속회의 현황들을 고찰할 것이다. 두 번째 실증사례연구는 2016년도 배광교회의 속회지도자들을 실제로 교육시킨 실증사례를 연구 분석할 것이다.

제 3 절 Chapter 별 요약

제 1 장에서는 서론으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속회의 원형인 저 영국 18세기의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속회를 고찰할 것이다. 먼저, 웨슬리는 어떤 사람인지 당시의 영국사회에서 그가 끼쳤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구체적으로 웨슬리의 속회를 고찰해볼 것인데 웨슬리 속회의 발단, 속회의 탄생, 웨슬리가 속회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였던 속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웨슬리 속회의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를 직고(直告)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속회의 중심인 속장에 대해 살필 것인데 속장의 직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제 3 장에서는 웨슬리 속회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역사 신학적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독일의 경건주의와 영국의 종교신도회가 웨슬리에게 끼친 영향은 가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마음의 신앙, 그리고 소그룹과 조직력 등은 독일 모라비아인들로부터 배운 것이며 특히 독일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의 ‘교회안의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라는 개념은 감리교 부흥운동은 물론 웨슬리 속회의 개념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가장 큰 수확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웨슬리에게 창조적인 교회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인데 이를 고찰할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웨슬리 사후에 감리교와 감리교속회는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피면서 특히 현재 속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들을 자세히 살필 것이다.

제 5 장에서는 배광교회의 역사와 속회 현황과 속회 지도자 교육의 실제와 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배광교회의 역사를 살피되 철저히 속회 중심적 입장에서의 교회 역사를 살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배광 교회 속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대안으로서 속회지도자 교육을 실행하였고 실제적인 평가까지도 함께 다룰 것이다.

제 6 장에서는 속회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속회 지도자 교육을 위한 제안이다. 즉 한사람의 속장이 세워지기 위한 전략과 또 세워진 속장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략 등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속회지도자 교육을 좀 더 확장시켜서, 현재 배광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역장 제도’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해 웨슬리가 조직하였던 밴드와 선발신도회의 계승발전의 차원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소개할 것이다.

제 7 장은 결론으로서 이 모든 연구들을 요약, 종합하여 속회지도자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금 각인토록 한다.

제 2 장

속회의 원형인 존 웨슬리 속회

속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18세기 영국 존 웨슬리와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revival movement)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속회는 웨슬리 부흥운동의 직접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장을 통해서 18세기 절망적인 영국을 피의 혁명으로부터 구원해낸 존 웨슬리와 웨슬리 부흥운동의 영향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웨슬리의 이 뜨거운 부흥운동을 지속 가능케 하였던 그 힘의 원동력이 속회에 있었음을 동시대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와의 비교를 통해 논증하고자한다.

제 1 절 존 웨슬리(John Wesley)와 감리교 부흥운동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 1791년에 소천 하였던 영국 국교도의 사제요, 감리교의 창시자요, 또한 신학자요, 복음전도자이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감리교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을 창설하려 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충성스런 영국 국교도에 머물면서 주변 사람들을 가르쳤다. 존 웨슬리는 1744년 첫 번째 감리교 설교자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메소디스트(Methodist)들을 불러일으키신 목적은 새로운 교단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요, ‘민족을 개혁하고,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여 성서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³⁾ 그는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세상에 실현하기 위하여 메소디스트들을 불러 세우셨다고 총회 때마다 힘주어 가르쳤다. 존 웨슬리와 메소디스트 부흥운동의 목적은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성화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무렵 영국사회를 일컬어 역사가들은 서양의 18세기를 소위 “3R 시대”(Three Rs' Age)라고 일컬어 왔다.⁴⁾

첫째는 ‘혁명’(revolution)이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급변하

3) Thomas Jackson, Tohn mason, *The Works of John Wesley*, 14 Vols (London, 1831, 299),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서울: kmc, 2006), 258에서 재인용.

4) 김흥기, *감리교회사* (서울: kmc, 2013), 25.

는 시대였으며 동시에 유럽에서 정치적 혁명이 발발하는 급변의 시대였다. 특히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으로 발전하면서 농촌인구가 갑자기 대도시로 몰렸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시에는 빈민, 알콜 중독자들, 불량청소년들로 가득하여 정부에 대항하는 자칫 피의 혁명이 발발할 위기촉발의 시대였다. 더군다나 교회는 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귀찮게 여겼다. 오히려 국교도들은 상류층만 좋아하고 노동자계층을 싫어하여 노동자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다고 한다.

둘째는 ‘이성’(Reason)의 시대이다. 유럽에서는 무신론적 이신론과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같은 철학이 꽃을 피우며 신학과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과학의 발달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며 소위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셋째는 ‘부흥’(revival)의 시대이다. 부흥운동은 먼저 독일에서(슈페너, 프랑케) 나타났으며,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운동은 진젠도르프에 의해 퍼져나간 모라비아교인들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그들의 마음의 신앙과 성령의 체험, 소그룹 조직은 웨슬리 형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들의 회심과 부흥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18세기 영국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그 시대는 종교적 부흥을 위해 결코 순조로운 시대가 아니었다.⁵⁾ 18세기 영국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형식뿐이요 생명 없는 것이었다. 종교는 쇠퇴 할대로 쇠퇴하여 상류사회에는 멸시를 받았고 하류사회에는 관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성직자와 감독들은 세상의 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아무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 번민하는 사람은 없었고 많은 목회자들은 사냥을 다니거나 술에 취하였고 그러는 동안 교구민들의 영적생활은 계속 쇠퇴해갔다. 그러나 영국에 프랑스 혁명과 같은 비참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고 그는 종교와 정치계에 갱신과 개혁의 힘을 많이 끼쳤다. 실제로 존 웨슬리의 복음적인 야외설교의 결과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holiness of heart and holiness of life)로 이어졌다. 존 웨슬리의 야외설교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메소디스

5) John Wesley, 존 웨슬리의 일기 (서울: KMC), 17.

트 신도회가 생겨나는 곳이면 어김없이 그 지역사회에는 ‘도덕적 생활습관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었다.⁶⁾ 개인의 회심과 성결은 사회적 성결과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부흥운동 초기에 콘월지방은 존 웨슬리 설교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인바, 그 지방 치안판사가 어느 공적 집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이 문제아들을 모조리 새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도 술주정뱅이와 깡패와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거든 어서 존 웨슬리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가 즉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⁷⁾

과연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영국인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을 개혁하였다.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도덕을 변화시켰고 민족의 성품을 개혁하였다. 그리하여 어거스틴 비넬(A. Binnell)같은 교회사가는 영국인의 삶에서 존 웨슬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⁸⁾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적 성결과 변화의 증거들이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고 풍성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웨슬리가 최후말년에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 당시의 변호사였던 윌리엄 월버포스에게 썼던 그의 마지막 간곡한 편지와 그로 인한 노예해방사건이다. 당시 월버포스는 32세였으며 웨슬리의 격려로 큰마음의 결심을 하였다고 한다. 이 편지를 읽고서 그는 노예 폐지론자의 리더가 되었으며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그들의 운동이 1791년 하원에서 거부당하였지만 결국 오랜 싸움 끝에 16년 후 통과시키고 말았다. 웨슬리는 생전 마지막 편지이기도 하였던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병으로 눕게 되었고 닷새 후에 숨을 거두었다.⁹⁾

그런데 민족을 개혁하고, 특별히 교회를 개혁하여 성서적 성결을 온땅에 전파하고자 하였던 웨슬리 부흥운동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해주었던 그 원동력 중심에는 웨슬리의 소그룹, 특히 ‘속회’가 있다.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6)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258.

7) Luke Tyerman, *The life and Times of the Rev, John Wesley* 3Vols, (1870-71, 346), ;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258.

8) Ibid., 264.

9) 존웨슬리, *존 웨슬리 총서*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존웨슬리. *제10권: John Wesley 서간집*, 332.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은 옥외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자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파선하지 않고 성화될 수 있도록 저들을 견고히 묶어주었던 ‘속회’에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동시대에 사람으로서 웨슬리보다 더 탁월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였다.¹⁰⁾ 그는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남성다운 성격이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쉽게 친밀해졌고 평민들에게는 마치 선망의 대상이 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웨슬리가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는데 크고 풍부하고 강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삼만 명의 청중에게 들릴 정도였고 원고 없는 설교에 가장 성공적인 설교가 이자, 유창한 언변과 수사학적 표현과 전달의 기술과 역동성과 멋진 제스처는 아무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기에 웨슬리는 모든 면에서 휘필드에 많이 뒤졌다.¹¹⁾ 하지만 그는 설교를 통한 위대한 감동을 주었지만 연결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마르고 거친 땅을 소낙비처럼 한번 적셔서 시원케 하고는 그 땅에 그냥 흡수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존 웨슬리의 영향력은 많은 시냇물로 연결되어 넓고 넓은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오래도록 생명수를 공급하였고 지금도 역시 계속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휘필드는 너무 늦게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깨닫고 존 웨슬리의 속회를 통한 연결조직의 능력을 인정하였다.¹²⁾

제 2 절 존 웨슬리의 속회

본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존 웨슬리의 속회를 고찰하려고 한다. 과연 존 웨슬리의 속회는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 속회의 발단과 탄생, 그리고 속회의 목적, 속회의 순서 및 방법, 그리고 속회의 중심인 속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한다. 속회는 그야말로 뜻밖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10)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시절, 신성클럽의 회원으로서 웨슬리와 함께 경건훈련에 열심이었고 후에는 칼빈주의 전도자로서 영국과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옥외설교를 꺼리고 주저하던 웨슬리를 야외로 나가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도록 촉진시킨 사람도 휘필드였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는 말로 유명한, 위대한 전도자요, 탁월한 설교가였다.

11)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213.

12) Richard Urlin, *The Churchman's Life of Wesley*, 188.; 김진두, *웨슬리의 생애*, 274.

현장에서 주어진다든 말처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던 중,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1. 속회의 발단

속회는 그야말로 뜻밖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다든 말처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던 중,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야외 설교로 은혜 받고 웨슬리에게 물려온 사람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잇 거리에서 복음적 신앙의 회심¹³⁾을 체험한 이후 약 10개월간 런던의 올더스케잇 거리 가까운 곳인 시티 로드에서 페터레인 신도회를 지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친구 조지 헛필드의 끈질긴 요청에 의하여 항구 무역도시 브리스톨에 가서 1739년 4월 1일에 첫 번째 야외설교¹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날은 웨슬리 생애와 감리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웨슬리는 이날 이후 본격적인 야외 전도에 주력하게 되었고 복음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전도자의 소명을 새롭게 깨닫고 평민을 위한 전도자의 일생을 출발한 것이다. 이 야외 전도 운동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의 처음 반응은 자신들의 귀에 익지도 않고 또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교리라고 떠들어 대었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반응은 ‘너무 혼자 의로운 척 하지마. 왜 스스로 망치려 드나, 종교를 미칠 정도로 믿지는 말게’등의 쏟아지는 비난들이었다. 이에 이들은 웨슬리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좋으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이 없고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 해도 용기를 북

13) 세계의 모든 감리교인들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선포하고 매년 지키면서 설교와 집회를 통해 이날을 기념한다. 그만큼 웨슬리 개인적으로 이날은 중요한날이기 때문이다. 이날은 웨슬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준 날이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한날이며 웨슬리 부흥운동의 불씨요, 원동력이 되었던 소중한 날이다.

14) 올더스케잇에서의 회심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날이 바로 웨슬리의 옥외설교의 날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잇 집회를 갔다가 회심하였고 야외설교 역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한 야외설교 이었지만 순종의 결실은 이토록 위대하였다.

돌아 줄 사람이 없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웨슬리는 그들에게 “서로서로 손을 잡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주 목요일 저녁 함께 모일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여러분을 도와 드리겠습니다”¹⁵⁾라고 말하게 됨으로 인해 그야말로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감리회라고 불리는 모임, 즉 신도회(Society)가 시작된 것이다. 웨슬리는 신도회들을 방문하여 가르치고 돌보면서 신앙훈련을 시켜 나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기 시작했으나, 함께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점점 나약해져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버렸다는 것이다¹⁶⁾. 함께 모인 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 은혜를 구하더니 순간적으로 하나가되어 모이고 서로 서로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이른바 초대교회, 즉 성령과 사랑이 충만하였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토록 은혜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여지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나. 연합신도회 결성과 연합신도의 세 가지 규칙 제정

웨슬리는 신도회수가 각 지방으로 증가해가는 상황에서 모든 신도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1743년 5월 10일에 연합신도회(The United Society)가 결성하게 되었고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권고의 말씀을 듣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어(Watch over) 서로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기위해 연합 신도회의 세 가지의 주요 규칙들을 제정하기에 이른다.¹⁷⁾

이 세 가지 연합신도회 세칙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웨슬리 운동은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이기 보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다분히 사회 윤리적이고 박애 실천적이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신도회 회원들에게

15) 존웨슬리, 존 웨슬리 총서, 제 10권: *John Wesley 서간집*, 102.

16) Ibid., 103.

17) Thomas Jackson, *The Nature, Design and General Rules of the United Societies*, *The Works of John Wesley*, Vols8, (Grand rapid: Zondervan, 1958-1959), 269.;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255.

더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의 규율을 제시하였는데 소극적으로는 ‘조심하여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남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적극적으로는 ‘열심히 모든 선을 행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특히, 소극적으로 피하여야 할 악에는 당시 고질화되어져 있었던 술 판매금지, 형제간에 소송, 고리대금, 악한 말 등의 문제들이었다는 것에서 매우 실제적 조항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선행의 덕목에는 사람의 영혼은 물론, 사람의 몸을 위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벗은 자에게 입을 것,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도록 하여 철저히 실천적인 덕목들이었다. 독특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가족들의 사업을 돕고, 고용하며 그들의 물건을 팔아주라는 내용들이다. 이것은 당시 그 어떠한 유대관계도 없었던 교인들을 향한 유대와 사랑의 끈을 특히 강조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키라”는 세칙에서 알 수 있듯이 웨슬리는 ‘지속적이고도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웨슬리 자신이 먼저 진정한 메소디스트(Methodist), 즉 규칙주의자로서의 삶을 실천하였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과 생활의 성결을 위하여 구체적인 은총의 수단을 제정하고 제공하였다. 은총의 수단은 웨슬리의 목회 그 자체였고, 교회는 곧 은총의 수단을 실행하는 거룩한 기구자체였던 것이다.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기 시작하였으나 함께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점점 나약해져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¹⁸⁾”는 이 한 구절 안에 연합신도회로 함께 모이는 모임의 중요성을 웨슬리는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다.

초기의 신도회는 국교회의 주일예배에 충실히 참여하고 주일 저녁 시간과 매일 아침 5시에 설교예배로 모였으며, 속회(class)와 밴드(band)는 주간의 평일 저녁 시간에 모였다.¹⁹⁾ 감리교 신도회는 성결한 삶의 규칙에 따라 살면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성결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기위한 목적으로 서로를 돕고 훈련하기 위해서 연합한 신앙공동체였다.

18) 존 웨슬리 총서, 제 10권: John Wesley 서간집, 105.

19)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258.

다. 신도회원의 함께 모임의 목적상실과 영적 파선자들의 발생

그런데 각 지역의 신도회의 회원 수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웨슬리는 많은 수의 신도회를 일일이 자주 방문할 수 없게 되었고, 각 신도회는 그들이 함께 모이는 신령하고 고상한 목적을 상실하고 냉랭해지며 신앙이 빛나가는 경향도 보이기 시작하였다. 신도회 회원들의 영적인 훈련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마침내 신도회 내의 개개인의 문제들을 다루고 돌볼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절실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 속회의 탄생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 그 치료책이 브리스톨의 신도회들을 통해서 발견되었다. 웨슬리는 이미 브리스톨에서 야외 전도를 시작한지 약 한달 만에 니콜라스 신도회와 볼드윈 신도회가 열심히 모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시 중심부의 말 시장터인 홀스페어에 약 100여 평의 땅을 사들였고 같은 해 5월 12일에 기공식을 하고 6월 3일에는 뉴 룸(New Room)의 준공식을 하고 여기서 신도회를 만나기 시작했다. 사실상 최초의 감리교인 집회소가 된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거의 빚으로 건축하였으며 이 부채를 갚지 못하여 웨슬리는 대단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1742년 2월 15일에 이 부채를 갚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었는데 이때 은퇴한 선장 포이(Captain Foy)가 “각 회원은 모든 부채를 다 갚기까지 1주일내 2페니를 내기로 합시다”라고 제안하였고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러나 많은 회원들이 가난해서 그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문한다. 그러자 포이는 “그렇다면 그중 가장 가난한 사람 11명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그들을 매주 방문할 것이고 그들이 내지 못 할 때는 내가 대신 그들이 몫을 내겠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도 포이처럼 11명의 회원을 맡겠다고 나서니 전체회원이 이 의견에 합의하였고 그리하여 신뢰할만한 사람들이 11명을 맡아서 매주 방문하여 현금을 모으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현금 모으는 일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다. 각 회원을 방문하고 만나면서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돌보게 되었으며 특별히 그들의 영적인 형편을 조사하여 웨슬리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회원의 나쁜 행실을 보고하여야 했으며 이것은 웨슬리의 마음에 충격을 가져다주었지만 웨슬리는 그동안 신도회를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던 중에 이들의 보고를 “목회상의 보고”로, 또 이들의 하는 일을 “목회상의 감독”이라 판단하고 이를 신도회를 돌보고 지도하는 목회적 제도로 채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감리교의 최고의 보물인 “속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²⁰⁾

우연이라 하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던 웨슬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비전이었던 것이다. 속회는 1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한 지도자의 돌봄에 맡겨졌다. 이 지도자는 속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1942년 3월 25일자(목) 일기에는 뜻밖의 현장에서 탄생한 속회에 대한 웨슬리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진지하면서도 예민한 몇 사람을 지정하여 함께 회의를 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돌보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내가 고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랬더니 장시간의 이야기 끝에 그들이 의견을 합친 것은 각자를 확실하게 완전히 안다는 것은 어려우니 브리스톨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속(屬)으로 나누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는 길 밖에는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런던에서의 감리교 속회의 기원이다(The Origin of Our Class at London)이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충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다. 이 제도가 말할 수 없이 유용하다고 하는 것은 그 뒤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졌다.²¹⁾

결국 브리스톨의 속회의 탄생은 경제적인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은 물론 영적 돌봄의 원동력이 되었고, 런던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이 속회제도는 모든 신도회로 급속히 적용되고 발전되어 나갔다. 웨슬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오래 찾고 있던 방법이다”²²⁾라고 까지 경탄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신도회 내의 모든 불경한 자들과 악한 행실이 보고되고, 회개치 않을 경우에는 신도회의 명부에서 제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많은 회원들이 속회를 통하여 마음과 생활을 개혁하고 경건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실도 보게 되었다.

20)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260.

21) 존 웨슬리 총서, 제 7권: *John Wesley 일기*, 121.

22) 존 웨슬리 총서, 제 10권: *John Wesley 서간집*, 105.

속회는 1742년 말에 가서 완벽하게 제도화되고 감리교 신도회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위한 핵심기구로 정착되었다. 1742년 4월 런던의 파운더리 신도회(Foundery Society)에 속회가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그 후 감리교 신도회가 각 지역에 조직될 때마다 속회도 함께 설립되었다.²³⁾

3. 속회의 목적

한국교회에서도 소그룹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역, 공동체, 목장, 셀등의 이름으로 소그룹 목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웨슬리 속회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속회는 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잘 돌봄으로 인해 신앙에서 파선하지 않고 함께 예수를 닮아 함께 성화되어지는 성화의 장이 바로 속회였다.

가. 신앙의 파선(破船)방지

존 웨슬리는 부흥운동 초기부터 자신의 회심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확실한 연결제도(connection)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노스 썸머랜드에서 여러 번 설교하고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지만 아무런 연결조직을 만들지 않은 결과 ‘거의 모든 씨가 길가에 떨어졌음’을 알게 되었기에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후속조치를 할 수없는 곳에서는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않기로 결심하였다”²⁴⁾.

더욱이 웨슬리는 “내가 이전보다 더욱 확신하는 바는 은혜를 받은 자들과 협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서 사도처럼 설교하는 것은 어린애를 낳아 살인자에게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라고 까지 하였다.²⁵⁾ 신앙의 파선방지를 위한 최선의 후속조치가 바로 속회제도였던 것이다.

23)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261.

24) Nehemiah Curnock and Robert Culley (eds.), *John Wesley,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3vols (London, 1916); 김진두, *존웨슬리의 생애*, 265.

25) Ibid., 26.; 김영선, *존웨슬리 와 감리교신학*, 318.

나. ‘성화의 도구’로서의 속회-‘성화훈련의 장’(場)인 속회

속회의 근본목적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신앙이 파선(破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 또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랑의 선행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속회들이 속회 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었다. 속회 전문가인 왓슨(Watson)은 속회의 목적을 ‘속회와 성숙한 제자직(뉘, discipleship)’의 견지에서 접근하였는바, 존 웨슬리는 매주 모이는 속회를 통하여 성숙한 제자직,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가 말한 성숙한 제자직이란 순종이 습관처럼 되어 의지가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에 저항하고자하는 경향을 잃어버리게 된 상태에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²⁶⁾ 하였다. 본 연구자는 왓슨의 속회의 목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자칫 추상적일수도 있는 성화의 개념을 구체화시켰기 때문이다. 순종이 습관처럼 되어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 직이라는 개념은 참으로 소중한 개념이라 믿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제자도란 적극적인 순종을 전제하는 것이다.

(1) 웨슬리 성화개념

성화는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다. 웨슬리의 신학은 성화에서 시작하여 성화로 끝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성화는 웨슬리 신학의 중심이다. 고로 웨슬리의 신학을 성화신학이라고 한다.²⁷⁾

웨슬리는 “회개가 신앙의 현관(porch)에 들어서는 것이라면 믿음은 신앙의 문(door)을 여는 것과 같고 성결(holiness)은 신앙의 안방에 들어와 사는 신앙의 생활 자체이다.”²⁸⁾라고 하였듯이 웨슬리에게 있어 성화는 신앙의 본질이요, 궁극이다.

그리고 이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성화를 포함하는 성화로서 웨슬리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것이 가능하다

26)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17.

27)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07.

28) John Telford Epworth, *The Letter of John Wesley 8vols* (Press London, 1931), 267.

고 확신하였기에 또한 이를 향하여 매진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는 웨슬리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해를 가장 많이 받기도 한 교리이기도 하였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성품과 사랑에 역행하는 것이 영혼 속에 잔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순수한 사랑으로 지배되는 것을 의미 한다.”²⁹⁾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한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한 자’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처럼 걸어가는 자’,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자, ‘육신과 영혼의 모든 부정에서 깨끗해진’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없고’ 따라서 ‘범죄 하지 않은’자이다.”³⁰⁾ 김진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완전성화’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완전교리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의도의 순수성’이요, ‘제한적 완전’이요, ‘하나님형상의 회복이요 그리스도 모방이요(imitation of christ)’,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Holiness of heart and life)이며’, ‘완전한 사랑(perfect love)’이며 또한 ‘완전한 헌신(perfect dedication)’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요, ‘성결은 행복(Holiness is Happiness)이며’, ‘두번째 복(The Second Blessing) 이고’, ‘성경적인 교리이며 주님의 교리이며’, ‘완전성화는 영화(glorification)를 소망한다’”고 하였다.³¹⁾

한편 웨슬리에게 성화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된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함을 뜻하는 “성결”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기는 것을 뜻하는 “사랑”이다. 즉 성화의 개념을 “성결”과 “사랑”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성화를 죄로부터의 “성결”로 보는 것은 성화의 소극적 입장이고 적극적 입장에서 성화는 “완전한 사랑”을 뜻한다.³²⁾ 웨슬리는 성화의 적극적 의미를 사랑에 두었다. 이 사랑의 삶, 즉 성화의 삶을 산 사람이었으며 사랑의 훈련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29) John Wesley,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계준 역 (서울: 전망사, 1994), 52.

30) Ibid., 34.

31) 김진두,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2005), 210-243.

32)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08.

(2) 성화의 통로(방법)

성화는 “경건의 행위”(work of piety, inner sanctification)와 “사랑과 자비의 행위(work of mercy, social sanctification)”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성화의 통로이며, 성화를 얻는 방편이다. 이 두 가지 통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화를 얻을 수 없다.

여기에서 경건의 행위란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충실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 성경탐구, 가족예배와 공중예배, 성례전, 금식, 그리고 특별히 속회와 반회 등, 은총의 수단을 의미한다.³³⁾ 성화는 이러한 경건의 행위(은총의 수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신자의 성화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끊임없는 자기부정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키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⁴⁾

하지만 웨슬리는 성화를 얻기 위해서는 경건의 행위와 동시에 자비의 행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완전을 얻는 방법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오해를 경계하였다. “메소디스트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도 얻는 성화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힘을 다하여 주장한다.”³⁵⁾

이어서 그는 성결을 얻는데 있어서 ‘생략하는 죄’를 주의하라고 하면서, 신자의 성화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서든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선을 행하도록 선행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³⁶⁾

웨슬리는 1745년 총회에서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든 신자들이 성화의 은사를 얻는데 필수적인 방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다.³⁷⁾ 그러므로 결국 웨슬리 성화 완전 교리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perfect love of God and neighbor)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이 완전교리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명쾌한 의미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화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며, 완전한

33) Thomas Jackson and John Mason (eds.), *The Works of John Wesley 8vols* (London, 1831), 322.

34) Thomas Jackson, *The Works of John Wesley 7vols*, 60.

35) Thomas Jackson, *The Works of John Wesley 11vols*, 383.

36) Ibid., 432.

37) Thomas Jackson, *The Works of John Wesley 8vols*, 287.

성화는 완전한 사랑이다. 정상적인 진실한 경우라면 신자는 믿음 없이 성화될 수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이 성화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한 행복이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라(Go on to perfection)고 촉구하였다.³⁸⁾

아울러 웨슬리는 신자의 성화를 이루는 데는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경은 고독한 종교(solitary religion)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기독교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social religion)이다. 이것을 고독한 종교로 돌려놓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인 종교밖에 다른 종교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사회적인 성결(social holiness)밖에 다른 성결을 알지 못한다.”³⁹⁾

그는 신자가 신앙의 공동체(성도의 교제)에서 떠나는 것은 곧 칭의와 성화의 은사를 다 포기하는 것이며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보존하는 길은 지속적으로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이러한 신앙훈련 모임 안에서 칭의, 신생, 성령의 증거, 구원의 확증, 성화, 완전성화를 점진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그리고 도약적으로 경험하였으며 또 경험한 것을 서로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나누었다.⁴⁰⁾

(3) 성화훈련의 최고의 장(場)으로의 속회

그리하여 웨슬리는 신자의 완전성화를 위한 두 가지 통로 곧 “경건의 행위(work of piety, inner sanctification-개인적 성화)”와 “사랑의 행위(work of mercy, social sanctification-사회적 성화)”를 속회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실제로 구현하고자 몸부림쳤다.⁴¹⁾ 결국, 성화의 도구로서 웨슬리 속회가 지향하였던 바로 그것

38) 김진두,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 268.

39) Thomas Jackson, *The Works of John Wesley 5vols*, 296.

40) 김진두,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 259.

41) 물론 성화완전을 위하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웨슬리가 만든 조직들은 참으로 다양하였다. 그것은 바로 속회, 밴드, 선발신도회, 참회자 반등이었다. 그럼에도 가장 중심은 역시 속회였다.

은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적 성화, 사회적 성화”였던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네 속회가 결국 지향해야할 방향인 것이다. 속회를 통하여 웨슬리가 이루고자 하였던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성화의 내용을 도표화시키면 아래와 같다.

구분	실천사항	방 법 적 도구
<p>개인적 성화 (work of piety, inner sanctification)</p>	<p>웨슬리는 개인적인 성화를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말씀, 성만찬, 금식, 그리스도인의 교제 등의 은총의 수단 (means of grace)을 철저히 훈련시켰고 연합신도회 수칙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였다</p>	<p>연합신도회 수칙 (3부분)</p>
<p>공동체적 성화 (work of piety, inner sanctification)</p>	<p>웨슬리는 개인적 성화와 더불어 성화훈련의 장인 속회에서 공동체의 성화를 추구하였다. 웨슬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기억해야할 주요한 개념이 있는데 "직고" (accountability-상호책임의식) 라는 것이다. “직고”(直告)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한다(롬14:12, 약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뜻이지만 실제 속회 안에서 이루어진 직고는 단순한 고백의 단계를 넘어 상호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책임지며 돌보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책임일까? 1744년 감리회 제 1차 연회 회의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문8: 목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니 이를 마땅히 책임져야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책임져야합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웨슬리에게 있어서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은 위임받은 영혼을 책임을 지고 돌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⁴²⁾ 실제로 속회원들은 직고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속장은 직고를 통해 영적상태를 고백한 회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충고와 권면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워나갔다.</p>	<p>- 연합신도회 수칙의 직고 - 개인 삶 속에 대한 직고</p>

	그리고 속도원들은 이러한 신뢰의 기반 하에 “저 사람의 영혼과 몸은 내가 책임진다”는 상호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돌보았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성화 (work of mercy, social sanctification)	웨슬리는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를 넘어서 사회적 성화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그의 설교 “성서적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개인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 “타인에게 퍼져가는 기독교”, “온 세계로 퍼지는 기독교”로 구분하였다. 기독교가 개인의 영혼 뿐 아니라 사회구원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는 웨슬리 자신이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였는바 철저한 헌신적 나눔의 삶을 살았다. 그는 최소한의 생활경비를 제외한 모든 물질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였고 그가 죽을 때 남은 재산은 몇 푼의 동전과 은수저뿐이었다고 한다. 속회에서도 사회적인 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바 매주일 1페니를 거두어들여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아원, 교도소등 소외된 곳을 찾아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였다.	1 페니 씩 모금

위 도표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즉, 속회를 통하여 웨슬리가 달성하고자 하였던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서 개인적 성화, 공동체적 성화, 사회적 성화의 영역이다. 먼저, 개인적 성화라고 함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토록 독려하는 것으로서 은총의 수단⁴³⁾을 철저히 훈련시켰음은 물론, 연합신도회 수칙⁴⁴⁾ 세 가지를 모일

42) 한상호, *직고를 통한 소그룹 부흥*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86-87. 한상호는 웨슬리 속회의 핵심을 직고라고 이해하고서 직고에 담긴 개념들을 히10:24-25절을 중심으로 풀어가 고 있으며, 친구약성경에 나타난 성서적 모델들을 잘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주안 감리교회에 직고 모형 도입을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켰다.

43) 웨슬리가 성화완전을 이해 제정해놓은 은혜의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일정한 태도와 실천에 관한 것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일, 자기부정, 매일 십자가 짐을 포함한다. (2) “제정된 방편”-이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명령하고 교회 전통으로 계승된 것으로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행하는 것들로서 기도, 성경탐구, 주의 만찬, 금식, 성도의 교제(모든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3) “상황적 방편”-시대와 문화와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

때마다 확인 점검하였다는 것이다. 속회에서는 ‘내적인 영적성장에 대한 직고’ 뿐만이 아니라 ‘총칙에 대한 직고’를 행하였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 성화라고 함은 속회로 모이면서 ‘직고’를 행함으로 상호책임 의식을 가지고 돌보았다는 것이다. 직고는 단순한 고백의 단계를 넘어 상호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책임지며 돌보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⁴⁵⁾. 고백하기 어려운 비밀조차도 함께 나눔으로써 마땅히 비밀은 서로 지켜주었음은 물론 서로 간에 몸과 영혼을 책임지는 공동체적 성화를 목표로하였던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적 성화라고 함은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서적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개인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 “타인에게 퍼져가는 기독교”, “온 세계로 퍼지는 기독교”로 구분하였다.⁴⁶⁾ 타인과 온 세계로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본인이 먼저 실천하였고 그토록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메소디스트들은 당시 영국사회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믿을만하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써 세인들에게 인정받는 자들로 변화 성숙되어질 수 있었다.

4. 속회의 순서 및 방법

실제로 초기 감리교 속회의 진행된 순서와 내용에 관해서는 초기 감리교 신도회와 웨슬리 사후 감리교회의 경험과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1807년에 발간된 조셉 나이팅게일의 “감리회의 모습”에서 “어느 속회 모임이야기”가 잘 묘사되어있다.⁴⁷⁾ 기록에 의하면 속회는 일반적으로 개인집에서 열리며 저녁 8시에 시작되었다.

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제정된 방편”에 추가되는 것들. 그러나 ‘제정된 방편’과 같은 목적을 갖는 것이며 신자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수단들이다. 예를 들면, 웨슬리의 여러 소그룹들, 특히 연합신도회 수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은 인간행위의 목적에 근거하여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기도 하는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건의 행위”(work of piety, inner sanctification-개인적 성화)와 이웃의 몸과 영혼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자비의 행위”(work of mercy, social sanctification-사회적 성화)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를 세 부류로 좀 더 분류해본 것이다.

44) 부록1에 나와 있는 연합신도회 세 가지 수칙을 속회 때마다 확인 점검하였다.

45) 박동찬, *살아있는 속회만들기* (서울: CMI, 2015), 42.

46) Ibid., 43.

47)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60-163. 웨슬리 당시의 어느 속회 모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본연구자의 말로 요약 정리하였다.

가. 속장은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고 속장이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경험을 속회원들에게 이야기한다. 자신의 기쁨과 슬픔, 그의 희망과 두려움, 세상과 육과 악마의 갈등, 외적인 투쟁과 내적인 두려움, 지옥에 대한 그의 두려움, 또는 천국에 대한 희망, 전체 교회의 번영을 위한 그의 경건한 갈망과 은밀한 기도, 그 특수한 속에 속한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한 경건한 기도들이 그것이다.

나. 속장은 자신이 경험하였던 연약함, 시험등도 모두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며 끝맺을 맺는다.

다. 이렇게 열변을 토한 후에 그 속장은 참석한 모든 사람 각각의 영혼상태에 대하여 묻는다. “자! 자녀여, 또는 형제요, 저녁에 당신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난 모임이후 당신은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당신이 당한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었는지, 당신은 그 유혹과 시험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당신이 비밀로 숨기고 싶어 하는 일은 없는지”⁴⁸⁾

라. 그러면 그 속도는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속장에게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리고 함께 통회 자복, 통성기도, 축복기도를 한 후 파한다.

그는 종종 이야기 되어져 왔듯이 특별한 고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주간 동안 그의 마음에 느꼈던 것의 전체적인 요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필요로 할 만한 충고나 교정이나 견책이나 위로가 제시된다. 그리고 속장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며 계속 그 과정을 되풀이하여, 결국 모든 사람은 그때에 각각 합당한 양식을 얻게 된다.

마. 이후에 속장이나 속장이 제안하라고 기꺼이 지명한 어떤 사람이 찬송가 한 두절을 제시하며,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일어서서 기도로 들어간다. 기도할 때에는 감사와 탄원, 즉 간구가 쏟아져 나오는데 누구든지 자유로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어떤 낯선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 기도모임보다 더 자유로운 마음의 토로의 분출구가 마련되며, 영혼의 부드러운 용해가 흘러날 기회가 마련된다.

바. 기도 후에 축복기도로 모임을 끝맺은 속장은 참석한 각속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후원하기 위해서 바치고 싶

48) 이 질문들은 사실 밴드에서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다. 아마도 당시에 속회와 밴드(Band)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하였기 때문에 서로 혼용되어져 사용되었을 것이다.

어 하는 것을 모은다. 일반적인 금액은 1페니이다. 그리고 이러한 몇 가지 금액들을 속회보고서에 기입한다.

길버트 머레이는 19세기 초기 감리교회의 일반적인 속회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⁴⁹⁾

7:30	개회찬송-유쾌한 성격의 찬송
7:35	짧은 개회기도,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올림
7:40	찬송- 3절이 넘지 않을 것
7:45	짧고 적합한 성경봉독
7:55	찬송,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관한 것-3절이 넘지 않는 것
8:00	속장이 먼저 시작하여 네 사람의 간증과 속장의 응답, 짧은 찬송
8:10	네 사람의 간증과 응답, 짧은 찬송
8:20	네 사람의 간증과 응답
8:30	속장의 전체적인 소견과 속도들을 위한 기도
8:35	4절짜리 찬송, 출석확인
8:40	속도들이 드리는 두 번의 짧은 기도
8:45	속장의 축복기도

결국 이들 기록들에서 나타나는 속회의 두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속회의 동력이 분명히 직고하는 동력이었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로는 속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⁵⁰⁾ 먼저, 속장이 자신의 한 주간 그의 마음에 경험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요점을 이야기하며 직고, 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장이 각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충고나 권면이나 교정이나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속도원의 고백과 직고를 유도하게 하려면 속장이 먼저 속도원들에게 솔직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자신의 열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속도원들 모두가 정직한 직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속장이 굳이 직고하지 않는데 속도원들이 직고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 역시 매주 수요일예배 후에 열리는 속회공과 준비시간에 반드시 속장이 먼저 마음을 열어 속회공과의 질문에 대해 자신을 열어보여야만 속도원들도 마음 문을 열게 된다

49)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266.

50)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63-164.

는 사실을 매번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그리고 웨슬리 속회의 두 번째 특성은 속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속장이 중심이 되어 속장 자신이 먼저 직고를 하고 직고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속회의 사활은 속장에게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속장은 너무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속장

상기한바와 같이 웨슬리 속회에서의 중심축은 속장이다. 웨슬리는 속회의 사활이 속장에 의해 좌우됨을 알았기 때문에 속장의 선정과 임명에, 또한 속장의 직무와 역할에, 그리고 속장에 대한 감독과, 속회 운영방식에 매우 신중하였고 또한 엄격하였다.

가. 속장의 선정과 임명

속회와 밴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밴드는 자체 내에서 지도자를 선출하였던 반면, 속회는 임명된 지도자들을(속장)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속장을 임명하거나 면직하는 일은 전적으로 웨슬리 자신이나 그의 동역자들인 평신도 설교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웨슬리는 1790년 존 메이슨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내가 살아있는 한, 사람들은 감리교인들 사이에서 관리집사들이나 속장들을 선정하는 일에 가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⁵¹⁾ 그만큼 웨슬리에게 있어서 속장의 선정과 임명은 중요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속장으로서는 열심히 있고 칭찬 듣는 사람, 적극적인 선행을 하는 사람,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임명하였다.

나. 속장의 직무와 역할

웨슬리 총칙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속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그의 속(屬)에 속한 각 사람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 보고, 그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며, 필요한 경우에 충고하고 견책하고, 위로하거나 권고하며, 가난한 자들을

51)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64.

구제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기꺼이 내고자 하는 것을 받는다.

2) 일주일에 한 번씩 신도회의 성직자와 관리집사를 만나서 성직자에게는 병든 자,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견책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보고하고, 관리집사에게는 그들이 지난 주간에 속회에서 걷은 것을 납부하고 각 사람이 헌납한 것에 대한 기록을 그에게 보여준다.⁵²⁾

속장의 위치는 “부목회자”, “위임받지 않은 성직자”, 그리고 “영적 경찰관” 등과 같이 다양하게 서술되어져 왔다. 웨슬리가 속장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규율의 분별력과 영적 분별력을 고루 갖추는 것이었고, 그럼으로써 속안에서의 교제가 제자 됨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지위에 임명되는 것은 한 신도회 안에서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영적인 통찰력 못지않게 목회적, 행정적 지도력을 위한 자질이 요청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속장은 웨슬리가 직접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임명하였고 웨슬리에 의해 그 신도회의 성직자로 임명된 설교자와 매주 만나서 그들의 속도들에 대하여 “보고”하고 “충고”와 “지시”를 받는다.⁵³⁾

웨슬리충척에 명시되어져있듯이 속장은 곧 목자와도 같은 역할이기에 언제라도 속도원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하고 최소한일주일에 한번은 만나 저들의 내적외적상황에 민감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찰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잘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웨슬리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세력들과 신비주의자들이 있었기에 그럴 때마다 웨슬리는 몇 번이라도 가서 듣고 분별하여 경고하고 충고하며 견책토록 하였고 이것은 나중에 속장 훈련에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⁵⁴⁾ 그런 점에서 이단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직도 속회만한 것이 없었다. 속장들은 작은 목자로서 양들을 언제나 돌보고 살펴서 그 내용을 자세히 교구 목사에게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영적생활이나 상황에 누구보다 민감했고 빨랐다. 1849년에 작성된 “웨슬리의 기치와 부흥기록”에 의하면 속장의 자격과 의무⁵⁵⁾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언제 보아도 자극과 경종을 울리게 하는 참으로 좋은 지침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자는 너무도

52)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64.

53) Ibid., 169

54)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81.

55) 부록 2참조.

이 내용이 좋아서 2016년 속회지도자 세미나에 본 연구자가 첫 번째로 강의한 “속회란 무엇인가”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 함께 읽어가면서 묵상하게 하였다. 과연 많은 속장들이 이 글에서 큰 자극을 받았고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전체의 내용은 부록에 넣기로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리자면 속장은 우선 스스로가 “분명하고 건전한 종교적 경험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의 양자 삼으심에 대한 성령의 지속적인 증거, 죄를 이기는 지속적인 능력, 은총 안에서의 꾸준한 성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성서를 잘 알고 있으며 교리적 진리, 그리스도인의 경험, 도덕적, 종교적 의무들에 대하여 선명한 견해를 지닌 신학전문가가 되기를 목표로 삼아야 했고 가르치기 위해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속도원들 간의 차이를 식별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세심한 관찰에 의하여 그들의 특수한 성품이나 그들의 경험 특수성, 그들이 극심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당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들을 분별하고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⁵⁶⁾ 그의 속도들이 세상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⁵⁷⁾했다.

다. 속장들에 대한 감독 및 엄격한 속회 운영방법

웨슬리는 속장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도록 평신도 설교자들을 통해 매주 1회, 화요일 밤마다 속장 교육을 실시했고, 이때 속장들은 속회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속회원들의 발전에 대해 보고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연 4회, 매 분기마다 설교자가 속장과 속회원들을 시험하고 감독함으로써, 속장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웨슬리는 지역 속회들을 방문할 때, 때때로 매우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⁵⁸⁾. 그리고 감리교 모임의 예배와 교제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은 ‘만나기를 멈춘 자들’이라 하여 제명해 버렸다. 세 번 이상 무단결석한 회원들을 제명해버렸

56) 웨슬리는 속회모임(질의와 응답의 문답체제로 되어져있는)이 반복적이고 관에 박은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형식절차로 전락되는 것을 무척이나 염려하였고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속장들로 하여금 “우리는 항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있으며, 이전의 우리보다 매일 더 지혜로워 지기를 원하며,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속장의 과제는 각 사람에게 제시되는 조언과 지시를 다양하게 하여,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상호간의 격려를 제시하여야한다”고 하였다

57)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70-172.

58) 김흥기, *감리교회사*, 256.

다. 그는 1741년 브리스톨에서 모인 모임에서 40명이 제명되었다. 1741년 게이트 헤드를 방문하여 회원들을 심사하였을 때 800명에서 400명으로 교인들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철저한 심사와 영성훈련으로 절반 정도로 회원이 줄어들었으나 다음해에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1751년 화이트 헤븐에서는 근신해야 할 회원을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 약 240명의 속도들이 한 번도 결석하는 일이 없었다. 한 회원이 단 한번 결석하였을 뿐이었다. 이러한 심사의 기준, 영적 분별의 방법은 간단하였다. 웨슬리는 속장들에게 각 회원의 영적 상태를 물을 때 속회와 신도회의 출석여부, 술 취한 적이 없었는지, 가정의 불화가 없었는지, 구원을 열망하는지 지극히 간단한 것들을 물었다⁵⁹⁾.

웨슬리의 일기에는 이러한 방문들에 대한 언급들이 무수히 나온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속장들은 차츰 속회원들의 영혼을 돌보는 평신도 목회자로 성장해갔다. 위에서 밝힌 “웨슬리 총칙”과 1849년에 작성된 “웨슬리의 기치와 부흥기록”, 그리고 끊임없는 속장교육 및 속장보고서 제출, 지속적인 속장의 시험들과 엄격한 속회 운영 방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웨슬리는 속장이야말로 속도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그리고 속회의 사활을 좌우하는 심장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보더라도 부흥하는 속회, 살아있는 속회의 중심에는 살아있는 속장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갈수록 쇠퇴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속회의 중심에도 속장이 있다. 속된 말로 양을 다 잡아먹는 속장들이 있는 반면, 계속해서 양을 낳고 양을 건강하고 풍성토록 만드는 속장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속회의 사활은 속장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이다.

이처럼, 최초로 재정적인 필요 때문에 시작된 속회는 날이 갈수록 감리교 영성훈련의 핵심기구로 발전해 갔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 권면과 격려를 행하는 상호책임(accountability)을 통해 감리교 신도 회원들은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평신도를 속장으로 세워 속회원들을 돌보게 한 것은 평신도 지도력의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59)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74-175.

제 3 장

웨슬리 속회의 역사신학적 배경

본 장에서는 웨슬리 속회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역사신학적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그것은 17-18세기에 일어난 ‘독일의 경건주의’와 ‘영국의 종교신도회’가 바로 그것인데 이들이 웨슬리에게 끼친 영향은 가히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의 ‘교회안의 교회’의 개념은 감리교 부흥운동은 물론 웨슬리 속회의 개념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웨슬리는 모라비안들을 통해 자신의 회심은 물론 목회사역에서와 소그룹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시절부터 규칙주의자(Methodist)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훈련해왔던 소그룹들은 영국신도회의 직접적 산물이다. 이제 본장에서 역사신학적 배경들을 고찰함으로써 웨슬리 속회의 뿌리를 이해함은 물론 웨슬리가 얼마나 역사와 전통에 충실하면서 또한 창조적 통합 능력을 지닌 가진 목회자요, 신학자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 1 절 17-18세기에 일어난 독일의 경건주의

속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로 불려왔다. “교회안의 작은 교회로서”서의 속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7-18세기에 독일에서 일어난,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로부터 시작된 경건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속회는 교회의 갱신과 본질을 추구하였던 경건주의의 흐름 속에서 경건주의의 직접적 영향 아래⁶⁰⁾ 생겼기 때문이다.⁶¹⁾ 물론 슈페너 이전에도 소그룹 형태의 모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17세기에 와서, 제도적 교회의 틀 안에서 소규모로 모임으로써, 제도적 교회를 보다 굳게 세우고 새롭게 갱신하자는 ‘교회안의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이 현대 소그룹운동의 원형이 된

60) 물론 웨슬리 부흥운동과 소그룹 속회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실행은 진젠도르프가 이끄는 헤른후트 공동체의 영향이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젠도르프 역시 독일 경건주의의 흐름인 ‘슈페너- 프랑케의 흐름’ 속에 있는 인물이다.

61) 박동찬,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21.

것이다.⁶²⁾

그렇다면 ‘경건주의’는 무엇일까? 경건주의는 신교와 구교간에 일어났던 30년 전쟁(1618-1648) 이후 회복의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전쟁의 화마가 활κει고 간 자리가 늘 그랬듯 격전지였던 17세기 후반의 독일 생활은 참혹하여 대부분의 경작지는 황무지로 변했고 전염병과 기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도덕적인 타락도 팽배하였다. 더욱이 이토록 처참한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회복에 힘써야 하는 루터교 정통주의는 신학적인 사변에만 관심을 두고 교리 논쟁과 사변적인 설교,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중하였다. 이와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갱신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다.⁶³⁾ 경건주의(Pietism)는 17세기 말과 18세기 전반기에 독일교회에서 일어난 종교적 대각성을 의미한다. 스콜라적 루터교의 경향에서 벗어나 기독교적 체험과 감정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평신도에게 기독교적 삶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상에 대한 엄격한 금욕 자세를 강조하였다.

1. 슈페너(Philip Jakob Spener, 1635-1705)와 경건 소모임

경건주의의 시발점은 필립 야곱 슈페너가 1675년 ‘경건한 소원’(Pia Desideria)을 출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슈페너는 30년 전쟁 이후에 독일 루터교회에 만연해 있던 도덕적 방종의 분위기속에서 ‘경건한 자들의 공동체’(Collegium Pietatis), 즉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은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비제도적인 경건한 소그룹 운동을 일으키자는 운동이었다.⁶⁴⁾

이 운동은 1670년 8월부터 슈페너의 집에서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에 모임으로써 출발하였다.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였고, 전 주일의 설교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경건서적을 읽었다. 그러다가 1674년부터 1675년 겨울부터는 오직 성경읽기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이때부터 개개인간에 경건하고 친근한 우정이 형성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더 많이 알게 하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62) 이동호, “17-18세기 교회안의 작은교회 형성사연구: 슈페너, 진젠도르프, 웨슬리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7, 3-4.

63) 박동찬,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22.

64) Justo Gonzalez, *기독교 사상사 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393-394.

그들 속에 사랑의 불이 점점 더 뜨겁게 불붙게 되었다. 슈페너 교회관의 핵심이며 교회 갱신의 방법으로 제안된 ‘교회안의 작은 교회’는 경건한 모임을 통하여 참된 기독교를 회복하자는 원리인 것이다. 슈페너는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다. 즉 포도나무 가지가 잘 성장하려면 나무에 견고하게 접붙임 되어 있어야 하듯이,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받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교회 갱신을 위해 요청되는 ‘경건의 모임’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변화’는 이후 모든 경건주의의 모토가 되었다. 즉 개인의 변화(better man)는 교회의 갱신(better church)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주일예배 후 행해지는 당시의 경향, 즉 술 취함과 카드놀이, 사교춤 대신에 신앙서적을 읽고 대화하거나 행해진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은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신앙성장을 도울 수 있는 유익한길이라 여겨졌다. 이런 의미에서 슈페너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래 처음으로 만인 제사장직의 교회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신앙인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슈페너는 그의 저서인 ‘경건한 소원’에서 교회개혁을 위한 6가지 방안⁶⁶⁾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두 번째가 ‘영적 제사장직’의 실천이다. 그에게 있어 영적 제사장 직이라 함은 세례를 통한 거듭남과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에 바탕을 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는 참으로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교회안의 작은 교회’라는 말을 교회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었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우고자하는

65) K. James Stein and Phillip Jakob Spener, *Pietist Patriarch* (Chicago: Covenant Press, 1986), 227.;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29.

66) 슈페너의 경건한 소원을 세상에 출한하면서 더욱 본격적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는 이 책에서 여섯 가지 구체적 교회개혁 방법론을 제시하였는데 아래의 여섯 가지이다.
1. 목사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작은 모임에서 성서 전체를 열심히 읽는 것. 2.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경건한 생활을 실천하는 제사장임을 깨닫는 것. 3. 단순한 교리지식에서부터 산 신앙고백으로써의 경건한 훈련으로 집중할 것을 권면하는 것. 4. 신학적 논쟁을 줄이고, 회개와 경건생활을 통해 참 교리를 확립하는 것. 5. 신학교육의 개혁-독일신학, 타울러의 설교, 존 아른트와 토마스 아캠퍼스의 저술에 커리큘럼의 개혁 뿐 아니라 크리스천 생활과 경건을 강조하는 제도의 개혁까지 포함하는-을 강조하는 것. 6. 수사학적 설교가 아닌 덕성을 함양시키고 영성을 함양시키는 설교로 돌아가는 것 등이다 김홍기, *평신도를 위한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예루살렘: 1992), 200.

마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제도적인 교회를 갱신하고자하는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다. 바로 이러한 열정이 제도적 틀 안에서 작은 ‘경건모임’(Collegium Pietatis)을 낳았고 그로 하여금 ‘교회안의 작은 교회’의 첫 주창자가 되게 했던 것이다. 슈페너는 1675년 7월 23일, 카르프초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으며, 같은 해 9월 8일에 쓴 교회 개혁을 위한 책 “Pia Desideria”(경건한 소원) 서문에서 이 사상이야말로 그의 교회 갱신론의 심장임을 분명히 밝혔고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그의 나이 66세 때 쓴 1701년 1월 25일자 편지에서 그는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를 모으는 것’을 통하여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본을 통해 그들 스스로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서로를 더 잘 알고 배우면서 하나 됨으로써 교회를 갱신하는 방법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는 자신의 중요한 목회원리⁶⁷⁾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삶과 목회를 통하여 구현해내었던 진정한 경건주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2.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와 할레대학(Halle)

슈페너가 경건주의 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면 그의 뒤를 이은 프랑케는 경건주의를 이론화하고 조직적으로 만들어 전 독일에 확장시켰다.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은 그의 후계자라 할 수 있는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에 의해 꽃을 피웠다⁶⁸⁾. 라이프치히 대학의 강사였던 프랑케는 1686년, 라이프치히의 젊은 신학 석사들로 이루어진 성서연구 모임에 참여하면서 슈페너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슈페너의 영향을 받은 프랑케는 1694년 할레대학을 설립하여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센터가 되게 하였는데 그의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 빛과 진가를 발휘케 한 것이었다. 프랑케는 할레(Halle)를 독일의 예루살렘으로 변모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빈민학교와 고아원의 창설이다. 1695년 부활절에 연구실 근처에 ‘빈민학교’를 개교한 이후 서민 자녀들의 중등교육을 위한 독일어 학교, 귀족 자녀들을 위한 초등학교, 대학 수험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라틴어 학교 등 교육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고 1695년 가을, 4명

67) P.J. Spener. Letzte, *Theologische Bedencken, I-III Halle a.S.1711* (Spenerschriften, Bd. XV. Teilbde. I und 2, Nachdruck, 1987), 3, 588.; 이동호, “17-18세기 교회안의 작은 교회 형성사연구”, 26.

68) 박동찬,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23.

의 고아를 위한 고아원도 창설하였다. 더 나아가 가난한 과부들을 위한 보금자리도 마련하였다. 이후 서점, 화학실험실, 도서관, 자연과학박물관, 세탁소, 농장, 제과점, 양조장, 병원 등을 설립하였다.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한 존 웨슬리는 3개월간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할레대학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을 보고 그 규모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넉넉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놀랐으며 프랑케 교수를 만나 매우 기뻐고 그는 웨슬리에게 최상의 친절로 대해 주었다고 한다.⁶⁹⁾ 특히 할레에서 본 것들은 웨슬리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졌으며 후에 그가 뉴캐슬과 브리스톨과 런던에 고아원과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슈페너의 교회안의 작은 교회인 경건소모임은 그 자체로는 생명력을 유지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정신만은 프랑케를 통해 사회적인 영역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이다.⁷⁰⁾ 그리하여 모이어(Moyer)는 프랑케의 활동이 독일교회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었고 기독교로 하여금 생명이 없는 한가의 전통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실체의 종교가 되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⁷¹⁾

3. 모라비안의 진젠도르프 백작(Nichola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과 헤른후트 형제단(Herrnhurter Brudergemeine)

모라비안의 뿌리는 중세후기, 기독교의 급진적인 운동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대교회로 되돌아감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였던 존 후스(John Hus)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존 후스는 기독교인들의 이상으로 그리스도가 실천한 청빈을 제시하였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임을 증거 하였고 성직자의 부도덕성을 지적하였으며 선택된 자들의 예정된 교회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교황청과의 대립을 가져왔으며 급기야 프라하에서 추방되지만 후스는 보헤미아의 국가적 영웅이 되었다. 한마디로 그의 목적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 후 교황청과 극단적인 대결을 벌이던 후스는 콘스탄스에서 열린 종교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체포되어 1415년 화형을 당했다.⁷²⁾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헤미아는

69)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156.

70) 박동찬,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24.

71) Elgin S. Moyer, *인물중심의 교회사*, 광안전, 심재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400.;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29.

72) Justo Gonzalez,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209-212.

교황청과 결별하였고 몇 번의 전쟁에서 교황청이 패배한 후 보헤미아와 협상을 벌이게 되었으며, 결국 일정 정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보헤미아의 국가교회가 인정될 수 있었다.⁷³⁾ 그러나 모든 보헤미안들이 이러한 협상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나 유니타스 프라트룸(Unitas Fratrum), 즉 형제연맹(Union of Brethren)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그 후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당시 프로테스탄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거의 루터파에 가입할 뻔 하였다가 로마 가톨릭주의를 강력히 지지하였던 합스부르크(Habsburg) 출신 황제들이 이들을 박해함으로써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유니타스 프라트룸 역시 거의 종식될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라비안의 부흥은 그들과 니콜라스 진젠도르프(Nicholas Ludwig Von Zinzendorf) 백작이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모라비아니즘(Moravianism)의 진정한 창시자는 니콜라스 진젠도르프이다. 그는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 슈페너와 프랑케의 영향아래서 성장하였다. 1722년 박해를 겪고 있던 보헤미아의 형제회가 그의 초청을 받고서 삭소니에 있는 그의 영지 내에 정착하게 되었다. 맨 처음에 진젠도르프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진지한 신앙심과 천부적인 지도자적 자질이 결합해서 급기야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들 보헤미아 형제회는 본래적인 출신지를 따라서 ‘모라비안’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진젠도르프의 영토 내에 있는 헤른후트(Hernhut) 마을에 그들의 정착촌이 성립됨으로 인해 ‘헤른후트파’(Hernhutens)라고도 불려 지게 되었다.⁷⁴⁾ 결국 진젠도르프가 헤른후트에 모라비안 단체를 세운 것이 되었는데 이 단체의 목적은 분리된 교회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교회의 갱신을 추구하는 역동적인 선교세력이 되는 것이었다.⁷⁵⁾ 사실, 엄밀히 말해 헤른후트 형제단은 ‘교회안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제단 자체가 본래 제도적 ‘교회’인 루터교회 밖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던 데다가 끝까지 루터교회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별개의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헤른후트 형제단은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제도적 ‘교회’(ecclesia)의 승인 하에 교회와 공존하게 된 ‘작은 교회’(ecclesiola)였다. 실제로 헤른후트 형제단의 설립과 성장의 역사는 이질적인 성격을 띤 소규모 공동체가 거대

73) Justo Gonzalez,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213.

74) Justo Gonzalez, *기독교사상사3*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398.

75)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41.

한 제도적 교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 교회(ecclesia)와 소규모공동체(ecclesiola)라고 하는 관계에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준다.⁷⁶⁾

진젠도르프는 교회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회중’이자 ‘상처받은 양들의 작은 무리’로 보았다. 전자는 보편적인 교회로, 후자는 지역교회로 보았는데 이와 같이 그의 교회론은 교회가 작은 무리(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강조와 보편적 교회에 대한 강조를 결합시킨 방식이었다.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행 시몬즈호(Simmonds)에서 데이비드 니취만(David Nitschmann)의 지도하에 있는 모라비안 선교단을 만난다. 이것이 모라비안과의 첫 만남 이었는데 그 후 조지아에 도착해서는 모라비안 목사인 스팅겐 베르크(August Spangenberg)와의 만남을 통해 모라비안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였다. 1738년 런던에 돌아온 웨슬리는 젊은 모라비안 선교사 비터 뵐러(Peter Bohler)를 만났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는 모라비안과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독일로 갔다. 그는 거기서 진젠도르프를 만났고 헤른후트를 방문하였다. 웨슬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모라비안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두 가지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는 구원과 회심이 오직 믿음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순간적인 회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변화된 죄인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음의 신앙’등이었다. 그로 인해 마침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잇에서 복음적 회심을 하게 된다.

한편 웨슬리는 모라비안을 통해 그들로부터 초대교회의 깊은 영적 교제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작은 모임, 즉 소그룹의 활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체험한 것이다. 회심이후 독일 여행을 통해 존 웨슬리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모라비아교 공동체에서 사도시대 원시기독교(초대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⁷⁷⁾ 그 후 독일에서 돌아온 웨슬리는 런던에서 뵐러와의 만남 이후에도 친밀한 교제를 위한 작은 모임을 원하여 1738년 5월 1일에 작은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페터레인회(Fetter lane society)의 시작이었다. 웨슬리는 1739년 1월 1일 저녁에 약 60명이 모인 페터레인 신도회의 정기 애찬회에서 너무나 큰 신비로운 은혜 체험을 하였는

76) 이동호, “17-18세기 교회안의 작은교회 형성사연구”, 38.

77)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데 얼마나 성령의 위엄 속에 있었는지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기록하였다.

홀, 킨친, 잉함, 횃필드, 허친스 그리고 내 동생 찰스는 페터레인에서 다른 60여명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애찬에 참여하였다. 새벽 3시경 우리가 즉석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위에 강하게 임하셨으며 넘치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으며 땅에 엎드렸다. 그의 현존하시는 위엄의 경이에서 깨어나 마자 곧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주가 되심을 아나 이다”라고 고백하였다.⁷⁸⁾

웨슬리는 헤른후트 모라비아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기도, 찬송, 예배, 애찬회, 속회, 밴드, 성도의 교제와 봉사 등 모든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분위기를 감싸고 있는 ‘마음 뜨거움’(warm-heartedness)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뜨거운’ 사랑이며, 동시에 서로를 향한 ‘마음 뜨거운’ 사랑과 기쁨의 교제였다. 웨슬리는 바로 이것이 모라비아교 영성의 특이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뜨거움’은 후에 감리교 신앙의 특징으로 나타났다.⁷⁹⁾ 또 한편 웨슬리는 1738년 8월 1일에 헤른후트를 방문하고 거기서 모라비안의 신도회와 밴드에 참여하였고 모라비안 교회의 매우 치밀한 분할과 조직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고는 그의 일지에 이렇게 세밀하게 적기도 하였다.⁸⁰⁾

헤른후트의 사람들은 약 90여개의 조(band)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은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그러나 대개는 세 번 모여 서로 그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했다. 교회 역시 나누어져 있었다. 남편들, 부인들, 과부들, 미혼여성들, 젊은 남자들, 소년들, 소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매우 분명한 많은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들 각자는 기혼 남자들은 한 기혼 남자의, 부인들은 한 부인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 대공동체는 거의 90여개의 작은 반이나 조로 나누어져 있었다. 각각의 작은 모임들은 가장 위대한 경험을 가진 자가 관장했다. 이들 모든 인도자들

78) John Wesley, *존 웨슬리의 일기*, 113.

79)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160.

80) John Wesley,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M*, ed Nehemiah Curnock (London: Epworth, 1938), 458-259.;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46.

은 매주 Senior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책임 맡고 있는 영혼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이나 진전시킨 것은 무엇이든지 Senior와 주님께 드러내었다.

그리고 웨슬리는 이 형제단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메소디스트 신도회에 적용하여 좋은 결실을 맛보았다. 특별히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애찬회와 속회, 밴드의 규칙이나 운영방식은 모라비안 공동체의 것들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¹⁾

결국 모라비안이 웨슬리와 메소디스트에게 끼친 영향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웨슬리는 그들로부터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형을 배웠는데 특히 모라비안의 소그룹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에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배웠다. 웨슬리는 ‘교회안의 작은 교회’의 개념으로부터 영국교회를 새롭게 할 가능성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제 2 절 영국에서 발생한 종교 신도회(Religious Society)의 영향

웨슬리가 독일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을 통해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는 영국 종교신도회의 영향 속에서 성장하였다.

영국 교회가 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와 함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17세기 후반에 영국교회 내에는 종교 신도회(Religious Society)라는 조직이 등장하였다. 그것은 1638년 처음으로 안토니 호르넥(Anthony Horneck, 1641-1697) 박사의 영향 아래 조직되었다.

한편 이 무렵 독일에서는 야콥 슈페너가 ‘경건한 소원’(Pia Desideria, 1675)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경건한 모임’(Collegium Pietatis)이라는 작은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호르넥은 슈페너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종교 신도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과 독일의 경건주의자들과는 접촉이 있었다. 종교 신도회는 영국 교회에 속해 있기는 했지만, 호르넥을 통해 대륙 경건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호르넥은 독일 태생으로 개혁과 경건주의 가정에서 성장하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수학한 후 20세때인 1661년 영국으로 이주해 와 매우 영향력 있는 성공회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81)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161.

는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고, 회의에 빠진 사람들을 지도하고, 모든 선한 일들을 격려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과 선행의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한다. 또한 그는 젊은이들에게 경건한 삶을 권고하였으며, 몇몇 ‘청년 신도회’(Society of Young Men)를 지도하면서 그 모임들의 규칙을 정하고 문서화하였다.⁸²⁾

호르넥의 경건신도회에 의하면⁸³⁾, 신도회의 회원은 16세 이상, 영국 성공회 교인으로 정해졌으며, 성공회 성직자 한사람이 ‘감독’으로 선정되어, 영적인 지도에 책임을 지고 신입회원들의 허입을 인준하여야 했다. 그들의 모임에서는 논쟁이 될 만한

82) Howard A. Snyder, *성령의 표적*, 명성훈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222.

83) 다음은 호르넥 박사의 경건 신도회를 위한 규칙이다. 이것을 명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규칙들이 앞으로 웨슬리의 신성회의 규칙 등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신도회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성결하고 진지한 삶을 결심해야한다. 누구든 열여섯 살이 되어 먼저 주교에게 견진을 받고 엄숙하게 세례의 서원을 하지 않는 자는 신도회에 허입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도해줄 국교회 성직자를 선정해야만 한다. 그들의 모임에서는 신학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어떤 사항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교회나 국가의 치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다. 그들의 모임에서는 ‘연도’나 ‘모은 기도’나 그 밖 에 정해진 기도문들과 같은 국교회의 기도문들을 제외한 다른 기도문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면기도문처럼 고유하게 성직자에게만 속한 기도문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선정한 성직자는 이러한 모임에서 실천적인 신학이 옹호하도록 지도해야한다. 그들은 기도를 드리고 독서를 한 후에는 자유롭게 찬송을 부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끝 난 후에 시간이 남으면 그들은 서로의 영적인 관심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지속적인 훈련이 될 수는 없다. 이 모임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할 것이나 주일을 모이는 날로 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유 없이 결석하는 자는 헌금함에 3페니를 바쳐야한다. 그들은 모임 때마다 헌금함에 각기 6페니를 바쳐야한다. 일 년에 특정한날, 즉 성령강림절이나 그 주간 화요일에 두 명의 청지기들을 선정하여 검소한 식사를 마련하고 설교를 행하며, 돈을(필요한 비용은 공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 신도회 회원들이 읽어야할 책을 살 수 있다. 주관하는 성직자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도 신도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어떤 예비회원도 선발할 수 없다. 만일 어떤 양심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성직자에게 고해야한다. 만일 어떤 회원이 신도회를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공금에 5실링을 바쳐야 한다. 그 나머지 사항은 신도회 회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다음의 규칙들은 특별히, 이 신도회의 회원들에게 권장할 만한 것이다. 즉 서로를 사랑 하라, 비방을 들었을 경우에도 되받아 비방하지 말라. 가능하다면 하루에 일곱 번씩 기도 하라. 국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모든 일들을 평화롭고 온유하게 처리하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 들어가고 나갈 때에 거룩한 것들만을 생각하라. 매일 밤 자신들을 반성해보라. 각자에게 그들에게 응당한 것을 주라. 영적인 윗사람이든 현세적인 윗사람이든,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313-314.

신앙의 문제들을 다루는 일은 삼가고 교회의 치리나 국가의 치리에 관한 토론도 삼가야 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함으로써 실천적인 경건을 장려하였고 그 헌금을 취급하기 위해 두 명의 청지기가 선발되었는데 이것은 강력한 평신도 리더십의 시발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신도회 운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⁸⁴⁾

이렇게 발전하던 신도회는 1698년 경 조지아 우드워드(Josiah Woodward)⁸⁵⁾에 의해 체계가 잡혔으며, 그에 의해 신도회의 목적이 ‘자기 성찰을 통한 완전과 성결의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를 위해 그 모임은 성례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강조하였다.⁸⁶⁾

1700년대 초에는 런던에만 40여개의 종교신도회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는 총 300여명의 그리스도인들이 9-10개의 신도회로 모이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보다 훈련된 영적 삶의 성숙을 원하는 영국 고교회의 젊은이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엄격한 규율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구제하였다. 어떤 이들은 장사를 알선시켜 주기도 하고 죄수들을 석방시키게도 하였다. 또한 대학의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고 빈민들을 무료로 교육하는 학교를 수십 개나 세웠다. 하이젠라터(Heizenrater)는 이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700년경에는 이 같은 형태의 종교 조직이 그리스도교적 경건성과 사회적 관심의 표현으로서 교회 구조 안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영국 국교회는 이러한 신도회들을 허용하고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회 구조 안에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⁸⁷⁾

84)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22-123.

85) 조지아 우드워드(Josiah Woodward)는 런던에 있는 신도회의 하나였던 ‘포플러회’를 지도하던 성직자였으며 영국 신도회의 역사적,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86) 우드워드와 호르벡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평신도의 역할 문제였다. 우드워드에게 있어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은 호르벡이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 것이었는데, 호르벡은 신도회 모임이 반드시 성공회 성직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드워드는 그 역할을 평신도 지도자에게 맡겼으며 예배인도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25.

87) Richard P. Heizenrater, “John Wesley and Oxford Methodist”, Diss, Duke University, 1972, 8-9.;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36.

이 신도회 운동으로부터 1691년에는 ‘사역방법 개혁신도회’(Society for the Reformation of Manners), 1699년에는 ‘기독교 신앙지식 보급 신도회’(SPCK: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그리고 1701년에는 그 자매기관인 ‘해외 복음전도신도회’(SPG: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Gospel in Foreign Parts)가 탄생하였다.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도 이 SPCK의 패턴을 따라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1701년 2월 7일, 8명과 함께 신도회를 시작하였다. 모임은 토요일 저녁에 12명이 넘지 않은 인원으로 이루어졌다. 엠퍼드에 세워진 모임(Epworth Society)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둘째 성경을 읽고 또한 상호간의 교회를 위해 신앙문제를 토론하며, 셋째, 이웃을 교화하고 그를 일으키기 위해 심사숙고 하는데 있었다.⁸⁸⁾

영국 교회는 이러한 종교 신도회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 종교 신도회 조직들은 교회의 구조 내에서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사회적 관심을 실행하는 표현’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영국 교회는 이러한 조직을 허용하고 복돋움으로 교회내의 개혁의 열심을 보유하려고 노력하였다. 웨슬리는 종교 신도회운동과 여기에 대한 영국교회의 반응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런던 옥스퍼드에서 신성클럽(the Holy Club)을 결성하는데 있어서 이 종교신도회의 패턴을 따랐는데 신성클럽의 회원의 일상생활은 엄격한 훈련 그 자체였다. 웨슬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인생 목표로 정한 ‘완전한 성결’의 이상을 신성회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보려는 희망을 갖고 거룩한 실험을 한 것이다. 신성회의 모든 활동은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학문, 경건,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었다. 그러나 신성회의 유일한 목적은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결’을 얻기 위하여 함께 모여 서로의 영혼을 책임지고 감독하며 돌보고 권면하고 돕는 것이었다.⁸⁹⁾ 물론 영국 종교 신도회의 영향을 받았지만 웨슬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규칙화시킨 것이다. 신성회의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한다.

88)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30.

89)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87.

-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기: 매일 새벽 4시 기상, 저녁9시 잠자기
- 규칙적인 자기성찰과 기도: 매일 새벽 4-5시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성경을 읽고 개인기도시간을 가짐, 취침 전 1시간 동안 자기 성찰(매일의 자기성찰일람표와 매일 기도집을 가지고)
- 영적독서: 경건서적을 읽고 내적 성결과 성결의 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토론과 대화를 하였다.
- 매일 영적 일기를 쓰고, 한 주간에 하루는 편지를 썼다.
- 영국 국교회의 모든 공중예배와 기도회에 반드시 참여하였다.
- 영국 국교회의 모든 법과 규칙을 지켰다.
- 매일 9시, 12시, 오후 3시, 6시에 매일의 기도를 드렸다.
-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 매주 한 시간씩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신앙생활에 관해 권면하였다.
- 모든 대화에서 논쟁을 피하고 내적 성결의 증진과 성결의 실천에 유익한 대화만 하였다.
- 중보기도: 주일에는 동료들을 위해, 월요일에는 학생들을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보기도 요청 자들을 위해, 그리고 매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하여 도왔는데 당시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으며 감옥의 환경이 극도로 나빠 인간이하의 새 활을 하며 병고에 시달리다가 죽는 죄수들이 많았다. 신성회의 사회적 자선행위는 죄수들을 방문하는 일로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평생의 사역으로 지속되었다.
- 매주 정기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방문하여 돌보았다.
-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돌보았는데 그들은 주린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하는 공장(work house), 가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구빈원(poor house)을 방문하여 도왔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옥스퍼드 대학 사람들로서는 혁명적인 행동이었다. 그리하여 신성회는 다음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한 방문계획표를 만들고 방문규칙을 만들어 실행하였다.

월요일-바카도 감옥	화요일-갓슬 감옥	수요일-가난한 어린이들
목요일-갓슬 감옥	금요일-바카도 감옥	토요일-갓슬 감옥
주일-가난한사람들과 외로운 노인들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가르쳤다. 옥스퍼드 대학 내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임시주간학교'를 운영하였는데 이것은 옥스퍼드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

-수입 중에서 자신의 필수적인 생활비를 제하고는 모든 것을 남에게 주었다. 가능한 한 많이 주는 생활은 옥스퍼드 신성회원들이 평생도록 지킨 규칙이었다. 이것은 이후 "가능한 많이 벌고, 가능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많이 주라"는 규칙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감리교인들의 규칙이요 경제생활의 원칙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적이고 훈련된 생활과 회원 들간의 교제는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 선교를 위해 몸을 싫었던 시몬즈(Simmonds)호에서의 선상에서도 계속되었다.

새벽 4시에서 5시까지는 우리 각자의 개인기도 시간으로 했고 5시에서 7시까지는 함께 성경을 읽었는데(우리 자신의 이해해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초대교회의 문헌들과 함께 세심하게 비교하면서 연구하였다. 7시에는 조반 식사를 하고 8시에는 공동기도 시간을 가졌다. 9시에서 12시까지 나는 독일어 공부를 하였고 델라모트씨는 희랍어 공부를 했다. 내 동생은 설교문을 썼고 잉험씨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12시에는 함께 모여 우리가 지난번 모임을 가진 이후에 우리 각자가 한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다음 모임 전에 할 것으로 계획해놓은 것을 함께 이야기했다. 그리고 1시쯤 해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점심시간부터 오후 4시까지는 우리 각자가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글을 읽어 주거나 이야기 해주었다. 4시가 되면 늘 오후 기도회를 가졌는데(아침에 항상 기도회를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 공과를 설명 하던가 회중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교리학습을 시키거나 그 밖의 것을 가르쳤다.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다시 개인기도 시간을 가졌다.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배에 탄 영국사람 중 두 세 명에게 내 선실에서 글을 읽어 주었다. 7시가 되면 나는 독일 사람들의 공중예배에 참석하였다. 8시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였다.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었다.⁹⁰⁾

결국 호르넥의 '종교신도회', 조지아 우드워드스의 '포플러 신도회', 그리고 웨슬리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Samuel Wesley)의 '종교신도회' 등은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웨슬리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시절 신성회 활동시절은 물론 이후의 아메리카선교, 연합 신도회등 전도 및 목회사역에는 언제나 엄격한

90) 존 웨슬리 총서, 제 7권: *John Wesley 일기*, 45.

규칙들을 제정하여 자신은 물론 회원들로 하여금 실행토록 자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하다시피 영국에서의 종교 신도회 운동과 17-18세기의 독일경건주의 운동, 특히 모라비안들은 웨슬리 자신의 회심은 물론 웨슬리 부흥운동 및 웨슬리 속회에 너무도 큰 영향을 주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점에 관해 줄리아 웨지우드(Julia Wedgwood)는 생생한 비유를 써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경건한 신도회들은 감리교회에 몸을 주었고, 모라비아 교인들은 영혼을 주었다. 그들의 영향 하에서 빈 그릇들이 다시 채워졌으나 그 포도주는 다른 것 이었다”⁹¹⁾.

본 연구자는 줄리아 웨지우드의 이 한마디가 웨슬리의 진면모를 매우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웨슬리는 책을 사랑하였고 배움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배울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을 가서라도 배울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배운 것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 내이지 않고 현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형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웨슬리학자인 스나이더(Snyder)는 웨슬리아말로 혁신가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그의 혁신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편향적 혁신이 아닌 다양한 사상들의 종합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실상 웨슬리의 천재성과 독창성은 남의 것을 빌어다가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결합하여 그들의 모든 것보다 다이나믹(dynamic)한 종합을 이루는데 있었기 때문이다”⁹²⁾

감리교회의 속회는 웨슬리의 바로 이러한 창조적이고도 다이나믹한 종합의 결실(結實)이었고 보고(寶庫)였다는 것이다.

제 3 절 결 론: 속회를 통한 교회론의 정립

웨슬리가 영국에서 발생한 종교 신도회, 독일 경건주의, 특히 모라비안의 헤른후트 공동체로부터 영국교회를 새롭게 할 가능성을 보았고 이를 신성회에서, 연합신도회에서, 속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들로부터 웨슬리가 보고 체험한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91) Julia Wedgwood, *John Wesley and Evangelical Reac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Macmillan and CO, 1897), 156-57.

92)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172.

그것은 바로 “교회론의 정립”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전통과 제도보다 더 우선적이고 시급한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상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웨슬리 학자인 스나이더도 “웨슬리의 실천은 그의 교회관에서 나왔다”⁹³⁾고 단정 지었다. 그의 전반적인 사상과 사역이 그의 교회관을 통해 도출되었기에 웨슬리를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의 교회관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것은 슈페너로부터 시작되어서 영국 종교 신도회, 특히 모라비안 헤른후트 공동체에서 실제 삶으로 드러나 보여 졌던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의 개념이었던 것이다. 웨슬리는 헤른후트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델을 보았고 그들의 소그룹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에 얼마나 유용하고도 효과적인지를 배웠던 것이다. 웨슬리는 저들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영성과 공동체적 체험을 증시하는 신약시대의 교회, 즉 초대교회(Primitive church)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웨슬리는 초대교회의 시절을 그리워하였다⁹⁴⁾. 그리하여 1744년 한때 신자들과 재산을 공유한 일련의 초대교회적 생활을 꿈꾸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웨슬리와 친분이 있는 리처드 비니(Richard Vinney)의 1744년 2월 22일의 일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웨슬리는 그와 몇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는 생활을 시작해보겠다는 뜻을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와 같은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에게 말했다. 웨슬리의 계획에 따르면... 매주 일하여 얻은 돈을 공용 돈 궤안에 넣을 것이며 그리고 매주 자기 가족들의 필요한 생활비를 그 돈궤에서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돈궤에 돈을 많이 넣었는지 혹은 적게 넣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⁹⁵⁾

웨슬리는 교회의 본질을 제도나 교권, 혹은 의식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교회에 관하여”(Of the Church)라는 설교에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93)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20.

94)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1.

95) Richard M. Cameron, *Methodism and Society in Historical Perspective, Methodism and Society Vol. 1* (New York: Abingdon Press, 1961), 70.;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1.

서 불러낸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영’으로 일치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소유하고 ‘한 하나님 즉 모두의 아버지이며 모든 것의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의 안에 계신 분’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⁹⁶⁾

즉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진정하고 거룩한 신자들의 공동체요, 모임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웨슬리는 교권이나, 제도, 건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웨슬리는 당시의 영국 교회 역시 역사속의 일반적인 기독교의 부패와 마찬가지로 타락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역사 속에 존재해 온 교회가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의 장으로 보았다⁹⁷⁾. 그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른 그 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⁹⁸⁾라고 하였다. 즉, 영국 국교회의 타락 성을 지적하였지만 영국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분이 거룩하기에 그럼에도 영국교회는 거룩하다고 믿었고 자신은 즐기게 영국교회에 속해있음을 강조하였다. 오히려 그는 영국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운 교회이며 여전히 거룩한 교회로까지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감리회를 특별한 종파나 교파로 보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어 감리회를 세우셨다는 생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웨슬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의 저변에는 “교회안의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라는 개념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감리회는 하나의 교회안의 작은 교회였다. 그것은 기존의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보다 작고 긴밀한 구조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의 훈육아래 큰 교회 안에서 성결의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였다.⁹⁹⁾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존의 영국교회를 새롭게 할 교회안의 작은 교회인 다양한 소그룹들을 조직하여 그의 교회 갱신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바로 그 갱신의

96) 웨슬리 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6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55.

97) 웨슬리는 1745년 ‘이성과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고하는 호소’라는 책을 출판하여 영국 교회와 영국 국민의 부패상을 상술하였다.

98) 웨슬리 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6권*, 162.

99) 조종남, *요한 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8), 179.

구체적인 구조들이 바로 속회(Class Meeting)였고, 밴드(Band), 선발신도회>Select Society)등 이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러한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라고 하는 웨슬리의 교회이해는 그에게 있어서 확고부동한 창조적인 교회론을 심겨주어 그로 인해 부패한 영국 교회의 갱신의 원동력을 발생 유지시키도록 하였고 그 갱신의 구조로서의 다양한 소그룹의 이론적인 근거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던 점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다.

웨슬리가 영국에서 발생한 종교 신도회, 독일 경건주의, 특히 모라비안의 헤른후트 공동체로부터 영국교회를 새롭게 할 가능성을 보았고 이를 신성회에서, 연합신도회에서, 속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들로부터 웨슬리가 보고 체험한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론의 정립”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전통과 제도보다 더 우선적이고 시급한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 상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웨슬리 학자인 스나이더도 “웨슬리의 실천은 그의 교회 관에서 나왔다”¹⁰⁰⁾고 단정 지었다. 그의 전반적인 사상과 사역이 그의 교회 관을 통해 도출되었기에 웨슬리를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의 교회 관을 바로 알아야한다는 말이였다.

그것은 슈페너로부터 시작되어서 영국 종교 신도회, 특히 모라비안 헤른후트 공동체에서 실제 삶으로 드러나 보여 졌던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의 개념이었던 것이다. 웨슬리는 헤른후트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델을 보았고 그들의 소그룹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에 얼마나 유용하고도 효과적인지를 배웠던 것이다. 웨슬리는 저들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영성과 공동체적 체험을 중시하는 신약시대의 교회, 즉 초대교회(Primitive church)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웨슬리는 초대교회의 시절을 그리워하였다¹⁰¹⁾. 그리하여 1744년 한때 신자들과 재산을 공유한 일련의 초대교회적 생활을 꿈꾸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웨슬리와 친분이 있는 리처드 비니(Richard Vinney)의 1744년 2월 22일의 일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0)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20.

101)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1.

웨슬리는 그와 몇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는 생활을 시작해보겠다는 뜻을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와 같은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그에게 말했다. 웨슬리의 계획에 따르면... 매주 일하여 얻은 돈을 공용 돈궤안에 넣을 것이며 그리고 매주 자기 가족들의 필요한 생활비를 그 돈궤에서 가지고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돈궤에 돈을 많이 넣었는지 혹은 적게 넣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¹⁰²⁾

웨슬리는 교회의 본질을 제도나 교권, 혹은 의식에 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교회에 관하여”(Of the Church)라는 설교에서 교회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영’으로 일치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소유하고 ‘한 하나님 즉 모두의 아버지이며 모든 것의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의 안에 계신분’을 모시도록 하였습니다”¹⁰³⁾라고 하였다.

즉 진정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진정하고 거룩한 신자들의 공동체요, 모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웨슬리는 교권이나, 제도, 건물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웨슬리는 당시의 영국 교회 역시 역사속의 일반적인 기독교의 부패와 마찬가지로 타락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역사 속에 존재해 온 교회가 비록 타락했지만 여전히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의 장으로 보았다¹⁰⁴⁾. 그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른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¹⁰⁵⁾라고 하였다. 즉, 영국 국교회의 타락성을 지적하였지만 영국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기에 그럼에도 영국교회는 거룩하다고 믿었고 자신은 즐기치게 영국교회에 속해있음을 강조하였다. 오히려 그는 영국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가까운 교회이며 여전히 거룩한 교회로까지 확신하였다. 그리

102) Cameron, *Methodism and Society in Historical Perspective*, Methodism and Society, Vol. 1, 70.;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311.

103) 웨슬리 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6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55.

104) 웨슬리는 1745년 ‘이성과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고하는 호소’라는 책을 출판하여 영국 교회와 영국 국민의 부패상을 상술하였다.

105) 웨슬리 학회 편, *웨슬리 설교전집 6권*, 162.

하여 그는 감리회를 특별한 종파나 교파로 보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뜻이 있어 감리회를 세우셨다는 생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웨슬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의 저변에는 “교회안의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라는 개념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감리회는 하나의 교회안의 작은 교회였다. 그것은 기존의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보다 작고 긴밀한 구조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의 훈육아래 큰 교회 안에서 성결의 누룩의 역할을 감당하였다.¹⁰⁶⁾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존의 영국교회를 새롭게 할 교회안의 작은 교회인 다양한 소그룹들을 조직하여 그의 교회 갱신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바로 그 갱신의 구체적인 구조들이 바로 속회(Class Meeting)였고, 밴드(Band), 선발신도회>Select Society)등 이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러한 “교회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라고 하는 웨슬리의 교회이해는 그에게 있어서 확고부동한 창조적인 교회론을 심겨주어 그로 인해 부패한 영국 교회의 갱신의 원동력을 발생 유지시키도록 하였고 그 갱신의 구조로서의 다양한 소그룹의 이론적인 근거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던 점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다.

106) 조종남, *요한 웨슬리의 신학*, 179.

제 4 장

웨슬리 속회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쇠퇴

존 웨슬리는 그의 천재적인 조직력을 가지고 영국에서 자생하였던 종교 신도회와 독일 경건주의 및 모라비안 단체에서 영향을 받은 소그룹 조직 등을 감리회만의 순수한 조직이며 특징인 속회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그리고 이 속회조직을 통한 교제와 훈련은 영국 감리교회를 시작케 하였고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존 웨슬리와 함께 야외설교와 부흥운동을 시작하였던 조지 윗필드의 부흥운동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지만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속회로 인해 계속해서 커지고 안정감 있게 발전해 갈 수 있었다. 이 속회 안에 감리교 운동의 지속과 안정과 발전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였던 이 속회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자 쇠퇴하게 되어 영국에서 약해지다 못해 사라져버렸고 미국에서도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이 비단 영국과 미국 뿐 아니라 한국도 예외가 아닐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번 장에서는 웨슬리 속회의 변천의 역사를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한다. 이와 더불어 속회 쇠퇴의 근본원인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피고자한다. 이러한 고찰과 더불어 속회 회생의 나아갈 비결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 1 절 웨슬리 속회의 태동과 성장

이번 절에서는 속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영국에서의 속회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그 이후 전래되었던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속회운동의 태동과 성장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영국에서의 속회의 태동과 성장

영국에서의 감리교 운동은 존 웨슬리의 올더스케잇 성령체험 이후, 두려움과 반신반의 속에서 시작하였던 브리스톨 야외설교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브리스톨에서의 뉴룸(New Room)에 대한 부채 문제 해결방

안을 논의하던 중 속회가 시작되었다. 속회는 거주 지역별로 나뉘어졌고, 보통 12명이 하나의 속회를 구성하였으며, 한명의 속장(Class leader)에 의해 인도되어졌다.

감리교 연합신도회(united society)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은 속회에 소속되었고 감리교 신도회는 속회의 속도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감리교신도회에 가입하기 전에 소규모 모임인 한 속회의 속도로서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소속감을 더하여 주기 때문이다¹⁰⁷). 웨슬리의 마음속에 ‘감리교 신도회의 진정한 회원은 속회에 참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 있었던 것 같다. 감리교신도회의 회원이 되기 전에 먼저 속회에서 3개월 동안 신앙훈련을 받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신도회에 가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무단으로 세 번 이상 속회에 결석할 경우 감리 교인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속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에게는 회원증을 주었다. 이 회원증은 3개월마다 다른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3개월마다 영성생활을 점검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했다. 이 속회회원증이 없으면 감리교 신도회 모임이나 애찬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3개월마다 갱신되는 회원권을 못 받고 근신신도가 되거나 아예 제명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잘 조직된 웨슬리의 속회운동을 통하여 교인들의 수가 교회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웨슬리가 회심하지 30년후인 1790년에는 99개 순회구역¹⁰⁸)(Circuits)에 53,691 으로 늘어났고, 웨슬리가 회심한지 63년 후인(죽은 지 10년 후) 1801년에는 149개 순회구역에 85,063명으로 늘어났다.

감리회 신도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매주 1회 모이는 속회에서 그들의 주체성과 자부심을 성취하는 수단을 제공해주는 인간관계들을 발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¹⁰⁹) 이에 대해 감리교 신학자인 Wearmouth는 이렇게 묘사하였다.

“억압과 경멸을 받고 있었던 하층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었으며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 그리고 화해가 있다는 말을 거듭거듭 들었을 때 그들의 귀와 마음은 놀람으로 가득 찼다”¹¹⁰)

물론 웨슬리의 지도하의 감리교는 18세기 복음주의적 신앙부흥운동의 가장 중요

107) 김홍기, *감리교회사*, 258.

108) 순회구역(Circuit)이란 1746년에 나타났는데 적개는 2,3개, 많게는 10개 내외의 신도회를 지역 단위로 묶어 결속시킨 조직 단위를 말한다.

109)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09.

110) Robert F. Wearmouth, *Methodism and the Common People* (Epworth Press, 1945) 202.;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09.

한 구성요소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수의 숫자는 결코 아니었다. 아래의 통계표가 보여주듯이, 어느 해든지 감리회 교인들은 전 인구의 1퍼센트라는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영국 감리교회 통계표¹¹¹⁾

연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	순회구역(Circuits)	감리회의회원수(Members)
1760	6,664,989	30개 구역	19,267
1770	7,123,749	40개 구역	25,701
1780	7,580,938	60개 구역	35,680
1790	8,216,096	99개 구역	53,691
1801	9,168,000	149개 구역	85,063

그러나 이토록 미미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의 영향력은 그 회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¹¹²⁾ 그것은 설교와 증언을 통해 일반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책자들과, 그리고 처음부터 이 운동을 에워싸고 있었던 논쟁들을 통해 지식 계층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감리회의 영향이 점차 인구 밀집 지역들에게 집중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18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회원 수가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바로 산업 발전이 가장 앞서 있었던 곳들에서 일어난 일이었다.¹¹³⁾ 실로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한 1 퍼센트의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를 통한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력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미국에서의 속회의 태동과 성장

영국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생존 시인 176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그 이후 미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미국 감리교회는 1766년부터 필립 엠버리(Philip Embury)와 로버트 스트로우브릿지(Robert Strawbridge)등에 의해 시작되었다.¹¹⁴⁾

111) 이 도표들은 '회의록'에서 인용한 것이며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아메리카, 그리고 덴 제도의 교인수를 제외하도록 조정된 것이다. 1766년이 회의록이 출판된 첫해였다.

112) Arminian Magazine 1(1778), 543.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10.

113)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10.

이들은 다 같이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었다. 필립 앰버리는 젊은 목수였으며 아일랜드의 감리회 신도회의 지역 설교자(local preacher)로서 1760년에 미국 뉴욕에 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1766년경부터 자기집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기도, 성경읽기, 간증, 교제 등을 힘썼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점점 발전하여 1769년에 미국 뉴욕에 최초로 감리교회가 설립되었다.¹¹⁵⁾ 이와 같이 앰버리와 그의 사촌 여동생 바바라 헉(Babara Heck)과 토마스 웹(Thomas Webb) 해군 대령 등이 뉴욕에서 최초의 감리교 속회 운동을 전개하는 동안에 로버트 스토로우 브릿지가 1774년에 메릴랜드에 와서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운동을 전개하고 1766년 경 부터 감리교 속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렇게 감리교 운동이 평신도들에 의하여 미국에서 시작되자 웨슬리는 1771년 브리스톨 연회(Conference of Bristol)에서 아메리카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한 설교를 하였는데 이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소명을 느낀 사람이 26세의 젊은 프랜시스 에즈베리(France Asbury)였고 에즈베리는 자원하여 아메리카의 선교사가 되게 되었다. 에즈베리의 전도로 미국 감리교회는 다른 어떤 교파보다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순회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속회(Class meeting)를 세우고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Church)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부 개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하여 많은 교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타 교단에서는 미개척지인 서부에 들어가 활동하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순회 전도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서부로 들어갔다. 서부지역에 도시 개척 건설 단이 들어갈 때 감리교 순회전도단과 까마귀가 함께 들어간다는 전설이 생길 정도로 감리교 순회전도자들은 열심이었다. 도시가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몇 개의 감리교 속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의 열정으로 미국의 남북감리교회는 우체국 수만큼이나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14) John E. Procter,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76), 9.; 박춘화, *감리교회와 속회*, 104.

115) 장기천, 윤영봉, *세계 감리교 신앙과 현황*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총회원, 1972), 85.; 박춘화, *감리교회와 속회*, 104.

결국 미국감리교회도 영국감리교회와 마찬가지로 속회운동으로 시작하여 20년 후에 비로소 교회가 조직, 형성되었다. 모든 미국 감리회의 신도회는 속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속회는 신도회를 자라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R.W. Dale은 “감리교회는 속회를 교회의 기본적 기구로 삼아 크게 효과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¹¹⁶⁾

3. 한국에서의 속회의 태동과 성장¹¹⁷⁾

1884년 6월 27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로버트 새뮤얼 매클레이(Robert Samuel Maclay)가 한양에 와서 당시 개화파 지도자인 김옥균을 통하여 고종에게 감리교회의 선교 사업에 대한 유히를 요청하였고, 고종은 교육사업과 의료 사업 활동만을 허용하였다. 직접적인 선교는 1885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1858-1902)¹¹⁸⁾가 인천에 도착하며 시작되었다. 1882년 맺어진 한미 조약으로 인해 본 목적인 설교활동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미 조약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교육, 의료 사업을 하거나 하는 일을 허용되었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행위를 허락하는 조항이 없었다. 당시 한국의 국법에는 외국 종교 신앙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복음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복음은 비밀히 전해야했고 또 비밀히 믿어야했다. 그래서 공개적, 집단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족 단위로 전해지게 되었다.

1887년 봄에는 배재학당 학생 한명과 관리 한사람이 밤마다 비밀히 성경을 공부하였다.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가 아직 선명히 기억되던 시대였으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이

116) 박춘화, *감리교회와 속회*, 106.

117) 박동찬, *살아있는 소그룹 속회 만들기* (서울: 속회연구원, 2015), 41-44.

118) 아펜젤러는 본래 스위스에서 이민 온 개혁교회 교인가정에서 태어나 14세 때 서다톤 임마누엘 개혁교회(Souderton Emmanuel Reformed Church)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후에 랜캐스터 제일감리교회(Lancaster First Methodist Church)의 기도회와 속회에 참석하여 큰 감화를 받고 1879년 4월 21일 감리교인으로 입교하였다고 한다. 결국 아펜젤러는 속회에 큰 매력을 느껴 감리교회로 옮겨 6년 후인 1885년에 한국의 선교사로 올 때 속회를 가져온 것이다. 박춘화, *감리교회와 속회*, 107.

런 과정을 거쳐 소수의 감리교인들이 생겼고 이들은 사랑방과 안방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사랑방에서 여자들은 안방에서 매주일 세 번씩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모여 믿음을 지키고 키워 나갔다. 그러다가 수가 차차 늘어나면 방 둘이 있는 집을 사서 한방에서는 남자들이 다른 방에서는 여자들이 모였다. 그러다가 수가 더 늘어나면 큰집을 사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다. 영국 감리교회가 신성회와 속회를 통하여 부흥하였고, 미국 교회도 속회를 통하여 부흥했다면 한국감리교회도 이런 사랑방과 안방 중심의 속회모임을 통해 부흥한 것이다. 한국 감리교회의 초기 선교사였던 부라만 목사는 말하기를 “속회는 내가 1910년 한국에 갔었을 때 튼튼하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속회가 한국에 생긴 것은 한국에 감리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¹¹⁹⁾

교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속회는 주일학교 교육과 더불어 다른 교파나 일반 사회교육에 비해 앞서 있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일제의 교회 탄압이 가속화되었기에 속회도 교회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해방 후에는 속회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했다. 6.25를 겪는 동안 공산치하에서의 경우 교회에서의 예배는 불가능했으나 교인 집에서 모이는 속회는 지속되었다.¹²⁰⁾

119) 박용호, *존웨슬리의 속회론*, 90-91.

120) 채부리의 책인(감리교와 속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3, 30p)는 “속회는 전쟁과 핍박 중에도 모였습니다”라는 글에서 채부리는 이렇게 말한다 “설문서 답변자 중 65%가 일정치하와 6.25사변 때에도 속회는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대선 감독은 말하기를, 이북 공산치하에서는 교회예배는 불가능했으나 교인 집에서 속회는 모였습니다. 교인들이 다 흩어졌으나 많은 속회가 설립되어 찬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고 한다. “가정교회”의 저자 ‘볼프강 짐존’은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의 책, Wolfgang Jimjon, *가정교회*, 황진기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의 제 6장의 “박해 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 만들기”에서 말하기를, 기존의 성당-회당중심의 구조로는 박해와 환난이 들이 닥칠 경우에는 모두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박해에도 요동치 않는 질적 특성이나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합당한 체제를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예로 1982년의 에티오피아의 메노나이트교회는(254p) 당시 5천명이었던 교회에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회의 건물과 재산을 몰수하였지만 10년 후에 오히려 5만 명으로 성장하였던 점을 예로 들면서 교회 건물과 목사들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소그룹 가정교회야말로 박해에도 요동치 않는 구조”라고 역설하였다. 마찬가지로 속회야말로 전쟁과 핍박에도 모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때에 그 중요성은 강조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6.25 전쟁 이후 교회들은 속회를 통한 개인과 사회 구원을 위해 전도와 봉사, 그리고 구제 활동 등을 많이 한 결과 한국 전쟁 당시 교회가 540여개였던 것이 1960년에는 1100여개에 이르게 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53년 경 한국교회는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속회가 약해질 때 보였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교계 지도자들 속회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속회 모임의 모호성, 속회 공과의 부재, 속장에 대한 속도들의 경시 등이었다.¹²¹⁾

이에 위기위식을 느낀 교회 지도자들은 속회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면서 1959년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당시 총리 원 교육국에서 속회 공과를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속회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속회는 오히려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진다.

1960년대 후반기와 70년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속회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되었다. 1970년대의 성령운동과 80년대 초의 교회 성장운동은 감리교회의 속회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그리고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¹²²⁾. 교회 부흥의 가장 좋은 도구가 속회라는 인식하에 성장을 원하는 교회마다 속회를 많이 만들고 조직화하여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자 힘썼다.

하지만 속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없이 교회 성장의 도구로 주로 사용된 속회는 교회 성장의 멈춤과 감소와 더불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심지어 2000년대에는 속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 이렇게 속회는 1990년대부터 혼돈의 시대를 겪어 왔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를 거치면서 새롭게 ‘건강한 교회’라는 호칭과 함께 교회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속속 새로운 소그룹 유형의 옷을 입고 두각을 드러내면서 목회자들은 이러한 교회의 소그룹 세미나에 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회 성장에 목적을 둔 소그룹 적용은 다시 한 번 유행처럼 흘러 지나가고 있다.

이러한 때 속회는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성화의 도구이며, 교회 성장은 이에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속회의 본질과 가치를 주창하는 속회 연구원¹²³⁾의 등장은

121) 홍병수, “존 웨슬리의 속회 전통에서 본 한국감리교회 속회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6, 34.

122) 상기한바와 같이 소그룹 속회의 부흥은 항상 부흥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123) 속회 연구원(Class Meeting Institute: C,M,I)은 감리교회에서 2007년 시작된 속회 연구기관으로서 발족된 취지를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속회연구원은 교회의 회

많은 교회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타 소그룹의 방향을 본질 추구 방향으로 전환시켜 가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어 보인다.

제 2 절 웨슬리 속회의 쇠퇴와 그 원인

속회가 18세기 영국을 피의 혁명으로부터 구원하였던 웨슬리 부흥운동의 핵심이었음에도 영국감리교회 속회운동은 쇠퇴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쇠퇴의 과정은 아래와 같은데, 웨슬리는 감리교 신도회와 영국 국교회와의 분리를 죽을 때까지 반대하였다. 하지만 웨슬리 사후에 감리교 신도회의 교회로의 이행(영국 국교회로부터 독립)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불화가 따르게 된다.¹²⁴⁾ 신도회로부터 교회로의 이러한 이행은 웨슬리의 개혁 취지에 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회를 쇠퇴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²⁵⁾ 매주 1회 모이는 속회는 19세기에 이르러 유지해 나가기가 점차로 어렵게 되었는데, 이는 공통되는 종교적 체험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공통되는 종교적 체험의 결여는 속장의 무관심 혹은 무능함이라는 고질적 문제와 더불어 속회 모임의 동력을 현격히 약화시켰다. 그와 동시에 “보다 덜 개인화되고 보다 덜 엄격한 형태의 종교적 훈련”에 대한 선호가 점점 더 많이 표현되게 되었다.¹²⁶⁾ 이제 속회는 교인 자격의 근거로서가 아닌 교제의 중심적 수단이 되었다. 그것은 1889년에 열린 한 연회에서 “속회를 교인 자격의 전통적 근거로 보존하기는 하되, 속회 불참을 교인 자격의 상실요건으로 삼지는 말자는 결정”¹²⁷⁾을 낳게 된다. 그로인해 개인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장(場)이었던 속회는 19세기에 이르러 이 기능들이 모두 없어지게 되었고¹²⁸⁾ 속회에 대한 언급도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속회가 신도회에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때까지 맡았었던 역할은 대신 기도회에 인계되었다. 사실, 영적인 활력은 속회보다는 기도회에 더 자주

복과 부흥을 갈망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으로 시작된 소그룹 속회 연구기관입니다. 속회 연구원은 소그룹 속회를 통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www.cmi.ne.kr/>.

124)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36.

135) Henry Rack, *The Decline of the Class-Meeting and the Problem of Church Membership in Nineteenth Century Wesleyanism* (WNS Proc 39, 1973-1974), 12-21.

126) Ibid., 14-15

127) Ibid., 21.

128) Ibid., 43.

관계되게 되었고 당시 기도회는 보다 덜 조직화 되고 보다 더 자연발생적인 모임이었으며, 개인 간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속회보다 교회의 제도적 활동들에 더 잘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²⁹⁾

아울러 속회의 설립과 함께 다른 교파에 비해 교세의 급성장을 이룩하였던 미국에서의 속회는 어느덧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로, 미국 감리교회가 1866년에 속회에의 참석을 교인이 되는 조건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이 미국에서의 속회 쇠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 둘째로, 속회제도보다 주일학교가 더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셋째로, 속회 원들이 규칙을 이기고 속장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넷째로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며, 다섯째로 감독들이 속회의 중요성을 등한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³⁰⁾.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지금 한국에서도 속회는 사실상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속회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속회는 단지 교회안의 조직으로 존재할 뿐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갱신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감리교회 목회자들도 속회를 우스갯소리로 ‘서캐’라고 비아냥거리며 케케묵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양아들을 입양해서라도 교회의 건강과 부흥을 이어가게 하려고 셀을 비롯한 소그룹 세미나에 참석하여 목회의 구도를 익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속회라는 말이 부담스러워 ‘CM’으로, ‘셀’로 ‘목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웨슬리 부흥운동의 핵심이요, 감리교회가 있기 전에 존재하였던, 진정한 감리교회의 역동적 힘이었던 속회가 도대체 왜 쇠퇴하게 된 것이었을까?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해 속회 연구가인 길버트 머레이(Gilbert Murray)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메말라버린 그리스도인의 체험(은혜의 뜨거움)

머레이는 속회의 변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충만하고 활기가 넘칠 때에 가장 성공하며 속회의 참석에 추진력을 제공하여 주었으나 뜨거운 신앙이 상실되면서 이

129) Henry Rack, *The Decline of the Class-Meeting and the Problem of Church Membership in Nineteenth Century Wesleyanism*, 48.

130) 박용호, *존웨슬리의 속회론* (KMC, 2008), 59-60.

제도에도 문제가 생겼다¹³¹⁾고 지적을 함으로써 신앙과 속회와의 긴밀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때는 신도들이 교제 가운데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리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道)안에 있는 자들의 찬양의 찬송과 신실한 증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을 느끼며 누리는 때인 것이다.

김홍기도 속회쇠퇴의 큰 원인 중에 하나로 ‘합리적 과학적 성서 비평학의 영향’을 짚으면서 합리적 과학적 성서 비평학의 발전과 함께 감리교 설교가들의 설교들은 학문적이 되고 자연적으로 예배형태가 은혜와 생명력을 상실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리면서 속회도 자연히 감성적 체험적 분위기보다는 지성적 학문적 분위기로 바뀌면서 생명력을 상실하였다¹³²⁾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존 웨슬리의 속회 태동의 역사에서 보듯이 웨슬리의 야외 집회로 인한 은혜와 부흥운동 이후 갈급함을 느낀 신도들이 웨슬리를 찾아가 모임을 갖고 자신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기를 요청함으로써 이후에 신도회, 그리고 속회가 발생케 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역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영혼의 심각한 질문을 던진 자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였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¹³³⁾ 그래서 채부리 선교사도 영국에서 속회가 쇠퇴한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였다. “1878년 영국 감리교인 어떤 사람이 속회에서 공부하자고 제의하였지만 연회가 그것을 반대하여 속회에서 성경은 공부하지 말고 간증만하라고 하였다. 성경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열매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결과는 교제입니다”¹³⁴⁾

그러므로 진정한 속회의 회복을 소망한다면 속회의 회복이전에 예배의 회복과 기도와 성령을 통한 은혜의 회복이 가장 근본이요, 급선무가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2. 영적 책임의식의 상실 (사랑의 따듯함)

131) Gilbert Murray, *감리교회 속회*, 한경수 옮김 (인천: 주안교회 출판부, 1991), 66.

132) 김홍기, *감리교회사*, 263.

133) 행 2:37

134) 채부리, *감리교와 속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83), 16-17.

김홍기는 영적 책임의식의(accountability)¹³⁵⁾ 상실이 속회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는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속회 안에서의 ‘내적 경건으로의 몰입’은 상호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돌봄에 무관심하고,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등한시하며, 실제적 선행생활도 관심 밖으로 내몰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서로가 영적으로 권면하고 충고하며 돌보는 중에 내면적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기 감리교도들의 특징이었고 크리스천 친교를 통한 상호간의 영적 책임의식이 감리교도를 영적으로 성장시켰지만 갈수록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상실한 채 영적, 내면적 자기경건에만 몰입해버린 것이 속회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가난과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사회적 선교가 상호간의 영적 책임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초기감리교도들의 정신이었는데 이러한 의식이 점점 사라지면서 속회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과 선행의 조화를 통한 성화의 완성이라는 웨슬리의 본래적 정신을 상실해버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¹³⁶⁾이다.

본 연구자의 경험을 보더라도 살아있는 속회에는 속도원들 상호간의 끈적끈적한

135) accountability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한다’는 뜻이다. 특별히 속회에 있어서 직고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 속도들이 그들의 일주일간의 신앙생활을 공동체 가운데 털어놓으면서 지은 죄나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면 속회지도자와 속도들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고는 단지 ‘숨김없이 서로 고하는’ 행위자체에 그 목적이 있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숨김없이 서로 고하였을까? 그것은 accountability(책임)라는 단어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하였듯이 직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서로 책임을 지는 삶을 통해 개인이, 또한 공동체가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서로 책임지고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속회로 모이는 목적이었다. 따라서 웨슬리의 accountability를 ‘직고’라고 번역할 때에는 단순히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차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직고를 ‘영적책임의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아무도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서로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좁은 틀에서 보면 ‘그대로 고하는 것’이라면 넓은 틀로 보면 ‘영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1744년 감리회 제 1회 연회 회의록에서도 “목사의 직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탁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니 이를 마땅히 책임져야 합니다”(as he that must give an account)라고 하였듯이 속회의 영성이란 직고의 영성, 곧 모든 사람은 서로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했던 ‘영적책임의식’이 저변에 흐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이러한 직고의 영성, 곧 이를 마땅히 책임져야하는 영적책임의식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성경말씀을 꼽으라면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일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36) 김홍기, *감리교회사*, 263-264.

상호간의 돌봄과 사랑이 있다. 친밀한 친목과 교제가 살아 역사한다. 그러나 죽은 속회에서는 속도원들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아예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3. 중산층의 분주한 삶.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교인들은 모두 그들 각자의 직업에 아주 집약적으로 계속 몰두해 있는 바람에 속회에 쏟을 마음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¹³⁷⁾. 실제로 본 연구자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현실화된 적이 있다. 속회를 신실하게 잘 이끌었던 속장이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개인 사업에 몰두하면서 잘 모이던 그 속회가 붕괴되어져버린 일이 있었다. 위와 정반대의 경우도 비슷하다. 김홍기는 속회의 쇠퇴원인은 ‘감리교도의 중산층화’라고 지적하였다. 즉 19세기 후반에 들어 감리교도들이 급격하게 중산층화하면서 영적 신앙생활에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가 증가하면서 자신들이 가난하였을 때 보다 훨씬 거룩한 성화 생활에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의 웨슬리와 에즈베리의 후손들은 속도들을 감독하고, 성도끼리의 영적 친교와 교제를 훈련하며,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는 속회활동에 무관하게 되었다¹³⁸⁾는 것이다.

4. 담임목사의 속회에 대한 절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상기한 바와 같이 1889년에 열린 영국의 한 연회에서 “속회를 교인 자격의 전통적 근거로 보존하기는 하되, 속회 불참을 교인 자격의 상실요건으로 삼지는 말자는 결정”을 낳게 됨으로써 속회는 이제 신도회로 들어가는 필수적 모임이 아닌 선택적 모임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감리교회에서도 1866년에 속회에의 참석을 교인이 되는 조건에서 제외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에서의 속회 쇠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다. 물론 이러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결정적인 속회 쇠퇴를 가져왔다고 한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던 간에 변화의 중심에는 탑 리더(Top leader)의 의지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탑 리더의 수준만큼 성장한다는 말도 사실은 탑 리더가 중요시여기는 만큼 멤버들도 소중히 여긴다는 말과 동일한 것인데 비록 속회 모임의 현실이 힘들고

137) Gilbert Murray, *감리교회 속회*, 76-77.

138) 김홍기, *감리교회사*, 262.

버거 워도 담임목사가 끝까지 속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좋은 실례들을 부각한다면 교인들도 속회모임을 중요시하고 모임에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5. 개인적인 간증의 지루하고 관습적임-속장 리더십

상기한 바와 같이 속회의 영성은 직고(accountability)의 영성이라고 하였다. “숨김없이 서로 고하는 직고”를 통하여 속도들이 그들의 일주일간의 신앙생활을 공동체 가운데 털어놓으면서 지은 죄나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하면 속회지도자와 속도들이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간증이 분별없이 반복되면 은총의 통로가 되는 속회의 효용성을 파괴시키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바 속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자들은 참을 수 없어 격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속회에 참석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다.¹³⁹⁾

Watson은 개인감정의 분출이, 많은 속회들을 지루한 것으로 만들고, 속회에 참석하는 것을 성가시게 만들었던 무의미한 형식주의 낳았다¹⁴⁰⁾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하나를 20세기의 전환기에 저작활동을 하였던 미국의 한 목사의 회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몇몇 속장들의 말이 매우 따분하고 무익하였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몇몇 속도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그들의 얼굴을 돌린 채- 마을의 회합이 열릴 때나 말을 사고 팔 때와는 전혀 다른-단조로운 어조로, 그들 자신에게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관에 박힌 종교적인 말들을 되풀이하였던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어느 여신도는 자신이 “가련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 “무익한 종” 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였으며, 무뚝뚝한 얼굴을 한 농부는 폐병에 걸린 사람처럼 “이 박정한 세상의 황량하고 쓸쓸한 벌판”에 대해 되풀이 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자신의 가난을 “그를 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섭리”라고 말하였으며 주님의 이러한 뜻을 기꺼이 따르겠노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상 그는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다. 나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과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데,

139) Gilbert Murray, *감리교회 속회*, 73.

140)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32.

나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할 말을 미리 알 정도로 그들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¹⁴¹⁾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의미와 재미를 추구하는데 결국 위와 같이 늘 뻔하고 따분하고 무익한 모임으로 전락해버린 속회모임에 굳이 시간을 들여 참석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기에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웨슬리는 이미 이러한 조짐을 예상하고서 속회모임(질의와 응답의 문답체제로 되어져있는)이 반복적이고 판에 박은 것처럼 단순히 하나의 형식절차로 전락되는 것을 무척이나 염려하였고 경계하였다.

6. 역량이 모자라는 속장과 속장의 훈련부재, 그리고 그로인한 유명무실한 속회

역량이 모자라고 자격이 없는 속장들이 임명되고 나면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속회가 황폐화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 인도자는 결코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었기에 속도들을 그 궁전으로 인도할 수 없을 뿐더러 물고기 대신 뱀을 주며, 빵 대신 돌을 주게 되므로 속도들은 더 이상 속회에 참석하려 하지 않게 된다고 머레이는 지적하였다.¹⁴²⁾

김홍기는 머레이가 지적한, 역량이 모자라는 속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9세기 감리교도들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질적 영성훈련을 약화시켰는바, 즉 전도의 성공이 속회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전도는 거대한 제도를 만들고 수의 증가와 조직화의 결실을 가져왔지만 성화훈련의 알곡보다 제도의 쪽정이를 만들었다고 해석하였다. 결국 턱없이 부족한 속장들의 수와 그들의 훈련부족이 결국 속회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관심하는 전도가 웨슬리의 본래 목적은 아니었다. 웨슬리는 옥외설교를 통하여 전도된 교인들을 질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훈련시키고 돌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후대에 갈수록 질적 성화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지도력이 상실됨으로서 결국 속회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성도의 영적 성숙을 책임지는 책임적 제자직(accountable discipleship)을 가진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된 것이 결국 속회 쇠퇴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¹⁴³⁾

141)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232.

142) Gilbert Murray, *감리교회 속회*, 78-79.

143) 김홍기, *감리교회사*, 264.

머레이는 매우 심각한 지적을 하나 더하고 있다. 그것은 유명무실한 채로 존재하고 있는 속회에 대한 것이었다. 즉, 여전히 생존해있기는 하나 생동적이고 실질적인 속회가 되질 못한다면 그 해약은 차라리 사라져 없어지는 것 그 이상의 해약이 된다¹⁴⁴⁾는 것이다. 이 같은 머레이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 웨슬리의 다음과 같은 탄식과 일치한다.

나는 메소디스트라 불리는 이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다 사라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 경건의 모습만 남은 하나의 죽은 공동체(dead sect)로 전락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처음부터 경험했던 성경적 진리(doctrine), 그것을 실체화 시키는 영의 능력(spirit), 그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훈련(discipline), 이 전체를 꼭 붙들지 않는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¹⁴⁵⁾

결국 이 모든 속회 쇠퇴의 원인들을 고찰해 볼 때에 속회 쇠퇴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능한 속장들이 속회를 부주의하게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속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 정도로 속장 한사람의 사명과 역할이란 속회 안에서는 지대하고 더 나아가 절대적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목자의 심정으로 속도들을 돌보아야할 속장교육과 훈련의 실패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속회 내에서 속회지도자의 절대 중요성을 인식하고 속회활성화를 위해 배광교회 내에서 속회지도자 교육과 훈련을 기획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144) Gilbert Murray, *감리교회 속회*, 79.

145) John Wesley의 메소디즘에 대한 생각들(Thought upon Methodist, 1786)중에서 드러난다.

제 5 장

배광교회의 역사와 속회현황과 속회지도자 교육의 실제와 평가

제 5장은 배광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살피되 속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배광교회 속회의 현황을 살펴볼 것인데 단순히 외부적인 현황만이 아닌 개선과 대안이 필요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다. 그리고 속회의 현황 속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던 속회 지도자 교육의 실재를 제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배광교회의 역사와 속회의 진행과정

본 연구자는 배광교회의 역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자한다. 1단계는 화곡동에서의 제 1성전기의 역사, 2단계는 제 2성전기의 역사 중 특히 과도기의 역사로서 담임목사 전환기의 역사를 다룰 것이며 3단계는 제 2성전기의 역사로서 지금 현재 담임목사인 이학성목사의 부임이 후기를 다룰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교회의 역사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속회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1. 화곡동 제 1성전기의 역사와 속회

배광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황방남 목사 가정을 비롯한 네 가정이, 1976년 1월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 4동 809-1, 배광 유치원 2층 교실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행 1:8)하신 주님의 선교적 명령을 목표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개척 설립된 교회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 북돋을 ‘배’(培)와 빛 ‘광’(光)으로 지어, ‘갑절로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척 설립 되었는데 당시 네 4가정으로 창립예배를 드렸고, 4년 후에는 꾸준히 급성장하여 교회의 기틀이 마련되고 장년을 중심으로 한 교회조직이 안정화되었다. 이 기간 성장의 요인을 이렇게 분석한다. 당시 강서구는 서울 중심부의 유동인구를

수용할 주변부의 역할을 감당할 주택가로의 개발이 한창이었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던 터였는데 이것이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성장하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열심을 다한 배광교회 담임목회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맞물려 ‘단기간 급성장’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¹⁴⁶⁾

창립 후 4년간 있었던 기틀 마련은 폭발적인 교인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다. 창립예배를 드린 3년 후인 1979년 3월 4일부터 배광교회는 예배인원의 증가 때문에 주일 낮 예배를 2부(10시, 11시 20분)로 드렸고 1년 후에는 주일예배를 3부로 드리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의 증가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속회 개편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척 당해 연도인 1976년에는 1속이 4속으로, 1977년에는 5속으로, 1979년에는 12속으로, 1979년에는 21속으로 증속된 것이다.¹⁴⁷⁾ 실로, 교회의 부흥은 곧장 속회부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실례였다. 이 시기에 전도와 속회를 장려하기 위한 시상이 있었다. 처음 행해진 1978년 8월 6일 상반기 전도시상은 ‘전도모범’에 이일용, 제춘희가 수상했고, 출석과 헌금을 항목으로 하는 ‘속회 우수상’은 믿음 속과 화평속이 각각 수상하였다¹⁴⁸⁾. 속회우수상은 속회들 간의 선한 경쟁으로 작용하여 역시 속회 부흥에 효과적 작용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성전건축을 향한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한 가운데 1981년 8월 16일에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성전부채를 위해 철야기도, 40일 연속기도 등 계속되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 입당 3년후인 1984년 5월 20일 감격적인 성전 봉헌예배를 드리게 된다. 성전 봉헌 이후 배광교회는 계속 해마다 갑절로 부흥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배광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할 과업이 “선교”임을 알게 하였고, 그 부흥의 힘을 해외 선교, 농어촌 선교, 지역 사회는 물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갑절로 비추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0주년이 되던 해인 1986년 4월 6일 김포에 초원 배광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국내외적으로 약 11개의 교회를 개척 봉헌하였다.

본 연구자는 화곡동 제 1성전의 마지막 시기에 배광교회에 부임하였는데 개인의

146) 배광교회, *35년 역사화보집*, 23.

147) Ibid., 21.

148) Ibid., 23.

경험과 배광교회의 제 1성전 교회의 역사 기록들과 교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배광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뚜렷한 교회이다. 첫 번째로 배광교회는 열심 있는 교회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군 생활 이후로 ‘동원’이라는 말을 배광교회에서 처음 들었을 정도로 배광교회는 동원에 너무도 익숙한 교회이다. 개척자인 황방남 목사가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우등생보다 개근생이 더 위대하다고 믿는다”라는 말이었다. 일단 모여야 무슨 역사든지 일어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교인들의 모이는 일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배광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일이 매우 탁월하다. 두 번째로 배광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해온 교회요, 제 2의 사도행전적 역사가 있는 교회이다. 상기한바와 같이 사회학적 요인, 개척자의 열심과 헌신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 속에 부흥되어져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인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배광교회의 역사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사실은, 배광교회의 부흥은 또한 속회의 부흥과 함께 나란히 갔다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이 속회의 부흥으로 이어짐은 당연하거니와 역으로 속회의 부흥이 교회 부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배광교회는 초창기부터 속회와 속장교육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왔음을 역사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배광교회의 역사화보집에서는 배광교회의 속장교육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교회 부흥은 속회 부흥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자!”. 이것이 배광교회 속회 슬로건이다. 속회는 감리교회의 독특한 평신도 조직으로서, 교회와 가정의 연결, 가정의 화합, 신앙공동체의 참여의식 심화를 목적으로, 배우고 전파하며, 사귀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구체화시키는 곳이다. 배광교회는 속회 진행을 맡은 속장과 성경공부를 맡은 속회인도자를 위해 개척 초기부터 매주 수요일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속장, 인도자 교육을 계속하고 있으며, 1983년 11월 28일 속장 연수회를 시작으로 속장 인도자 교육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척하던 해 1976년에 1속이 속으로 분속되었고, 1978년에 12속, 1979년에는 21속, 1980년 30속, 1981년 40속으로 놀라운 증속을 가져왔다.¹⁴⁹⁾

149) 배광교회, *35년 역사화보집*, 92.

실제로 본 연구자가 배광교회에 처음 부임하였을 때에 발견하였던 놀라운 광경이 있었다. 담임목사이신 황방남 목사의 집무실을 들어갔는데 속장 보고서들이 펼쳐진 채로 길게 줄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세히 보니 담임목사가 일일이 속장들의 속장 보고서를 확인하고 싸인을 하는 것이었다. 개척 초기로부터 지금 목회 후반기시기에 이르기까지 속장들의 보고서를 직접 챙겼다. 속회와 속장의 상황을 담임목사가 직접 챙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요 예배 후에는 속장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내주에 가르칠 속회공과 교육이다. 물론 부목사들이 교육은 하였지만 황방남 담임목사는 매주 어김없이 교육 후에는 교육현장에 올라와서 속장들을 격려하고 지시 사항들을 강조하며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담임목사가 속장과 속회에 대한 열정을 잠시도 놓지 않았다는 증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속회부흥과 교회부흥의 초석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2. 등촌동 제 2성전 과도기의 역사-담임목사의 리더십 전환기의 역사

하나님께서서는 배광교회에 1만 성도의 큰 비전을 주시어 등촌 2동 564-1번지에 참으로 아름답고도 견고한 새 예배당을 짓도록 하셔서 2006년 3월 5일에 새 예배당 입당예배를 하였고 4월 16일에는 봉헌예배를 드렸다. 배광교회가 화곡동 제 1성전 시기를 마감하고 등촌동 시대를 열게 된 것은 놀라운 제 2의 도약의 기회였다.

그러나 예배당 건축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갈등과 혼란에 빠져들게 되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하기 시작한다. 교회는 후임문제를 놓고 갈등하기 시작하였고 세습을 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며 담임자와 장로그룹 사이에, 그리고 담임자를 추종하는 세력과 교회의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 간에 큰 갈등과 이로 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황방남 목사는 정년 은퇴를 1년 앞두고 자원은퇴의 길을 택하였고, 후임 담임목사의 청빙의 문제는 교우들에게 일임하였으며 기획위원회에서는 청빙 내규를 정하여 제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하였는데 그 대상자는 서울연회 만리현교회를 담임하던 이학성 목사였다. 이학성 목사가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에 교회는 여러 해 동안 갈등해 왔던 깊은 골이 그대로였으며, 교회는 엄청난 빛을 갚아야 했고, 그 와중에 여전히 교회를 이탈하려는 사람들이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원로목사로 추대된 황방남 목사는 추종하는 교인들과 함께 본인이 사적

으로 운영하는 기도원에 교회를 설립함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 시기의 속회 현황을 분석한다면 속회의 수는 매우 많았다고 할 수 있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내부적으로는 너무도 허술한 문제투성이 속회였다. 속장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회 인도를 심방전도사들이 맡아서 하는 속회가 태반이었다. 심방 전도사들의 역할은 주로 낙심자를 돌보고 교회와 속회로 인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주중에 꽤 많은 속회를 돌아다니며 속회를 인도하는 역할이 그들의 주요 업무였다. 게다가 모여지는 속회도 주로 주일날 모여졌고 현금만 내고 모이지 않는 속회, 모이더라도 형식적으로 때우기 식의 속회, 속회의 숫자는 무척 많았지만 실제로 모여지는 수는 적거나 없기도 하는 실태였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속회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버리는 것이었는데 마치 많은 숫자의 속회를 탁월한 교회부흥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배광교회도 당시 그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정체는 속회의 정체로 바로 연결되어지더라는 것이었다. 교회가 내분에 휩싸이며 싸울 때에 교회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도 역시 약해지고 무너질 때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속회의 정체는 또한 교회의 정체와 쇠퇴로 직결되어진다는 것이다. 교회와 속회는 뿔 레야 뿔 수 없는 마치 동전이 앞뒷면과도 같이 상호적이고 유기적임을 알 수 있다.

3. 담임목사 리더십 교체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

이학성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직후 교회는 엄청난 교회 빛과 교인들의 이탈, 그리고 심각한 패배의식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만 8년이 지난 지금, 배광교회는 그때 인원의 두 배 이상의 매우 건강한 성장을 하였다. 그리고 교회 빛도 절반 이상이나 갇아 지금 매우 안정기를 맞게 되었다. 더군다나 배광교회는 감리교회는 물론 이 인근지역에서도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존귀한 교회로 거듭났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갈등도 거의 모두 봉합되어진 교회가 되었다.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크고 매주 새가족들의 등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욱이 등록하는 새가족들의 대다수가 젊은 부부들이 많고 자연적으로 교회학교 또한 부흥 활성화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때

과도기를 겪으며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본 연구자로서는 모든 게 주의 은혜요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주변 교회들로부터 배광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이나 라고 하는 행복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거기에는 세 가지 핵심적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학성 담임목사의 탁월한 예배신학과 설교, 그리고 은혜로운 예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인들은 매주일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으며 새가족들은 탁월한 설교로 인해 등록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온 교인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광교회는 현재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교인들 간에 싸우질 않는다. 게다가 교회의 위기와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하나 되어 제단을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신도 구역장들의 헌신의 공헌이 지대하다. 배광교회는 35년간 심방전도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구와 속회가 관리되어져온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교회였지만 이학성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심방전도사 제도를 폐기하고 평신도 지도자를 발굴하여 양육하고 세우는 '구역장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평신도로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돌보는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이들의 헌신은 목회자 이상으로 탁월하다.

이 시기에 속회현황을 고찰한다면 그 이전 과도기에 비해 매우 개선되어진 속회임을 보게 된다. 이학성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교회의 현 실태를 파악하던 중 속회가 숫자에 비해 내실이 많이 부족함을 진단하고서 어찌해서든 실질적으로 모이는 속회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모든 속회를 원점에서 다시 재편성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176개로 존재하였던 속회를 그 절반에 해당하는 86개 속회로 그야말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였다. 속회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다보니 바로 직전에 속장이었던 사람이 속도원으로 들어가면서 가벼운 마찰도 없지는 아니하였지만 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잘 모여질 수 있는 속회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고 속회모임도 매우 활성화되게 되었다. 게다가 교회가 부흥하면서 속회도 함께 부흥케 되었는데 그 부흥의 추세를 보면 아래와 같다.

*2011년~2018년도까지의 배광 속회 현황¹⁵⁰⁾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속회수	86속	103속	132속	138속	146속	152속	145속	167속

표에서 보다시피 해마다 속회가 증속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면서 속회도 함께 부흥되어진 좋은 모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잘 모여질 수 있는 속회환경을 제공함으로 빚어진 열매이기도 한 것이다.

게다가 배광교회의 속회에는 타 교회에서는 보기 드문 ‘부부속회’라는 것이 있다. 부부속회란 이름 그대로 부부들이 함께 모여져 드리는 속회를 말하는 것인데 배광교회에는 젊은 부부속회가 15개 속회가 있다. (은혜1속~은혜14속). 부부속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배광교회의 젊은 층들을 향한 고민에서 배태되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면 남자들은 청장년선교회로, 여자들은 여선교회와 속회로 편입이 되어 지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결혼한 남자들이 청장년선교회로 가질 않고 여자들도 여선교회와 속회로 가질 않는 것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젊은 세대의 욕구와 니들(need)를 알게 된바 저들은 부부 따로 움직이기보다 부부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움직여지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예 부부함께 드리는 부부속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상이 적중하여 저들끼리 너무도 잘 모여지는 것이다. 이 부부속회로 인해 교회 안에 등록된 외부 교인, 그리고 교회 안에 청년부 출신의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부부속회로 편입이 되어져 올해는 아예 젊은이 구역으로 ‘은혜구역’을 신설하여 담당목사와 담당 구역장을 배치시킴으로 매우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들을 위한 가족행복프로그램인 ‘아빠 어디가?’라든가 ‘부부의사소통 프로그램’, ‘행복한 부부생활’등을 실시함으로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등록 정착토록 박차를 가하고 있음으로 인해 교회학교, 특히 영아부와 유치부는 지속적인 부흥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150) 배광교회 2011년~2018년까지의 배광교회 당회 회의록 참조.

제 2 절 배광교회의 속회 현황 고찰

본 절에서는 현재 배광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속회의 실제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광교회의 속회 운영의 원칙과 구체적 방법론들은 배광교회의 오랜 역사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져온 배광교회만의 독특한 속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교회가 부흥되면서 속회도 함께 부흥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도기의 역사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내실 없이 숫자불리기의 속회로 전락해버리기도 하였던 역시 사실이다. 이에 배광교회의 속회현황 고찰은 본 연구자가 배광교회에 부임한지 13년 째 되는 선임부목사로서 본 연구자가 직접 보고 경험한 배광교회의 속회현황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배광교회의 속회 현황

배광교회의 속회 현황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규정되어져 있는 속회의 조직과 직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¹⁵¹⁾

가. 속회의 조직과 직무

교인들의 신앙훈련과 친교 및 교회의 봉사활동을 위하여 속회를 조직한다.

- 1)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5-9세대로 조직한다.
- 2) 속회는 인도자의 지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 및 중보기도를 드린다.
- 3) 속회는 속장의 주선 하에 교인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
- 4) 이웃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다.
- 5) 속회는 교회 사업이나 속회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 6) 속회는 속회원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생활개선을 위해 힘쓴다.

나. 배광교회의 속회 현황 및 속회에 직면한 도전들

배광교회에는 현재 4개의 교구(1,2,3,4)에 12개의 구역(믿음,온유,소망,희락,자비,

151)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2016), 94.

충성, 양선, 절제, 사랑, 은혜, 순종, 인내) 그리고 167개의 속회가 있다. 교구는 부목사가 각 교구 담당목사로, 구역은 구역장¹⁵²⁾들이, 속회에는 속장들이 맡고 있다. 1개의 속회에는 평균 5-6가정이 속회에 소속되어져 있고 주로 가정과 교회에서 속회가 드러지고 있다.

상기한바와 같이 현재 담임목사이신 이학성목사가 부임하기 이전에는 176개의 속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하는 교인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이전의 속회조직을 전부 다 흩어버리고 속회를 전면 재편성하여서 86개의 속으로 압축시켰다. 속회의 수보다도 실질적으로 모이게 해달라는 요청을 적극 반응하여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는데 교인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어서 속회가 활성화되고 교회 부흥에도 도움이 되게 되었다. 게다가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의 수가 더해지면서 속회도 분가하면서 속회의 수도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고 부부속회도 해가 지날수록 분속(分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보아도 바람직한 속회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기도 하지만 배광교회 속회 안에 직면해있는 문제들 역시 산적하다. 배광교회 속회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될 세 가지의 도전들은 아래와 같다.

(1) 속장 리더십 훈련의 취약함

배광교회 속회를 냉철히 돌아 볼 때에 속회 안에 직면해 있는 첫 번째 문제로는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들의 리더십 훈련의 취약함이다. 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2015년도에 속장들과 함께 속장 수련회를 가게 되어 외부 강사를 모시고 속회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속회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인 강의였는데 구역장들과 속장들에게는 상당한 도전적인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 같았다. 강의 후에 어느 구역장이 본 연구자에게 심각히 말하기를 “이렇게 좋은 강의를 모든 속장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속장들이 너무 많이 헤이 해짐으로 속회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 목사님이 아세요?”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 구역장의 제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화요일 마다 모여지는 구

152) 구역장은 평신도 여자 권사들로 구성된 평신도 리더들이다. 이들은 믿음과 열심,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무급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원래 배광교회는 심방전도사체제로 교구를 관리해온 교회였으나 2대 담임목사인 이학성목사의 목회철학에 의거, 그 이후로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구를 관리해오고 있다.

역장 회의 시¹⁵³)에 속장 수련회를 강평하는 자리에서 거의 모든 구역장들이 속장교육과 훈련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토로하였다. 이에 목회 실에서는 속회지도자들의 교육과 훈련프로그램들을 진지하게 기획하고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결국 강행하게 되었다.

이 훈련프로그램들을 기획하기에 앞서서 되돌아 생각해보니 본 연구자가 배광교회에 부임한지도 10년이 더 지난 지금, 제대로 된 속장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많은 속회를 심방전도사들이 그것도 합속(合屬)하여서 인도하였던 경우가 허다하였고, 요즘에는 주일날 드러지는 속회가 많은 상황에서 과연 속장들의 속회의 역사와 정의, 속장의 자기정체성과 사명, 자신의 영성관리, 그리고 구체적인 속회 인도 법들을 제대로 알거나 하는지를 생각해보니 이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속장의 사명만 쥐어주었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도구들은 쥐어주지 못 한 채로 방치되어졌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속회의 리더인 속장의 훈련과 그로인한 영적 성장에는 무관심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 조직이던지 그 조직은 조직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만 성장하는 법이다. 속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본 연구자는 매주 마다 속장들이 제출하는 속회 보고서를 확인한다. 그런데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 정체되어져 있는 속회와, 살아있고 부흥하는 속회들을 비교 할 때마다 뚜렷하게 차이가 되는 것은 바로 속장의 리더십이다. 부흥하는 속회와 쇠퇴하는 속회의 중심에는 늘 언제나 속장이 있었다. 속회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속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는 속회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속도들이 잘 모여지고 그 모임을 사모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속회가 깨어지고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 속회가 있었다. 그 속회는 주로 수평 이동한 성도들로 구성된 속회였다. 수평 이동한 사람들의 특성상 그들은 이전교회에서 나름 열심이 있었다가 교회내의 갈등과 상처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아니한 속도들이었다. H속장이 6명의 속도들을 맡았는데(이 사람도 외부 전입자였음) 속회가

153) 배광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교역자들과 구역장들이 모여서 목회회의를 진행한다. 구역의 환자, 상황들이 보고되어지고 교회의 행사들이 공지되고 담임목사의 목회비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지는 시간이다.

완전히 풍지 박살났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H속장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은 교만하고 속장을 힘들게 하는 속도들이었다. 졸지에 문제 속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K속장을 이 속회의 속장으로 세웠는데 변화가 일어났다. 흩어졌던 속도들이 다시 모여졌고 계속 속도들이 늘어나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어려움을 주었던 속도들은 속회로 모이는 것을 너무도 행복해하였고 그 모임을 기대까지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속장은 속도들로 인해 너무 행복하였고 너무도 좋은 속도들을 주셨다고 감사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에 K속장은 그 속회를 내려놓게 되었고 그 속회는 분가(分家)되어 2명의 속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속회 안에서의 속도 두 사람이 각각 속장이 되어서 지금 너무도 속회를 잘 인도하고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다. “제가 속장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은 속장의 최고 모델을 보여주신 K속장님 덕분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속장으로 헌신하게 되었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속장리더십이 그토록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준 구체적인 실례였다. 실제로 K속장은 자신이 처음 속장을 하면서 무얼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던 차에 속회지도자 훈련프로그램이 개설되어졌고 이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속장의 임무와 사명이 저러한 것일진대 나도 저렇게 꼭 해야겠다’라는 감동과 결단이 있었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였다고 하니, 속장과 속장 훈련프로그램이 그토록 중요함을 새삼 실감케 해준 실례였던 것이다.

또 하나 속장 리더십과 관련하여 문제로 떠오른 속장이 있다. C속장은 야간 신학공부도 하였고 또 열심에 있어서도 목회자 이상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속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넘쳐서 새신자들이 오면 직접 음식과 반찬을 싸들고 집으로까지 찾아가는 열심을 가진 속장이다. 그런데 C속장과 속회모임을 하면(주일속회임) 속도들이 못 버티고 다 흩어지는 것이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C속장은 주일 예배 후에 모여지는 속회에 약 30분가량을 일방적으로 설교와 강연을 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내내 주석 책도 준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속도원들이 지루함을 못 버티고 다 도망 가버리는 것이었다. 권면을 해도 잘 듣지 않고 본인의 열심과 헌신에만 매몰되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속장을 보면서 특히 속장리더십

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할 필요성을 더더욱 절감케 되었다.

(2) 속회모임의 출석률 저조 및 주로 주일날 모여지는 속회현실

존 웨슬리는 속회교인이야말로 진정한 신도회의 교인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속회 모임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완전을 향한 너무도 중요한 은총의 수단임을 강조한 것인데 현재 배광교회의 속회 모임의 비율은 50%가 채 되질 아니한다. 그리고 모여지더라도 주일날 주로 모여지는 속회의 현실이다. 현대인의 삶이 바쁘고 또한 개인적인 상황이 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주일 출석은 잘하고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회 안에서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눔으로써 말씀이 육화(肉化)되질 못하고 정직한 직고(直告)와 그로 인한 돌봄 등이 이루어지질 못하면 신앙의 성숙함은 사실상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회 소그룹을 참여해야한다. 아울러 주일날 바빠 해치우는 식의 속회가 아닌 평일 날 여유 있고도 속 깊은 나눔이 이루어져야한다.

(3) 속회에 대한 교역자들의 중요성과 관심의 약화

예배와 소그룹은 건강한 교회성장의 양쪽 날개라고도 한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당연히 균형을 잘 갖추어야하는 것인데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배광교회의 경우 예배와 예배 프로그램, 그리고 예배의식에 쏟는 관심에 비해 소그룹 속회에 쏟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자성하게 되었다.

예배 시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속회 내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육화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속회와 속장훈련 등에 대한 교역자들의 관심의 미약함을 깊이 성찰하게 된 것이다. 위의 세 가지의 문제들, 즉 속장 리더십훈련의 취약함, 속회모임의 출석률 저조 및 주로 주일날 모여지는 속회현실, 속회에 대한 교역자들의 중요성과 관심의 약화 등이 배광교회 속회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이에 목회 실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연구의 산물이 바로 속회 활성화를 위한 속회 지도자 교육훈련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위에서 드러난 배광교회 속회의 문제점과 도전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배광교회에서 실시한 속회활성화를 위한 속회지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배광교회 속회지도자 교육의 현황과 평가

배광교회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교역자실의 부목사들이 속회지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도전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고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도 1월부터 추진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속회지도자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속회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연구기관인 “속회연구원”도 창설하여 집중적인 속회연구에 몰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속회지도자들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교육을 준비하여 추진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1. 배광교회 속회지도자 교육의 현황

가. 교회안의 “속회연구원” 창설.

먼저 배광교회에서는 속회를 전략적으로 연구할 “속회연구원”을 창설하여 속회 증진을 위해 연구하도록 하였는데 속회연구원의 총책임자로는 본 연구자와 허윤희 수련전도사가 맡도록 하였다. 속회연구원의 직무로는 매 주마다 속회 공과 제작, 속장 위로회 및 단합대회 연구, 속장 교육 프로그램 연구, 속회 전도축제의 프로그램 연구 및 추진, 그리고 1년에 두 번 속회 심방에의 계획 수립 및 추진하는 것이었다.

나. 속회지도자 교육 진행 계획

속회 지도자 훈련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상반기 5주간, 하반기 2주간으로 총 7주간 추진기로 하였다. 교육일시는 모든 속회지도자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주일 오후 2시로 정하였다. 교육 장소는 문화예배실로 정하였고 교육방법은 1시간 강의, 30분 구역별 그룹 토의의 순서이다. 그리고 토의시

간에는 구역별로 알찬 토의를 위하여 그룹 나눔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었다. 속회지도자란 속장을 포함한 속회인도자, 그리고 차기 속장인 부속장도 포함시켰다.

다. 속회지도자 교육 내용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던 속회지도자 훈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의 내용은, 속회란 무엇인가?, 속장리더십, 소그룹 속회전도, 속장의 충만한 영성, 감리교 신학 등 속회에 관한 역사적인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걸 다루어 교육하고자 하였다¹⁵⁴⁾.

라. 간략한 교육 내용 소개

◎ 제1강-속회란 무엇인가? : 속회의 중요성 및 감리교 속회의 기원

이 강의에서는 18세기 웨슬리 속회를 중심으로 다룬다. 왜냐하면 지금의 속회를 위한 원형적인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원형적인 모델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요, 속회의 창시자인 웨슬리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이다. 속회의 시작인 웨슬리 속회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속회를 통한 결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과연 우리네 현재 속회와 속장인 나를 비추어볼 거울과 잣대로 삼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일 첫 강의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제 2강- 소그룹 속회 전도 : 소그룹 관계전도의 이론과 실제

이 강의에서는 소그룹 속회를 통한 전도에 대한 강의로서 기존의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해왔던 총동원 전도방식에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전도는 결코 한번 반짝하는 행사가 아닌 마치 농사를 짓듯이 전도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정성껏 섬김으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먼저는 소그룹 속회으로 초대된 뒤며 교회로 인도하는 방식이어야 함을 강조한 이 시대 전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속회는

154) 부록3 참조. 부록3에서는 모든 강의안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다만, 매 강의 후에 복습과 정직한 자기성찰 등을 목표로 약 2-3가지의 질문을 제시하였고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단순히 친교와 교제 이상의 전도 소그룹이야 함을 각성시키는 강의였다.

◎ 제 3, 4강-속장의 충만한 영성1,2

이 강의에서는 영성수련의 이론과 실재를 다루었다. 속장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충실하지 않고서는 맡겨주신 양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판단에 서였다. 그리하여 “렉시오 디비나를 통한 성경묵상과 센터링 기도”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하였는데, 두주에 걸쳐서 한주는 주로 이론적인 부분을, 두 번째 주에는 실습을 위주의 교육을 하였다.

◎ 제 5강- 속장의 정체성과 사명

이 강의에서는 강사를 초청하여 속장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 전반기의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속장의 사명감을 새롭게 결단하는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 제 6강- 감리교 신학: 우리의 교리(감리교의 초기 교리)

이 강의에서는 초기 감리교회가 시작될 때에 존 웨슬리가 ‘우리의 교리’라고 함으로 강조하였던 초기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성서, 전통, 체험, 이성에 근거한 초기 감리교의 교리를 다룸으로써 이단으로부터의 분별은 물론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2. 속회지도자 교육의 평가

속회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 시간마다 약 30분 이상 속장들끼리 배운 바의 내용을 가지고 정직한 나눔과 토론을 진행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토의할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 나누도록 하였는데 비교적 정직하고도 진지한 나눔 들이 있었고 그 나눔의 내용들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강의 후에 교구별 구역장들과 일부 속장들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정직한 평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번의 교육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효과라고 함은 애초에 배광교회 속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속장 리더십 훈련의 취약함’, ‘속회 모임의 출석률 저조 및 주로 주일날 모여지는 속회현실’, ‘속회에 대한

교역자들의 중요성과 관심의 약화'부분이었는데 교육전과 후의 차이를 주로 속장들의 달라진 변화에서 찾아보고자한다.

우선, 배광교회 속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속장 리더십 훈련의 취약점을 이 훈련이 어떻게 보완해주었는지를 몇 가지 테마와 그를 입증해주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피고자한다.

가. 첫 속장의 구체적인 지침과 새로운 감동과 결단의 계기를 부여

K속장의 고백이다. “저는 사실상 속장을 처음하게 되면서 이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속장을 하게되다보니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속장의 임무와 사명이 저러한 것일진대 나도 저렇게 해야 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침과 감동, 그리고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강의 후에는 ‘그래, 내가 전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게 맡겨주신 양들만큼은 놓치지 말아야하겠다’는 결심도 갖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니깐 너무너무 예쁜 것 이예요. 그래서 속회로 모였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밥이라도 꼭 먹여 보내야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즐겁게 모임을 2년째 하고 있네요. 때로는 속도원들이 속회 안에서 함부로 말을 내뱉을 때에는 ‘저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랑의 마음 때문인지 그냥 짝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K속장의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배광교회의 속회는 '속장 리더십 훈련의 취약'이라고 하였고 그 예로 들었던 K속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속회모임은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전 속장의 집요한 연락으로 속회에 참석하게 된 사람인데 심방해서보니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아 속장을 권유하였고 마침 본 훈련이 개설되었기에 참석하게 하였는데 H속장으로 인해 다 흩어진 속회를 완전 새롭게 세운 사람이요, 모든 속장들의 귀감이 된 속장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범적 사역에 본 속장교육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나. 부분적인 지식이 하나로 꿰어지고 지식 욕구의 충족.

L속장의 고백이다. “몇 십년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로만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체계적으로 알기가 어려운데. 웨슬리와 속회에 대하여 분야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니깐 뭔가 손에 잡히고 꿰어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특히 한주에 한 가지 주제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니깐 이해도 쉽고 집중도도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다른 L속장의 고백이다. “속장은 아무래도 속회 지도자이다 보니 알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거 같아요. 알아야 속도원들에게도 알려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욕구를 다 채워 주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듣고서 은혜도 받으니깐 들은 게 속회에서 그대로 물어 나오더라고요. 전반기에 5주간을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좋은 게요 5주간이면 빠지게 되더라도 최소 2-3번은 나오게 되잖아요.” 그동안 부분적으로 귀 동냥 식으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하나로 쪽 꿰어지게 되니 속회에서도 그대로 물어 나오게 되어 속장으로서의 리더십을 행사에 있어 좋은 영향력을 끼쳐진 게 된 것이었다.

다. 타성에서 새로운 감동과 결단의 계기 마련.

H속장의 고백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쪽 해보니깐 믿음생활은 자칫 '타성'에 젖기 쉽고 처음 믿었던 그 뜨거움 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기 쉬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는 속장으로서 들어야 될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거니깐 당연히 도움이 되었어요. 말씀을 자주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느 말씀을 듣다가 '깨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터치'가 참 좋았던 거 같아요. 매번 듣는 말씀이라도 어느 때 듣느냐에 따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달라지는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의는 저의 나태해진 심령을 다시금 '건드려' 주신 거 같아요. 제가 몇 십 년 매번 반복되어진 교직생활을 은퇴하고서 보니깐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 하면요 세상이 넘 재미있어요.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선교회 총회장이 되면서 교회 일에 올 인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찌 보내야 할까? 하는 진지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 같아요. 여하튼 말씀으로 계속 터치 해주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먼지'와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지가 티끌 같지만 소리 없이 쌓이다보면 수북한 형체덩어리가

되듯이 말예요. 특히 ‘지갑을 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게 큰 터치가 되었는데 남을 실질적으로 사랑치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자극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강의 중에 웨슬리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트에 갔다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회심이 일어났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듣던 중에 이루어진 ‘심령의 터치’인 것처럼 이런 강의를 통해 지속적인 심령의 자극과 터치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썹꾸러기 아이들일지라도 놀 더 라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노는 게 중요하고, 사고를 쳐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위의 H 속장은 일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만 봉직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교회봉사로는 속장과 성가대외에는 특별히 행한 것은 없다. 그런데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었던 속장의 직무에 ‘영적인 터치’를 통하여 나타내진 심령을 건드려주심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더욱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큰 터치가 되었고 ‘남을 실질적으로 사랑치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라는 강의내용에 도전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번 속장 교육 후에 여 선교회장을 맡게 되었는데 여선교회 회장이 되어 여러 여 선교회원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선교회원들의 행태 등을 이번 배운 내용이 떠올라 이해할고 품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갑을 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라는 강의에 도전 받음으로 인해 그는 교회의 물품들을 사면서 한 번도 교회차량에 의존하지를 않고 자신의 고급승용차에 무, 배추, 양파 등의 시장물품들을 직접 배달해오는 겸손함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본 교육의 내용들이 이런 모든 생각과 행동의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라. 속장의 자존감형성에 큰 도움.

J구역장의 고백이다.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인데 이번 교육이 속장으로서의 자존감형성에 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해 연 초에는 전체 속장들을 모두 모아놓고서 한번정도 교육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 말고 속회와 속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반복이라고 한다면 같은걸 반복해도 지루하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반복해야 세뇌가 되어 진대로 툭 튀어져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목사님께 부탁드렸듯이 구역장 회의 때에도 담임목사님이 안계시면 꼭 기도해주시고 시작한다든지 목사님이 계신 경우에는 꼭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자존감도 생기고 영적인 힘이 나는 거 같아요.”그런데 J구역장은 배광교회 속장보고서 맨 앞에 있는 ‘속장수칙¹⁵⁵⁾’이 대단히 중요하다 믿고서 모든 속장들에게 찍어서 보내주었다고 한다. “이전의 목사님의 경우는 일년에 두 번은 꼭 속장 교육을 시키셨는데 대단한 게 아닌 반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제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속장수칙입니다.”

사실 J속장은 구역장으로서 일에 있어 치밀하고 찢러도 피한방을 나지 않는 사람의 표본일 정도로 완벽주의적인 속장이다. 그런데 이번 교육이 속장의 자존감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말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평신도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자존감이 아니면 쉽지 않다는 하는 방증일 것이다. 그도 이러하였다고 한다면 매우 많은 속장들도 이번 교육을 통하여 속장 자존감형성에 큰 일조를 하였음은 물론 속장 리더십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 추론해볼 수 있으리라.

155) 배광교회의 속장 수칙 ● 속장의 경건생활: 개인 경건생활에 철저하여 예배참석, 전도, 기도, 봉사, 언행 등 속도들에게 모범되기에 힘쓴다(성경읽기, 쓰기, 연구 및 새벽기도, 철야기도회에 참석) 자족할 줄 알며, 너무 화려하거나 남루한 복장을 삼간다. 남의 집 또는 자신의 곤란한 형편 이야기를 금하며 항상 덕을 세워야한다. 쉽게 성내거나 금전 거래를 일체 금한다. ● 속장의 경건생활: 5. 담임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교역자의 입장에서 일한다. 6. 속도와 가족들의 이름을 외우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한다. 7. 속도들의 형편을 잘 돌아보고 항상 대화의 대상이 되어준다. 8. 속회공과는 매일 1일 정독하고, 수요일예배 속회공과 공부시간에 꼭 참석한다. 9. 속회로 모이기전에 심방(전화, 방문)하여 전원이 참석하게 한다. 10. 속장은 속회로 모이기 10분전에 준비한다. 11. 속도가정의 인가귀도와 전도에 힘쓴다. ● 속회 행정: 12. 속장일지는 자세히 기록하여 주일예배 후 제출하고 수요일 예배 후 찾아간다. 13. 속도원의 형편이나 특별 사항 등을 일지에 기재하여 보고한다. 14. 교회 소식을 자세하게 다시 알려준다. 15. 새신자는 자주 심방하고, 남녀선교회 또는 청년회 등 소속기관에 즉시 연결시킨다.

마. 같은 구역 내의 속장들과의 만남과 친교의 유익.

L속장의 고백이다. “그리고 교육 후에 나눔도 저는 참 좋았는데 잘 몰랐던 속장님들끼리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어요. 사실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속장들끼리 만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서로서로가 속장으로 속회 내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됨으로 좋았어요. 이러한 모임과 나눔의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안의 전체 속장들끼리의 만남은 일 년에 몇 번씩 가질 수는 있지만 사실상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속장들끼리 함께 모이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번 교육이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함께 격려함을 통해 속장의 자존감도 향상되어지고 아울러 속장 리더십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려 된다.

바. 속장들의 또 다른 필요(need) 발견.

이토록 좋은 장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단점도 제기가 되었다. 즉, 진부하고 이미 아는 것을 반복하는 듯 강의에 대한 어려움 토로하기도 하였다. J 속장의 경우에 속회지도자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을 물었더니 대답 한다는 말이 “글쎄요 저는 좋지는 하지만 자주는 말고 가끔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해 이유를 물었더니. “속회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반복적인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새로 속장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의 속장들에게는 특히 저에게는 조금 아는 걸 다시 듣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하였다. “속회와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실질적인 우리속회에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요즘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는데 신천지에 대비해서 신천지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는 대적 방법 등을 알려 주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하였다.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였지만 본 연구자로서는 상당한 통찰력을 얻게 된 계기였다. 사실상 감리교인들은 매해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는 게 있고 또 지방에서 연합으로 웨슬리 회심기념주일 집회를 드리기 때문에 수차례 존웨슬리에 대하여 들을 기회가 많은 게 사실이다. 게다가 J 속장 뿐 아니라 웬만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은 어쩌면 수도 없이 웨슬리에 대해 들었을 터인데 이번 강의도 그 연장선에서 생각 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웨슬리 속회를 그 배태된 시작부터 통전적으로 알게 하려고 나름대로는 참신(?)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이 이 속장에게는 진부하게 들려 질수도 있겠다고 이해도 충분히 되었다. 그래서 다음번 속회지도자 세미나에서는 웨슬리와 속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속회 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해야겠다는 통찰을 얻게 되었다. 그니깐 J속장의 고백은 이러한 세미나가 나쁘거나 자주해서 지루하다는 것이 아니라 뻔해 보이는 주제들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속장에게, 또한 속도원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주제들이라면 얼마든지 자주하는 것도 좋고 유익하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이런 반응도 있었다. 즉 낯선 속장들과의 나눔이 어색하고 별로 도움이 되질 못하였다는 것이다. H 속장은 잘 모르는 속장들과 갑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하니깐 어색하였고 자신에게는 그러한 나눔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생각해보니깐 구역장과 함께 속회별로 심방은 하였었지만 정작 같은 구역 내의 속장들과 함께 연합으로 모여지는 모임은 거의 전무하였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서로서로 속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거나 피상적인 나눔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같은 구역 내의 속장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주선하는 것도 속회활성화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문제로서, 강의는 좋았지만 강의를 듣고서 서로 주어진 질문에 맞추어 토론하는 분위기가 어렵고 또한 어색했다는 의견들이었다. 저들은 이미 속장들로서 가르치고 토의를 인도하는 자들임에도 낯선 속장들과의 토의가 어려웠다는 점, 또한 상당수의 구역장들은 구역별 나눔의 시간에 직접 인도해야하는데 자신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눔을 진행하려고보니 많은 부분이 어려웠다고 한 고백들이 솔직히 본 연구자를 많이 당황케도 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교회의 속회의 현주소도 미루어 살피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 배광 교인들은 건강한 토론 문화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오픈하며 나눔 지향적인 속회로 성숙해

갈수 있을까?’ 활발한 나눔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고민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도에는 배광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거룩한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성경공부를 감행한 것이었다. 그동안 배광교회의 성경공부방식은 대그룹 혹은 중그룹 형태의 성경공부였는데 2018년도에 소그룹 나눔 지향적인 성경공부를 시도하였는데 반응과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마음 문 여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존재하였지만 거듭될수록 모든 훈련생들이 자신의 속 깊은 내용까지도 오픈링 하는 초유의 은혜의 사건들도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위 모든 것들이 속회지도자들의 리더십 향상에 어떤 모양으로 이든지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 바람직한 결과들이었다.

두 번째로는 ‘속회에 대한 교역자들의 중요성과 관심의 약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이번 교육훈련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덕을 당사자들은 바로 본 연구자를 비롯한 우리 부교역자들이었다. 우선, 본 연구자는 체계적으로 속회의 발단, 속장의 역할 및 직무, 속회 인도법, 그리고 속장 리더십에 대한 외부강사의 강의 등을 통해 받는바 자극과 도전이 많았다. 특히 ‘웨슬리의 기치와 부흥기록에 나타난 속장의 자격과 의무’라는 아티클은 사실상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서있는 나에게 안성맞춤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을 정도로 나에게 큰 경각심을 가져다주어 자주 읽고 묵상하며 나를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함께 이 강의를 준비하였던 모든 목회자들은 비록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본인들 역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속회가 이토록 위대한 웨슬리 부흥운동의 최고 소산물임을 다시금 재확인케 되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였고 무엇보다도 주일날 오후 그토록 피곤한 시간에 진행된 이 강의에 속회지도자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본인들도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한목소리로 고백하였다. 그리고 이번 교육을 통해 ‘속장 보고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기에 보고서를 대하는 태도도 매우 달라졌다고 고백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교육을 준비하는 준비자들의 속회와 속장에 대한 변화가 역력한 것은 틀림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속회 모임의 출석율도 상당하지는 못하지만 교육이전보다 향상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아직도 주일날 모여지는 속회의 현실은 쉽지가 아니

한 현실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속회지도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리더인 목회자들은 물론 특히 속장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도 선한 영향과 결실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다.

제 6 장

속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속회 지도자 교육을 위한 제안

제 1 절 속장 세우기 전략

한사람의 속장이 견실하게 세워져서 속장의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속장세우기 전략’과 세워진 속장을 위한 ‘계속교육전략’이다. 먼저, ‘속장세우기 전략’이란 한 사람의 속장이 세워지기까지 교회 내에 마땅히 구비되어야 할 교육 목회 프로그램이다. 본연구자는 이를 ‘단계별 예수제자훈련과정’이라고 명명한다.

1. 전교인 필수 단계별 ‘예수제자훈련 과정’

교회의 교인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속장도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가. 확신반 과정

확신반 과정은 구원의 확신을 목표로 하여 4주간 진행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쳐야만 세례도 가능한 과정으로서 창조론, 죄론, 기독론 및 구원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목표: 구원의 확신(4주)
- 특전: 이 과정을 마쳐야 ‘세례’ 가능
- 강의 내용

- 제 1강: 하나님의 관심(창조론)
- 제 2강: 인간의 상태(죄론)
- 제 3강: 하나님의 해결과 인간의 책임(기독론, 구원론)
- 제 4강: 새로운 삶(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

나. 성장반 과정

성장반 과정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신앙의 주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는바 8주 과정으로 하고 이 과정을 마쳐야 집사가 가능토록 한다.

- 목표: 신앙의 성장성숙(8주)
- 특전: 이 과정을 마쳐야 ‘집사’ 가능
- 강의 내용
 - 제 1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 제 2강: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 제 3강: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 제 4강: 성령 충만한 삶
 - 제 5강: 신바람 나는 교회 생활
 - 제 6강: 성도의 물질관계(헌금, 구제)
 - 제 7강: 소망으로 사는 사람
 - 제 8강: 사랑이 제일이라

다. 제자훈련반 과정

제자훈련반 과정은 헌신된 제자로의 성숙을 목표로 하는바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기위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15주 과정으로 하고 이 과정을 마쳐야 권사 및 속장임명이 가능토록 한다.

- 목표: 헌신된 제자로의 성숙(15주)
- 특전: 이 과정을 마쳐야 ‘권사’ 및 ‘속장’ 임명이 가능
- 강의 내용
 - 제 1강: 십자가의 능력
 - 제 2강: 회개의 기쁨
 - 제 3강: 내안에 계신 예수그리스도
 - 제 4강: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 제 5강: 성령 충만한 제자
 - 제 6강: 목자의 음성
 - 제 7강: 기도로 사는 사람

- 제 8강: 믿음으로 사는 사람
- 제 9강: 소망으로 사는 사람
- 제 10강: 사랑으로 사는 사람
- 제 11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 제 12강: 전도자의 사명

제 2 절 속장 계속 교육의 전략

일단 속장으로 세워진 새내기 속장들을 따로 모아 7주에 걸쳐 웨슬리 속회의 오리지널한 정체성을 배우고 지금 우리네 속회에 구현토록 자극하고 속장으로서 마땅히 알고 갖추어야 할 아래의 내용들을 집중 교육한다.

1. 새내기 속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강의 내용

본 연구자가 본 논문에 수록하였던 속회지도자들의 훈련 과목을 중심으로 하여 약 7주간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할 것이다

- 제 1강: 속회란 무엇인가?
- 제 2강: 속장 리더십-속장의 정체성과 사명
- 제 3강: 소그룹 속회 전도 : 소그룹 관계전도의 이론과 실제
- 제 4강: 속장의 충만한 영성(기도와 말씀)
- 제 5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말
- 제 6강: 감리교신학-우리의 교리
- 제 7강: 건강한 속회를 위한 갈등 극복

2. 속회지도자들을 위한 계속 교육 과정

현재 속장으로 활동 중인 속회지도자들을 위하여 연도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계속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를 Leadership Training Course(LTC)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발견 및 영적 성숙

리더로서 속도원들의 성격유형을 제대로 알면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지 이해와 용납이 가능하여 그의 성격에 합당한 코칭이 가능케 된다. 본연구자 벌써 십 수

년 전에 에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적용한 뒤로 나 자신의 성찰과 성숙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른다.

1) 강의 내용

- 제 1강: 에니어그램의 개요
- 제 2강: 장형(9,8,1) 중 9번
- 제 3강: 장형(9,8,1) 중 1번
- 제 4강: 장형(9,8,1) 중 8번
- 제 5강: 가슴형(3,2,4) 중 3번
- 제 6강: 가슴형(3,2,4) 중 2번
- 제 7강: 가슴형(3,2,4) 중 4번
- 제 8강: 머리형(6,5,7) 중 6번
- 제 9강: 머리형(6,5,7) 중 5번
- 제 10강: 머리형(6,5,7) 중 7번
- 제 11강: 날개이론 및 후퇴와 전진방향
- 제 12강: 에니어그램을 통한 영적 성숙-자기성찰 기도 및 기도문 작성

나. 중보기도자로서의 속회지도자

속회지도자는 또한 마땅히 교회와 민족 그리고 속도원들을 위한 중보기도자이다. 더욱이 교회안의 교회인 속회의 제사장이요 목회자일진대 중보 기도자 됨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속장들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학교를 개설하여 중보자가 되도록 한다.

(1) 강의 내용

- 제 1강: 기도에 대하여
- 제 2강: 중보기도의 정의와 중요성
- 제 3강: 중보기도자의 서있는 위치와 사명과 정체성
- 제 4강: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제 5강: 중보기도자의 성경적 모델

제 6강: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방법

제 7강: 전략적인 중보기도 제목 만들기 및 배광교회 중보기도 사역의 비전
과 전략 나눔

다. 전도하는 제자로서의 속회 지도자

웨슬리 당시에 속회지도자들은 웨슬리를 본받아 설교가요 또한 전도자였다. 그것도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핍박도 감내할 수 있었던 충성스러운 전도사역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웨슬리후예인 속장들을 유능한 전도자로 양성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다.

(1) 강의 내용

제 1강: 전도란 무엇인가

제 2강: 전도는 왜 해야 하는가

제 3강: 전도 영성 회복하기

제 4강: 전도와 중보기도

제 5강: 전도의 종류

제 6강: 전도자의 영적 능력과 자세

제 7강: 효과적인 전도전략과 소그룹 전도

제 8강: 성령의 인도와 전도

제 9강: 정착과 양육

제 10강: 교회의 선교사명

라.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 무장한 속회지도자

웨슬리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영국국교회와 감리교인들을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웨슬리는 감리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들의 손에 들려준 것이 바로 ‘자신의 표준설교 44편’과 ‘신약성서주

해'였다. 철저히 복음중심적인 자신의 설교와 신약성서주해가 감리교의 표준교리로 정착되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속회지도자들은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등의 사악한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속회목장과 속회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교리로 무장해야한다. 고로 약 5주간에 걸친 교리로 무장시키도록 할 것이다.

마. 기타 필요 중심적 교육과 훈련

목회자의 목회적 판단아래 교회와 속회별 필요(need)에 따라 매년 전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속장들만의 집중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토록 할 것이다.

바. 속회지도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배광교회에서는 현재 수요예배 후에 속회지도자들과 속회 공과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배 후에 모여지는 모임이고 또한 빨리 집을 가야하는 상황인지라 길어야 20분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속회 공과교육 외에 다른 교육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욱이 속회지도자들 조차도 주중이라 3/2정도만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웨슬리역시 속장교육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 교육토록 하였다. 좋은 대안이 없을까? 본 연구자의 동기 목사의 경우와 화평 장로교회의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의 동기목사는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300명가량 모여지고 있는데 속회가 매우 활성화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교회의 경우에는 매주 모여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한 달에 한번 화요일 오전 10시 30에 모여서 충분한 교육과 기도, 그리고 점심식사를 같이 한다고 한다. 이 모임에는 속회지도자는 물론, 전도대원, 중보기도대원, 선교회 임원 등등, 리더 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총출동해서 은혜로운 집회와 모임, 그리고 친교를 나눔으로써 엄청난 영적인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속회지도자들과 함께 1년에 한번 씩은 꼭 여행을 떠남으로 인해 사기를 충전 받음으로 인해 속회지도자들이 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충만하다고 한다. 담임목사가 속회와 속장에게 큰 의미부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교회전체의 분위기도 역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속회지도자 교육에 있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싶은 사례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화평장로교회(김상태 목사 시무)의 케이스이다.

이 교회는 김상태 목사의 제자훈련과 가정교회로 매우 건강하게 부흥성장하고 있는 교회로서 아래의 모든 증언들은 본 연구자가 풀러신학교 수강 중에 김상태 담임 목사 직접 강의 중에 방문하여 증언하였던 내용과 또 하나는 본연구자가 화평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부목사로부터 직접 듣고 또 자료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현재 화평교회의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는 교인은 전체 출석교인의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김상태 목사는 고 옥한흠 목사로부터 제자훈련을 배워서 개척초기부터 제자훈련을 통하여 교인들을 제자로 양육시켜왔다. 그런데 제자로 양육된 사람들이 사역의 장이 없게 되니깐 마치 바리새인처럼 목이 곧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를 어찌 해결할까 기도하는 중에 가정교회를 알게 되어 교회를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훈련을 통해 양산된 제자들이 충분히 있었기에 얼마든지 가정교회내로의 리더 충원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래서 화평교회의 교회 구호도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이다.

김상태 목사는 소그룹에서 있어서 소그룹리더의 역할이 지대함을 알았고 리더의 마음가짐과 헌신도에 따라 소그룹의 건강과 부흥이 좌우되어짐을 느끼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고민 하였다고한다. 그러다가 내려진 결론이 바로 오후예배시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순전히 소그룹 리더 들만을 위한 모임으로 예배로 대체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오후모임시간에는 1부에는 찬양과 교제, 성경공부, 2부 특별순서인데 이 시간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리더십특강, 소그룹 멤버(‘가원’이라고 한다)의 간증, 새가족 간증, 전체 기도회 등으로 진행을 해나간다고 한다.¹⁵⁶⁾

제 3 절 배광교회의 ‘구역장’ 제도를 통한 웨슬리의 ‘밴드, 선발신도회’의 계승발전 사역

웨슬리는 신자들의 완전성화를 위하여 속회는 물론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었다.

156) 화평교회의 리더들을 위한 리더 오후 예배순서지 부록 4 참조.

그것이 바로 밴드(Band), 선발신도회(Select Society)등이다. 속회는 일반적으로 모든 신도들이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영적 생활을 요약 간증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영혼의 심층적 체험과 철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갈급함이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그들을 위해 내면의 철저한 성찰과 죄의 상호고백,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상호 엄격한 감독을 통한 신앙고백적인 모임을 조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밴드’이다. 밴드(Band)는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속회보다 적은 5-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었고 또한 나이와 성별, 기혼자와 미혼자를 구분하여 상호고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밴드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을 엄수하여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고 반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지난 모임 이후 자신의 죄와 시험과 유혹 등 영적 싸움과 이러한 과정에서 겪었던 자신의 영적 상태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반장은 각 회원들의 고백에 대하여 적절한 위로와 용서, 책망과 권면의 말로 응답해 주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한사람씩 서로를 위해, 특별히 완전 성결을 얻기 위해 중보기도를 뜨겁게 한 이후 축복기도로 모임을 끝맺었다. 웨슬리는 이 밴드를 통해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가까이 지내게 됨으로 크고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하였는데 그 혜택을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서로 고백한 죄가 사해지도록 위해 기도했으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사슬이 풀리고 묶었던 끈이 끊어졌으며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헤어나오지 못했던 유혹에서 해방되었고 성결한 신앙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보다 풍성한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사랑의 줄을 더욱 굳게 매고 선한 일에 더욱 효과적으로 손을 합쳤습니다.¹⁵⁷⁾

선발신도회(Select Society)는 밴드보다 더 제한된 모임이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밴드 회원 중에서 하나님의 빛과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증거를 보이는 자들이었다.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가장 가까이 도달해가고 있던 이들의 선별 모임이었다.

웨슬리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계속 나아가려는 자들이라고 하였고

157) 존 웨슬리 총서, 제 10권: *John Wesley 서간집*, 112.

이 목적은 그들에게 완성으로 매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받은 모든 재능과 은혜를 발휘하여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게 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고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과 성결과 선행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⁵⁸⁾

선발신도회의 모임은 매주 월요일에 하였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지도자를 세워 인도하도록 하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규칙을 세워 훈련시키지도 않았다. 단지 다음의 세 가지 지침이 있을 뿐이었다.

첫째, 이 모임에서 했던 어떤 말도 다시 하지 말라.

둘째, 모든 회원은 사소한 일에서도 목회자에게 복종해야한다.

셋째, 모든 회원은 매주 1회 정해진 헌금을 가져온다.

본 연구자의 생각에, 물론 속회 안에서 이러한 밴드와 선발신도회의 영적 깊은 고백과 나눔,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져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영적 수준과 영적인 필요를 고려한다면 밴드나 선발신도회의 좀더 깊이 있는 자들과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지만 또한 매우 중요한 모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선별하여 데려가셨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내에서 밴드와 선발신도회와 같이 좀더 완전을 향해 가는 구별된 소그룹을 만들 수 있을까? 웨슬리의 밴드와 선발신도회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모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이어야할까?

본 연구자가 현재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배광교회에서는 그러한 모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역장’들이다.

구역장들은 평신도 여자 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속장 출신들이며 속장들 중에서도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믿음의 깊이를 지닌 사람들 중에 선발하여 세워진 헌신자들이다. 이들이 현재 심방전도사의 역할을 해내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충성되게 섬기고 있다. 현재 이들과 함께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화요일 날 모여서 간단히 예배하고 또한 구역 내의 아픈 환자들, 심방이 필요한 사람들,

158) 존 웨슬리 총서, 제 10권: *John Wesley 서간집*, 113.

구역 내의 상황들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다. 그리고 교회 행사들을 공지하고서 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하게 된다. 한마디로 평신도 사역자들이다. 현재 무급 사역자들로서 이들은 평범한 가정주부들이다. 하지만 교구 목회자가 연락하면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라도 교회로 달려오는 충성된 헌신자들이다. 본인들이 평신도이기에 누구보다 평신도들의 심정을 공감한다. 평신도 입장에서 바라보고 의견을 제시한다. 목회자들을 진심으로 아껴준다. 같이 목양사역을 하다 보니 더더욱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입장에 서준다. 물론 평신도이고 또한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이다 보니 따라 오게 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한계보다도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깊다.

배광교회는 자칫 리더십의 교체시기에 구역장들의 남다른 교회 사랑과 헌신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였고 지금은 감리교단에서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제도로 자리가 아주 잘 잡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평신도 사역자들인 구역장 제도야말로 웨슬리의 밴드와 선발신도회를 계승 발전시킨 사역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고 감리교단의 개 교회들이 이 구역장제도를 잘 도입 적용하여 함께 평신도사역에 동참케 되길 소망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구역장제도의 효과적인 강점을 제시하는 한 방편으로써 그동안 구역장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정직하고도 깊이 있는 소감을 받아 정리해 보았다.

1. 배광교회 구역장들과의 사역소감 대담

가. 사역소감의 질문 내용

대담방식은 주로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질문내용은 구역장 이전과 하고 난 뒤에 달라진 점들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가 꼭 확인하고 싶었던 점은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달라진 교회, 교인, 목회자들에 대한 생각들이었고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등을 알고 싶었는데 모두 진지하고도 성실하게 소감을 표현해 주었다. 질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구역장 올해 몇 년차이신가요?
2. 구역장 이전과 하고 난 뒤에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 1) 교회에 대하여 달라진 생각?
 - 2) 교인들에 대하여 달라진 생각?
 - 3) 목회자들에 대하여 달라진 생각?
 - 4) 그 외의 기타 분명히 내가 달라졌다고 느낀 점들은?
3. 구역장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 보람된 일(신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4. 구역장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고된 혹은 아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5. 구역장을 하면서 건의사항들 혹은 요청사항들은 무엇인가요?

나. 사역소감의 대담정리

배광교회의 구역장들은 구역장이 되기 이전부터 속장으로 열심히 사역하던 평신도들이었다. 그런데 구역장이 되면서 이제는 한 구역 당 속회가 보통 12개 속회이다 보니 12개를 맡는 대 속장이 된 셈인데 이들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기도와 생각의 폭이 12개의 속회를 맡는 대속장 이상만큼이나 크고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구역장들은 모두 한결 같이 교회와 교인들이 대한 마음이 깊어졌고 특히 교회에 대한 애착심들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력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구역 내에 있는 구역식구들이 모두 내 새끼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내 새끼들이 잘되면 새끼 이상으로 기뻐하듯 구역 내의 식구들이 잘되면 너무도 기쁘고 안 되면 내 자식 이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Y 구역장의 고백이었다. “저는 구역장을 하면서 특히 내 구역에 관한 애착심이 강해졌어요. 구역 식구들이 모두 내 새끼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새끼들이 잘되면 신나고 안 되면 안타까운 것처럼 내 새끼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 같아요.”

K 구역장은 교인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교인들이 더 아주 많이 소중해졌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교인들에 관한 언제고 심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구역장을 하면서 가장 신나는 일은 구역식구들의 기도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리고 구역식구들의 어려운

일들을 잘 들어주었는데 화합이 되어 잘 풀어졌을 때 가장 좋고 보람이 되요”

Y 구역장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아예 교회가 되어버렸다고까지 하였다. “제가 구역장을 하면서는 저의 모든 스케줄과 초점이 교회가 우선이 되었어요. 스케줄도 교회를 중심으로 짜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방어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이전에는 교회 일에 대해서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교회편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도 매우 뚜렷한 변화였는바 목회자들을 정말로 귀한 줄로 여기고 아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목회자입장에서 목회자들을 보호해주는 구역장들이 되었다고 하였다. K구역장의 고백이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어렵게 하면 무척 속이 상해요. 특히 목사님들에 관한한 가까이서 많이 보게 되니깐 더 섬기고 싶어져요. 더군다나 목사님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이 동역하는 동지 구역들과의 정(情)도 매우 깊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L 구역장의 고백이다. “구역장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구역장 동지들과 가까워지고 더 끈끈해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매우 달라진 것은 구역장들을 향한 교인들의 인정과 평가였다. 사실, 7년 전 평신도 권사를 구역장으로 세우기전에는 구역장들에 대한 평판이 썩 좋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무척이나 인정해 준다는 것이었다.

K 구역장의 고백이다. “교인들이 우릴 인정해주는 것에서 저는 보람을 느껴요. 처음 구역장을 할 때에 교인들은 너희들 해 보려면 어디 해봐. 너희들 때문에 심방전도사들이 나갔잖아”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인들이 잘 대우해줍니다. 지금은 교인들이 어디를 가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올일 들이 있을 때에 미리 문자를 넣어줍니다. 우릴 향한 인식이 과거에 비하면 너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장을 하면서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구역장들과의 화합과 동역이라고도 하였다. Y구역장의 고백이다. “우리 구역장 안에서의 화합의 일이 어려운거 같아요. 인간인지라 미운 건은 미웠어요. 그리고 용서라

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훈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과 공훈의 마음 달라고 더 기도하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구역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건의 사항으로는 구역장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교육보다는 선배 구역장들이 하는 것을 보고 답습해가는 과정이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었다.

C구역장의 고백이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구역장이 되었는데 매뉴얼이 없다보니 눈치껏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되더라고요. 그게 딱 있어서 그걸 숙지하고서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 일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J 구역장은 “교육이 특히 필요 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전 계층을 다 아우르는 사람들이니깐 전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라든지, 요럴 때는 요렇게 등의 상황대처 능력이라든지 등등”의 매뉴얼과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구역장들이 애경사문제의 고충도 짊었다. Y구역장은 “애경사 중에 특히 장례가 어렵더라고요. 사람들 모으는 거요. 그리고 지방으로 멀리 가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았어요.”

자신도 일반 평신도요 후보로서 본인이 먼저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서 그 힘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사역이 구역장이기 때문에 결단코 쉽지 않을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역장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벽제단을 쌓아가면서 구역식구들을 위해 중보하고 자신도 충전을 받아가면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구역장들이말로 배광교회 부흥과 건강에 기둥과도 같은 일꾼이 아닐 수 없다.

제 7 장

결 론

제 1 장 서론에서는 먼저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을 서술하였다. 교회의 두날개는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할 정도로 이 두 가지는 가히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와 설교, 그리고 예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말씀이 중심인 개신교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가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설교에 들이는 비중만큼 소홀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즉 속회이다. 예배에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아마도 무의식속에 내재 되어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존웨슬리의 경험을 보아도 그렇고 또한 개인적인 돌봄과 관심이 요구되어지는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더더욱 한사람의 케어링과 관심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감리교회의 속회 소그룹 현실은 처참할 정도로 황폐해져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아마도 담임목사의 관심부재로 인한 방치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방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담임목사의 관심이 쏟아지는 시간과 물질투자여부를 살펴보면 바로 나온다. 설교에 쏟는 시간에 비해 속회 소그룹에 쏟는 시간을 비교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된다. 이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한다. 예배와 설교만큼 소그룹속회에 쏟는 시간비중이 이제는 거의 같아져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의 현실이 그것을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다.

제 2 장 1절에서는 속회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18세기 영국 존 웨슬리와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revival movement)을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속회는 웨슬리 부흥운동의 직접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은혜로운 부흥운동이 없이 속회는 탄생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18세기 절망적인 영국을 피의 혁명으로부터 구원해낸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부흥운동의 영향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위대한 부흥운동가였던 조지 헛필드를 잠시 비교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헛필드는 자신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사라졌으나 웨슬리는 죽어도 감리교와 속회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피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헛필드는 당시에 어찌며 웨슬리보다 더더욱 열정적이고도 은혜로운 설교를 통한 위대한 감동을 주었지

만 연결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마르고 거친 땅을 소낙비처럼 한번 적셔서 시원케 하고는 그 땅에 그냥 흡수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존 웨슬리의 영향력은 속회라는 연결조직을 통하여 지금까지 오래도록 생명수를 공급하였고 지금도 역시 계속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뜨거운 부흥운동!(예배와 설교)과 더불어 속회 연결조직! 이 두 가지는 거의 똑같은 비중을 두고서 동시에 잡아야 할 교회의 양 날개 임에 틀림이 없는 것임을 역사가 입증해주고이는 것이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존 웨슬리의 속회를 고찰하였는바 존 웨슬리의 속회의 발단과 탄생, 속회의 목적, 속회의 순서 및 방법, 그리고 속회의 중심인 속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하나님이 비전이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말처럼 속회는 그야말로 뜻밖의 현장에서 시작이 되었다. 웨슬리가 울더스케잇에서 회심을 체험한 이후 사실상 휘필드의 억지권유로 인해 그야말로 억지로 시작한 옥외설교였는데 이때에 많은 회심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할꼬’라며 밤에 웨슬리에게 몰려오게 된다. 그로인해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감리회라고 불리는 모임, 즉 신도회가 구성이 되었고 연합신도회의 총칙도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은 불어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조차 없었을 그 때에 감리회 최초 집회장소인 ‘뉴롬’을 짓고 나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어 고민하고 있던 무렵, 선장 포이의 충성스런 헌신으로 속회가 태동케 되었다. 즉 “각 회원은 모든 부채를 다 갚기까지 1주일 2페니를 내기로 합시다”라고 제안하자 “그럼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지요?”라는 차가운 반문에 “그렇다면 그중 가장 가난한 사람 11명을 나에게 맡겨주시오 나는 그들을 매주 방문할 것이고 그들이 내지 못 할 때는 내가 대신 그들이 몫을 내겠소”라고 말하였고 헌금을 모으러 직접 방문하였을 때에 그는 헌금을 모으는 일 그 이상의 더 중요한 목회적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정말로 뜻밖의 장소에서 이토록 소중한 영적보물인 속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속회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소극적으로는 ‘신앙의 파선방지’라면 적극적으로는 ‘성화훈련의 도구로서의 속회’이다. 즉 속회의 근본목적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신앙이 파선(破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 또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랑의 선행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서로 사랑으로 돌

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속도들이 속회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었다.

속회의 순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속회의 두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속회의 동력이 분명히 직고하는 동력이었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로는 속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¹⁵⁹⁾ 그리고 직고를 위하여 먼저, 속장이 자신의 한주 간에 그의 마음에 경험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요점을 이야기하며 직고, 간증함으로써 속도원의 고백과 직고를 유도하고 그에 합당한 충고나 권면, 교정, 위로를 해주는 것이기에 속회 안에서의 속장의 역할을 가히 지대할 수 있는 것이다.

속회의 중심축은 속장이다. 속회의 사활은 속장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속장의 위치는 “부목회자”, “위임받지 않은 성직자”, 그리고 “영적 경찰관”등과 같이 매우 중요한 위치로서 속장이 역할이란 웨슬리가 총칙에 명시하였듯이 크게 두 가지이다. 즉 속도원들을 향한 돌봄이며 또 하나는 보고였다. 즉 “그의 속(屬)에 속한 각 사람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씩 만나보고, 그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며, 필요한 경우에 충고하고 견책하고, 위로하거나 권고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기꺼이 내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번 씩 신도회의 성직자와 관리집사를 만나서 성직자에게는 병든 자,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견책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보고하고, 관리집사에게는 그들이 지난 주간에 속회에서 걸은 것을 납부하고 각 사람이 헌납한 것에 대한 기록을 그에게 보여준다.”

제 3 장에서는 웨슬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영국 신도회, 독일 경건주의, 슈페너, 프랑케, 특히 모라비안의 헤른후트 공동체로부터 영국교회를 새롭게 할 가능성을 보았고 이를 신성회에서, 연합신도회에서, 속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들로부터 웨슬리가 보고 체험한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론의 정립”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전통과 제도보다 더 우선적이고 시급한 성경적인 바로 그 교회 상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 4 장에서는 속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영국에서의 속회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그 이후 전래되었던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속회운동의 태동과 성장 등을 고찰하였

159) Watson, *이것이 속회이다*, 163-164.

다. 영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도 거의 자취가 사라져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쇠퇴의 원인을 몇 가지로 고찰하였다. 즉, 메말라버린 그리스도인의 체험(은혜의 뜨거움), 그리고 영적 책임의식의 상실.(사랑의 따듯함), 중산층의 분주한 삶, 담임목사의 속회에 대한 절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개인적인 간증의 지루하고 관습적임, 그리고 결국 가장 큰 원인으로 역량이 모자라는 속장과 속장의 훈련부재, 그리고 그로인한 유명무실한 속회임을 고찰하였다.

제 5 장은 배광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살펴되 속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배광교회 속회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단순히 외부적인 현황만이 아닌 개선과 대안이 필요한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현재 배광교회 속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3가지로 꼽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속장 리더십훈련의 취약함’, 두 번째로 ‘속회모임의 출석률 저조 및 주로 주일날 모여지는 속회현실’, 세 번째로는 ‘속회에 대한 교역자들의 중요성과 관심의 약화 등’이 배광교회 속회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들이었다. 이에 목회실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연구의 산물이 바로 속회 활성화를 위한 속회 지도자 교육훈련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위에서 드러난 배광교회 속회의 문제점과 도전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배광교회에서 실시한 속회활성화를 위한 속회지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것은 우리네 속회의 원형 모델이 되는 저 18세기 영국 존 웨슬리의 속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에서부터였다. 그리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제1강-속회란 무엇인가?: 속회의 중요성 및 감리교 속회의 기원, 제 2강-소그룹 속회 전도 : 소그룹 관계전도의 이론과 실제, 제 3, 4강-속장의 충만한 영성1, 2, 제 5강-속장의 정체성과 사명, 제 6강-감리교 신학: 우리의 교리(감리교의 초기 교리)였다. 그리고 교육훈련 뒤에 속장들로부터 실제적인 반응을 리서치 하였는데 우리 속회의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었던 ‘속장 리더십 훈련의 취약함’에 있어서 매우 상당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게 되었고 ‘속회에 대한 교역자들의 중요성과 관심의 약화 등’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크게 향상이 되었다.

제 6 장은 속회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속회 지도자 교육을 위한 제안으로서 한사람의 속장이 견실하게 세워져서 속장의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본 연구자에게 있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이유는 이미 배광교회에서 실제로 도입하여 효과적인 열매를 거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단, 속장을 세울 때에 그리고 세워진 속장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실시를 아직 하지 못하였을 뿐이었지 여러 과정을 통해 이미 검증된 교육과정이다. 다시 말해 한사람의 속장이 제대로 세워져 속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두 가지, 즉 ‘속장 세우기 전략’과 세워진 속장을 위한 ‘계속교육전략’ 반드시 구비되어야만 한다. 먼저, ‘속장세우기 전략’이란 한 사람의 속장이 세워지기까지 교회 내에 마땅히 구비되어야 할 교육 목회 프로그램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교인 필수 단계별 예수제자훈련 과정(Jesus Disciple Course)’이 반드시 구비되어야하고 이를 이수한 자에 한해 속장으로 세워야함을 제시하였다. 즉 ‘확신반 과정(4주)’, ‘성장반 과정(8주)’, 그리고 ‘제자훈련반 과정(15주)’인 것이다.

그리고 일단 속장으로 세워진 새내기 속장들은 여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어지게 하여야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가 제시한 과정은 ‘새내기 속장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강의(7주)’, 그리고 속회지도자들을 위한 계속 교육 과정으로서 ‘에니어그램’을 통한 자기발견 및 영적 성숙(12주)’, ‘중보기도자로서의 속회지도자 과정(7주)’, ‘전도하는 제자로서의 속회 지도자 과정(10주)’,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 무장한 속회지도자 과정(5주)등을 계속적으로 교육 훈련시킬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에 따른 속회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속회 지도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제 3절에서는 현재 배광교회의 ‘구역장’ 제도를 통한 웨슬리의 ‘밴드, 선발신도회’의 계승발전 사역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배광교회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있지 않다. 구역장 제도를 여기에서 제시한 이유는 한 사람의 성화 완전을 위해서라면 속회뿐이 아닌 교회내의 다양한 필요 중심적 소그룹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영적인 거목과 인재 양성함에 있어서 이 제도가 하나의 좋은 지표가 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시해 본 것이며 속회 이외에도 더더욱 탁월한 영적 그룹을 양성해볼 것이다. 신자들의 완전성화를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탁월한 소그

룹들은 많이 배출되어져야만 될 것이다. 예) 독서소그룹, 중보기도대등.

부록 1. 연합신도회 규칙 세 가지

첫째, 조심하여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남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지 말라.
둘째, 열심히 모든 선을 행하라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키라

첫째, 조심하여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남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지 말라.

-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치 말라.
- 어떤 평상의 일이나 사고 파는 일로 인하여 주일을 더럽히지 말라.
- 질병의 치료와 같은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술을 팔거나 사거나 마시거나 취하지 말라.
- 남과 싸우거나 말다툼하거나 시비 걸지 말라.
- 형제간에 소송하지 말라.
-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많은 말을 하지 말라(물건 값을 깎지 말라)
- 관세를 물지 아니한 물품을 매매하지 말라.
- 불법의 이자를 위하여 고리대금 행위를 하지 말라.
- 무자비하고 무익한 대화를 하지 말라. 특별히 행정관이나 목사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라
-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지 말라.
- 즉, 귀금속을 몸에 지니거나 값비싼 옷을 입지 말라.
- 주예수의 이름으로 사용될 수 없는 오락을 하지 말라.
- 하나님을 아는 일과 사랑하는 일에 부당한 노래를 부르거나 서적을 읽지 말라.
- 세속적인 것에 쉽게 타협하거나 세속에 방종하지 말라.
- 땅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 갚을 수 없는 돈을 꾸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외상을 지지 말라.

둘째, 열심히 모든 선을 행하라

- 능력이 되는대로 모든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능한 종류의 선을 행하라
- 사람의 몸을 위 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과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라.
- 사람의 영혼을 위 하여는; 모든 교제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권면하라
-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열광주의자들의 악마의 교리를 배격하라.
-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믿음의 가족들을 고용하고 서로 팔아주라.
- 믿음의 가족들의 사업을 서로 도우라.
- 세상 사람들도 동료로 사랑하거든 믿음의 가족들은 더욱 서로 사랑하라.
-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하고 절약하여 복음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 인내로서 앞을 향하여 달려 나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서 버림받고 바보가 되는 것을 달게 받으라.
-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하여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리라”고 주님을 위하여 기대하라.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지키라

-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공중예배에 참여하라.
- 성경말씀을 받는 모임에 참여하되, 말씀을 읽거나 강해하는 모임에 참여하라.
-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 가족기도와 개인 기도를 지키라.
-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참여하라

-금식과 절식을 지키라.

부록 2 . “웨슬리의 기치와 부흥기록에 나타난 속장의 자격과 의무”

속장들은 우리 교단에서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경건하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활동적인 속장들은 항상 건전하고 번영하는 속들을 가지고 있다. 속장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의 속도들이 어떠한가를 상당히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의무는 막중하다. 그는 스스로가 분명하고 건전한 종교적 경험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의 양자 삼으심에 대한 성령의 지속적인 증거, 죄를 이기는 지속적인 능력, 은총 안에서의 꾸준한 성장들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을 돌보면서도, 그 자신의 포도원을 고상하고 발전하는 경작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그는 성서를 잘 알고 있으며 교리적 진리, 그리스도인의 경험, 도덕적, 종교적, 의무들에 대하여 선명한 견해를 지닌 신학 전문가가 되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배워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성서와 인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총의 역사에 대하여 빛을 던져주는 인간적인 권위를 지닌 책들을 잘 공부하여야 한다.

그는 그의 속도들 간의 차이를 식별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세심한 관찰에 의해서 그들의 특수한 성품이나 그들의 경험특수성, 그들이 극심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당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들을 분별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매주간 행하는 전체적인 관찰은, 만일 그러한 것들이 한 속에 의해서 제시되는 성격이나 조건의 다양성에 특수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지루하고 단조로우며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속도들 각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살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모든 의무들을 양심적으로 이행하며, 그의 여러 모양의 십자가들을 인내함으로 견디기를 위하여 걱정하여야 한다. 그 자신이 그의 속에 모범이 되기를 목표하는 그는, 그의 속도들이 세상에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나 시험에 빠진 자들, 확고한 자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

면서 그는 신실해야하며 상처를 가볍게 치료해야하고, 그의 속도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아무런 특징도 없는 일반적인 용어들로 표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속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나 않을까 또는 그를 속으로부터 내쫓게 되지나 않을까하여 필요한 견책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그는 그의 속도들에게 매주 속회에 참석하도록 촉구해야하며, 어떤 속도들이 그들의 불규칙한 참석에 대하여 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한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후원함에 있어서 매주의 기부금을 내도록 촉구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4분기의 마지막에 주정 액수의 4배를 내는 것보다는 매주 작은 액수를 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속도들에게 매분기별 담임목사의 속회방문 모임에 직접 참석할 것을 촉구해야한다. 이는 각 속도가 그의 담임목사로부터 그 교회와 그의 관계에 대한 새로워진 증거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가능하다면, 속장은 매주 그의 속도 각 사람을 한 번씩 만나야하며 그리고 만일 어떤 속도가 어려움이나 태만 때문에 속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속도를 지체 없이 심방해야한다. 속장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극히 어렵거나 때로는 전혀 실행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부 속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는 결석자들을 심방하는 일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그 속을 인도함으로써 속장 직을 위한 훈련을 쌓게 될 것이다. 속장은 그의 속회일지를 지정된 방식으로 매주 기록해 나가야 한다. 이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속장에게 명예로운 일이며, 한 설교자가 보고 그 속의 상태를 원만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속장은 그의 속도들에게,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 속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그의 속도들에게 속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듯이, 속장들의 모임에 규칙적으로 참석함으로써 그러한 요구를 양심적으로 하여야한다. 만일 그가 이것을 태만히 한다면, 그는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다른 동역자 속장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의 형제들과 하나 된 감정을 상실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그의 지도하에서 속이 점점 쇠약하게 되는 무능한 속장으로 될 것이다.

속장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신실하고, 성실하고, 살아있어야 하며, 당신의

속도들이 거룩한 생활 가운데서 발전하기를 촉구해야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천 배나 축복하실 것이다!

부록 3. 속회지도자 교육시의 질문 및 그룹별 토의 내용 결과

◎ 제 1 강 : 속회란 무엇인가? : 속회의 중요성 및 감리교 속회의 기원

질문	1. 웨슬리 속회는 “직고를 통한 상호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속회”였는데 지금 우리네 속회 내에서는 “정직한 직고(혹은 간증과 고백)”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p>1.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간증과 각자의 체험에 대한 고백을 깊이 나누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p> <p>2. 정직한 직고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속 깊은 내용까지는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이 퍼져 나갈까봐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p> <p>3. 대부분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직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다.</p> <p>4. 직장생활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려서 간증과 고백을 나눌 시간이 부족하다.</p> <p>5. 가정에서 속회를 드릴 때는 기다려지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교체하기 어렵다.</p>
요약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염려, 시간부족으로 정직한 직고(간증과 고백)를 하기가 어렵다.

질문	2. 웨슬리 속회는 “내 속도원의 영혼과 몸은 내가 책임진다” 영적 상호 책임의식(accountability)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네 속회에서는 이러한 영적 상호책임의식이 있습니까?
답변	1. 끈끈한 정으로 서로 격려하고 돌보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상호책임의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짐의 무게를 본인들이 느끼게 되어서 힘이 든다고 합니다. 2. 어느 선까지는 상호책임을 질 수 있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는 포기하게 됨. 3. 영적책임의식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속도원들끼리 사정 형편이 다른데, 어느 부분까지 책임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4.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며 섬기는 생활을 합니다.
요약	“상호책임의식”의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 → 답변이 모호하였고 웨슬리 당시의 상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져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질문	3. “속장의 자격과 의무”(1849년)를 읽으면서 특별히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1. 양자 삼으심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 / 죄를 이기는 지속적인 능력 / 은총 안에서의 꾸준한 성장 / 속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혹은 그를 속에서 내쫓게 될까봐 필요한 견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됨. 2. 속장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의 지도하에서 속이 점점 쇠약하게 되는 무능한 속장이 될 것이다. 3. 지금까지 위의 사항들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앞으로 보다 더 세밀히 섬기고 예배드릴 것을 다짐함 4. 기도하며 힘을 얻고 서로 돌봄이 이루어져야 만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회복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요약	“속장의 자격과 의무”(1849년)를 읽으면서 속장들이 나를 잘 이해를 하였던 것 같고 웨슬리당시의 속장의 자격 기준에서 볼 때에 많이 동떨어져있는 자신들을 성찰하게 된 좋은 지침이 된 것 같다.

◎ 제 2 강- 소그룹 속회 전도 : 소그룹 관계전도의 이론과 실제

질문	1. “빵공장에서 빵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빵공장이 아니듯 전도와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 문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답변	1.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2.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일진데 나가서 전해야겠습니다.
질문	2. 또한 생명 살리는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왜 자주 뒷전으로 밀려나곤 할까요 ?
답변	개인적 자기중심, 바쁘다 보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질문	3. 기존의 전도축제와 비교하여 “속회별 전도 축제를 통한 관계전도”는 이 시대 전도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속회별 관계전도를 실행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답변	1. 직장(교육, 지출문제, 문화수준, 아파트 관리비 등), 맞벌이 문제, 옛날처럼 농경문화로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2. 주일날 속회 드리는 일이 많음, 바쁘게 살다보니 평일에는 어려움

◎ 제 3, 4강-속장의 충만한 영성1, 2

질문	1. 평소에 성경묵상을 어떻게 했었나요?
답변	1. 큐티, 출퇴근길 성경읽기(조용한 시간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성경다독, 성경통독 2. 눈으로만 읽었다. 마음으로 읽었다. 소리 내어 읽었다. 3.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행해보았다. 4. 새벽기도회에 다녀와서 새벽에 성경을 묵상한다. 중요한 말씀 적어서 다시 묵상한다. 5. 묵상집 활용해서, 은혜로운 구절 반복해서 읽고 암송, 큰 소리로 읽기, 읽고 싶을 때 읽기, 성경에 관한 방송듣기

질문	2.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와 센터링기도를 한 소감은 어떠한가요?
답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루하다고 하심,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은 은혜롭다 하심 2. 말씀을 깊이 있게 읽게 되고, 한 단어를 찾게 되었으며,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세밀하게 느끼게 되었다.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되었다. 3.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법을 깨닫고 모든 속장들의 반응이 좋았다. 힐링되는 기도 방법이라고 한목소리로 말씀하심 4. 평소에는 아뢰는 기도를 했는데, 센터링 교육 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교육받는 것, 속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니 감사했다. 5. 그 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기도의 방법들이 다시 정립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6. 그 동안 영성수련이 부족하였다는 것, 속장 등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십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느꼈고,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질문	3. 평소에 개인 영성을 위하여 어떤 규칙적인 노력을 했었나요?
답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벽기도, 말씀읽기(아침, 저녁), 묵상, 앱을 통해 말씀과 찬양, 중보기도 2. 짬나는 대로 기도하기, 묵상집 활용 3. 목사님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묵상, 속회를 통해 교제 4. 큐티 혹은 성경 5장씩 읽기, 1장씩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 5. 시간을 정해 중보기도, 매일 아침 일어 날 때 기도 6.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부족했다.

◎ 제 5, 6 강- 속장의 정체성과 사명1, 2

질문	1. 지금처럼 속회지도자(인도자, 속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칭찬을 받을까요? 아님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칭찬과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답변	책망의 내용	칭찬의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익숙해지면서 게을러지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던 점. 2. 속도들에게 관심이 줄어들었던 점. 3. 속도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책망하고 이해해주지 못한 점 4. 내 생각만하고 상대방 이해 못했던 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속도들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2.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점 3. 이해하고 사랑하고 속도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포용하려고 애썼던 점 4.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중심
질문	2. 성서의 인물 중에서 내가 닮고 싶은 ‘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멘토로 삼고 싶은 ‘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닮고 싶은가요?	
답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리아의 옥함을 갠 헌신 2. 다윗(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 3. 바울 4. 여호수아(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되는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 5. 에스더(어려운 상황에서 솔선수범했던 리더십) 6. 바나바(착한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 뒷받침 해주는 것, 청지기의 삶) 7. 지난교회 여선교회 회장(말없이 잘 이끌어준 모습) 8. 목사님(목회하는 정신력) 9. 정태임 권사(속도를 섬기는 착한 마음) 10. 예수님(성품), 11. 고넬료(섬기고 구체하는 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 12. 에녹(평범하게 사랑할 것은 없지만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던 것이 본받고 싶다. 	

◎ 제 7 장- 감리교 신학: 우리의 교리(웨슬리 초기의 교리를 중심으로)

질문	<p>오늘 새롭게 배운 “초기 감리교인의 교리들 4가지”중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 한다 (All need to be saved) 2.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다 (All can be saved) 3.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증을 받을 수 있다 (All can be assured) 4. 모든 사람이 완전 성화까지 구원 받을 수 있다 (All can be saved to the uttermost)
답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는 신앙에도 이러한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알고 충격적이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과연 나의 성숙의 단계는 얼마인지? 나이는 이렇게도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걸음마 단계는 아닌지 걱정된다. 2. 모든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초음파가 성경이라는 사실에 새삼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3. 나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배광감리교회로 온 사람인데, 감리교회는 인본주의로만 알았다가 존웨슬리가 인간의 전적타락을 말하고 이성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앞에 다시금 감리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배광교회 온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4. 존웨슬리가 기독교의 완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였는데 솔직히 의심스럽다. 죄인인 인간에게 이게 어찌 가능할까?(A 집사) 5. 기독교의 완전을 말하면서 목사님이 “성숙의 수준은 0에서 100까지 그 어느 지점인데 여러분의 성숙의 수준은 과연 어디인가요?”라고 질문하셨을 때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 ‘난 지금 어디지? 10? 20? 그래도 50은 넘어서질 않았을까?’ 하면서 의문이 끊이질 않았다. 정말 어느 수준인지 궁금하다. 잘은 모르겠지만 완전을 향해 달려가야겠다. 기독교의 완전! 파이팅!!

부록 4. 화평교회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 순서

2015 가정교회 지도자모임 진행계획

월	일	I부	II부	담 당
2	4	찬양 및 성경공부	리더십 특강(2광역)	김정민 목사
	11	찬양 및 성경공부	가원 간증	담당자
	18	찬양 및 성경공부	SM별 나눔	SM별
	25	찬양 및 성경공부	전체기도회	최상태 목사
3	1	찬양 및 성경공부	특강(3광역 담당)	박성대 목사
	8	찬양 및 성경공부	새가족 간증	담당자
	15	찬양 및 성경공부	SM별 나눔	그룹별
	22	찬양 및 성경공부	전체기도회	김진철 목사
	29	찬양 및 성경공부	광역별 모임	담당교역자
4	5	찬양 및 성경공부	특강(4광역 담당)	송기욱 목사
	12	찬양 및 성경공부	가장/총무 간증	담당자
	19	찬양 및 성경공부	SM별 나눔	그룹별
	26	찬양 및 성경공부	전체기도회	김정민 목사
5	3	찬양 및 성경공부	외부 특강	외부강사
	10	찬양 및 성경공부	가원 간증	담당자
	17	찬양 및 성경공부	SM별 나눔	그룹별
	24	찬양 및 성경공부	전체기도회	박성대 목사
	31	찬양 및 성경공부	광역별 모임	담당교역자
6	7	찬양 및 성경공부	평신도 특강	담당자
	14	찬양 및 성경공부	새가족 간증	담당자
	21	찬양 및 성경공부	SM별 나눔	그룹별
	28	찬양 및 성경공부	전체기도회	송기욱 목사
7	5	찬양 및 성경공부	외부강사	외부강사
	12	찬양 및 성경공부	광역별 모임(수련회 준비)	담당교역자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김영선. *존 웨슬리와 감리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김진두.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2005.
- _____. *존 웨슬리의 생애*. 서울: kmc, 2006.
- _____. *웨슬리의 실천신학*. 도서출판 진흥, 2000.
- _____. *존 웨슬리의 뿌리*. 서울: kmc, 2005.
- 김철한. *교회 속장 세우기*. 서울: kmc, 2010.
- _____. 김인중, 장이규, 지성업, 김문기. *소그룹회복과 부흥*. 서울: 하늘공작소, 2009.
- 김홍기. *평신도를 위한 세계기독교의 역사이야기*. 예루살렘: 1992.
- _____. *감리교회사*. 서울: kmc, 2013.
- 나원용. *웨슬레 일기 상하*.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육국, 1976.
- 박동찬. *살아있는 소그룹 속회 만들기*. 서울: 속회연구원, 2015.
- _____.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CMI, 2015.
-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KMC, 2008.
- _____. *속회 네비게이션*. 서울: kmc, 2010.
- 박춘화. *감리교회와 속회*. 서울: 보이스사, 1995.
- 이성덕. *존웨슬리 나의 삶이 되다*.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1.
- 조종남. *요한 웨슬리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8.
- 채부리. *감리교와 속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1983.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_____. *제자훈련 이후의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4.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한상호. *직고를 통한 소그룹 부흥*.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2. 번역서적

Beckham, William A. *제 2의 종교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도서출판 NCD, 2000.

Branic, Vincent.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홍인규 옮김.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5.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옮김. 도서출판 NCD, 2000.

_____.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도서출판 NCD, 2003.

_____. *소그룹만이 희망이다*. 박영철 역. 도서출판 NCD, 2011.

_____. *소그룹을 살리는 리더, 코치*. 김선화 옮김. 도서출판 NCD, 2009.

Dodahue, Bill. *소그룹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_____.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인도법*. 김주성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7.

Gonzalez, Justo. *기독교 사상사 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88.

_____. *중세교회사*. 서영일 역. 서울: 은성, 1987.

Jimjon, Wolfgang. *가정교회*. 황진기 옮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Murray, Gilbert. *감리교회 속회*. 한경수 옮김. 인천: 주안교회 출판부, 1991.

Wesley, John. *존 웨슬리의 일기*. 서울: KMC.

_____.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계준 역. 서울: 전망사, 1994.

_____. *웨슬리 설교전집1*, 웨슬리 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웨슬리 설교전집2*, 웨슬리 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웨슬리 설교전집3*, 웨슬리 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웨슬리 설교전집4*, 웨슬리 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웨슬리 설교전집5*, 웨슬리 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웨슬리 설교전집6*, 웨슬리 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웨슬리 설교전집7*, 웨슬리 학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_____. *제 1권, 표준설교 상*.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2권, 표준설교 하*.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3권, 존 웨슬리-위대한전도자*.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4권, 존웨슬리의 신학, 생애*.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5권, 신약성서주해 상*.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6권, 신약성서주해 하*.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7권, 일기 상.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8권, 일기 하.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9권, 서간집 상,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제 10권, 서간집 하. 서울: 존 웨슬리 사업회, 1976.

_____.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계준 옮김. 서울: 전망사, 1994.

Snyder, Howard A.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_____. 성령의 표적. 명성훈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4.

3. 외국서적

Jackson, Thomas and John Mason (eds.). *The Works of John Wesley*, 8 Vols.
London, 1831

John Telford (ed.). *The Letter of John Wesley*, 8 Vols. Epworth Press,
London, 1931.

Rack, Henry. *The Decline of the Class-Meeting and the Problem of
Church Membership in Nineteenth Century Wesleyanism*. WNS Proc 39,
1973-1974.

Wedgwood, Julia. *John Wesley and Evangelical Reac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London: Macmillan and CO, 1897.

4. 학위 논문들

김영호. “소그룹 활성화를 통한 교회갱신: 보목교회 구역모임을 중심으로”.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김충현. “소그룹 전도를 통한 건전한 교회 성장-서울 중앙 교회를 중심으로”.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백재준. “소그룹을 통한 관계 중심의 전도전략: 무궁교회를 중심으로”.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_____. “신앙성장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한국감리교회의 속회를 중심으로”.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7.

- 이동호. “17-18세기 교회안의 작은교회 형성사연구: 슈페너, 진젠도르프, 웨슬리를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이준규. “속회지도자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아산 한사랑교회를 중심으로“.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 이형호. “소그룹 리더의 리더십개발을 위한 훈련교재: 바울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황종상. “소그룹 사역을 통한 효과적인 교회 활성화 방안”.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 홍병수. “존 웨슬리의 속회 전통에서 본 한국감리교회 속회에 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996.

5. 학술지 및 기타 자료들

-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서울: 2016.
- 김홍기. “초기 감리교회의 조직화와 속회중심의 영성훈련”. *신학과 세계*. 2007.
- 배광교회. 35년 역사화보집.
- 배광교회. 2011년~2018년까지의 배광교회 당회 회의록.
- 속회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cmi.ne.kr/>.
- 이후정.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에 관한 존 웨슬리의 견해”. *신학과 세계*. 2007.

Vita of
Young Saeng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Calvarykmc Methodist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July, 26, 1971

Marital Status: Married to Jong Suk Lee with one son, Juyeol Kim

Home Address: 88 NeungDongno 4 Gil Gwangjin Gu, Seoul

Denomination: The Methodist Church in Korea

Ordained: April, 16, 2003

Education:

B. A.: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6

Th. M.: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9

Personal Experience:

2000 to 2005: Senior Pastor of Sodal Methodist Church, Samcheok

2005 to 2018: Assistant Pastor of Paikwang Methodist Church, Seoul